



12

주체 100 (2011)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0(2011)년 제12호

(루계 제 770 호)

차 례

축복의 눈송이	3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4
휘날려라 최고사령관기발이여	4
함박눈은 내리고 그리움은 쌓이고...	5
오성산!	5
또다시 이어진 추억	6
신해만의 풍경	7
주체문학의 대강	19
가을날에 피어난 진달래에 대한 류다른 서정	20
아 그 미소	22
어머님고향을 노래하네	22
본보기가사	23
청봉의 밤에	23
어머님의 맑은 샘	24
회령의 밤에	24
친위전사의 숭고한 뜻 새겨주는 빛나는 형상	25
아 그날은	29
회령관과 초가집	29
그 부름과 함께	30

항일혁명투사의 불굴의 모습에 대한 예술적형상의 깊이있는 탐구 . . .	31
영원한 동행자의 발걸음	34
나는 봉화리의 교단에 서있다	39
상식	39
흰눈의 광야에서	40
오산덕의 진달래	49
오늘을 추억하리	50
어머님제자들이 떠나간다	64
영원한 삶의 품	64
우리에게는 이런 법이 있다	65
우리 비서아바이	66
황홀한 래일이 바라보이는 곳에서	74
아름다운 곳에서	75
우리 식 탐정소설의 특징 몇가지	76
세계유모아	77
주체 100 년, 장군님을 따라 걸어온 우리의 자욱	78
조선속담	80

축복의 눈송이

김재원

우리의 장군님
이해 벽두의
첫눈을 맞으시며 떠나셨던 길
이해의 설달그믐날
마지막눈송이마저 맞으시며
끝없이 이어오신 애국헌신의 길

그 길에 송이송이 내리는 눈송이
눈송이들도 소곤소곤 속삭이는가
우리 장군님
해와 달 앞당겨 걷고걸으시는 초강도강행군길
그 길에 흘러신 땀
그 길에 맞으신 비
그 얼마인지...

창밖을 내다보니 하얗게 하얗게
내 사는 도시에 눈이 내리는구나
삼복철 불별아래 떨구신 땀방울
장마철 폭우속을 헤치신 그 비방울
창공에 올라 눈송이 눈꽃이 되어 내리는듯

어이 알리
산간오지 마지막집까지
내 나라 내 조국을 더 밝게 빛내이시려
5월에... 8월에...
희천의 언제우에 없으신 그 사랑 그 은정
눈송이 눈송이되어 내리고내리는지

무심히 볼수 없어라
비날론 구내길에
동서해 파원길에
북방의 철의 기지
숫구쳐 일떠서는 창조물마다
떨구신 땀방울 그 길에서 맞으신 비방울이

눈송이되어 내리는것 아닌지

평평 내리고내리리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을 위해
불멸의 국제적친선단결을 위해
이 행성의 자주와 평화 번영을 위해
쉽없이 이어가신 멀고먼 길우에
그이 펼치신 성업 바치신 헌신이

축복의 눈꽃이 되어
하늘가득 땅가득 내리고내리리
추억깊은 로씨야 씨비리 원동지구에도
사연많은 중국의 광활한 동북지역에도

아, 눈송이 눈송이는
추억인가 그리움인가
그 길에 환히 웃으시는 장군님영상 뵈을 때도
그 길에 남기신 자옥 그러볼 때에도
눈시울 뜨거워지는 인민의 마음이였어라
가슴이 찢릿해오던 인민의 심정이였어라

그 마음 그 심정
낮과 밤을 이어 올해공동사설관철을 위해
우리 흘린 땀 바다를 이룬다 해도
어이 비기랴 어이 대신하랴
이 땅에 행복을 불러오시려
그이 걸으시는 헌신의 큰걸음에

아, 눈송이 눈송이
이해의 뜨거운 눈송이여
2012년 승리의 봄 4월의 봄날에
꽃송이되어 꽃보라되어
하늘가득 땅가득 춤추며 내릴
눈송이 축복의 눈송이여!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숙동무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김정일동무를 미래의 령도자로 키워 당과 조국앞에 내세워준것입니다. 동무들은 내가 김정일동무를 후계자로 키워냈다고 하지만 사실 그 기초는 김정숙이 쌓아놓은것입니다. 그가 혁명앞에 남긴 가장 큰 공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이 김정일동무를 수령의 유일한 후계자로 내세운것은 그가 당과 국가, 군대를 령도해야 민족의 장래가 담보되고 백두산에서 개척한 주체의 혁명위업이 한치의 편차도 없이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있었기때문입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이 그를 수령의 후계자로 추대했다는것은 곧 군대가 그를 민족의 령수로 내세웠다는것을 의미합니다.》

휘날려라 최고사령관기발이여

고 영 수

저 하늘에 불타는 노을처럼
기발이 날린다
우리의 대오앞에 펄펄 날린다
원수별 빛나는
최고사령관기발이여

절세의 위인
하늘이 낸 천출명장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영광의 그날을 못 잊어
저렇듯 힘차게 나뭇기는가

바라보면
가슴가득 기쁨이 물결치누나
바라고바라던 민족의 숙원이 풀려
온 나라가 꽃바다로 설레이던
감격의 그날처럼

오늘도 귀전에 들려오누나
위대한 령장을 높이 모시여
부흥할 조국의 앞날을 그려보며
장군님 우러러 환호성 올리던
력사의 그 메아리가

깃들어있어라 휘날리는 저 기폭엔
침략의 피수 미제에게
련전련승으로 패배만 안기던
무비의 담력과
백두의 그 슬기가

빛나고있어라
눈부신 저 원수별엔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그 담력과 용단으로
하늘엔 우리의 위성이 날고
땅은 철벽의 요새로 치솟은 그 기상

얼마나 궁지높고 자랑높은가
그이의 기상앞에
원수들의 핵소동은
폭풍앞에 초불의 신세되고
그이의 담력앞에
봉쇄의 산병선이 락엽마냥 흩어지나니

군사의 거장
천하제일명장이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여
천리방선을 지켜선 병사들은
무적의 강군으로 용맹떨치고
철벽의 요새로 다져진 내 조국은
선군의 강국으로 그 이름 떨친다

세상을 둘러보라
력사의 갈피를 펼쳐보라
천하를 쥐락펴락하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은
세상에 오직 한분밖에 없나니

아, 더 높이 휘날려라
원수별 빛나는 최고사령관기발이여
선군조선의 기상 온 누리에 떨치는
저 기폭아래 펼쳐지리라
통일된 하나의 조국
인류의 리상 꽃핀 자주와 새 세계가

함박눈은 내리고 그리움은 쌓이고...

문 동 식

조국의 약동하는 숨결을 지켜
이밤도 잠 못드는 최전연의 밤
병실의 창밖에선 함박눈이 내리고
우리의 마음속엔 그리움이 쌓이고

몇해전 오늘
구름도 쉬어넘는 최전연고지
평평 함박눈 내리는 령길을 넘어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찾아주셨네

그이의 찬손을 놓을줄 모르던
우리의 얼굴은 눈물에 젖고
동무들의 온기에 내 몸이 녹는다는
장군님의 음성은 뜨거움에 잠기고

어깨의 눈도 털어주시고
솜옷의 두터이도 가늠해보시던
장군님의 그 진정 소곤소곤 속삭이며
함박눈은 고요히 내리고...

병실벽에 달아맨 메주덩이 보시고는
구수한 냄새에 잠이 잘 오겠다고
병실 온도계의 눈금도 찬찬히 보시고
이만하면 마음이 놓인다고...

중대생활 구석구석 보살펴주시던
자애로운 그 품은 병사들의 삶의 요람
햇숨마냥 내리는 함박눈은
장군님병사들 가슴속에도 내리고

그 사랑 사무치는
이밤의 최전연 나의 고지는
장군님의 뜨거운 정과 병사들의 그리움이
용암마냥 끓고있는 곳

우리 조국 이런 최전방과 병사들을 모르고
감히 원썩들이 달려든다면
그리움의 그 불은 활화산처럼 터져올라
침략자들 한줌 재로 만들려니

사랑과 그리움을 안고 솟은
여기 조국의 고지는 무적의 요새
우리 장군님의 백두산총대로
백승만을 펼쳐갈 멸적의 승리봉

이 고지에 장군님의 봄빛같은 정을 안고
이밤 함박눈은 내리고
장군님의 병사들 우리들의 가슴속엔
불같은 그리움만 쌓이고 또 쌓이여라

오 성 산 !

박 태 설

세월의 비바람이 다듬어세운
바위의 창끝을 창공에 추켜들고
너는 솟아있구나
오성산!

너의 아득한 산정에선
수리개도 등지를 잃고 헤맨다는
강파른 벼랑엔
눈과 비 안개도 미끄러져내린다

사철 불어치는 칼바람에
이끼도 락엽도 날새도 붙지 못하는
칼벼랑
창끝바위

그 험한 벼랑과 벼랑길에
우리 장군님 어떻게 오르셨는가

그 험한 벼랑과 벼랑길에
우리 장군님 남기신 자욱 그 얼마이던가

물기조차 서슴어지는 그 사연
그날의 장군님모습
우리 장군님 병사들을 찾아
어깨로 야전차를 미시던 아슬아슬한 순간

이 길앞에는 최전연
최전연에는 장군님의 병사들
꿈속에도 그림던 장군님 오셨건만
병사들 막아서던 눈물젖은 오성산

넋이 없는 산천도 벼랑도
땀뭍게 하는 이 험한 길로
우리 장군님 비오나 눈이 오나
병사들을 찾아 쉽없이 오르내리셨나니

또 다시 이어진 추억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 이룩된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는 일심단결의 완벽성과 공고성,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힘을 가진것으로 하여 사회정치적집단의 최고의 전형으로 되고있다.》

무릇 추억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아름다운것이다.

주체96(2007)년 4월 26일!

그날은 력사적인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이 있던 다음날이였다.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경축의 기쁨을 일군들과 함께 나누고싶으신듯 쌓인 피로도 푸실새없이 또다시 그들을 곁에 불러주시였다.

그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전날에 있던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을 본 소감도 물어보시고 선군령도의 나날에 몸소 체험하신 사연깊은 이야기도 들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심중에 차호르는 뜨거운 사랑과 정을 터치시며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금 회고하시며 나는 지금도 무지개동굴을 보수할 때 본 그날의 병사들을 잊을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벌써 몇번째나 곱씹어 외우시는 사실인가.

개건된 무지개동굴을 찾으신 그날에도, 그로부터 퍼그나 세월이 흐른 어느해 1월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병사들이 전기불도 없는 어두운 굴 안에서 식사를 하는것을 보고 가슴이 아파 승용차 전조등을 비쳐준적이 있다고, 제일 어려운 시기에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받들고 무지개동굴보수공사를 한 공병부대 군인들의 모습은 자신의 기억속에 영원히 남아있을것이라고 뜨겁게 외우시였다. 그후에 자신께서 그날의 병사들을 위해 많은 량의 고기를 보내어 푸짐한 식탁을 차려주게 하였던 일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못 잊을 추억에 잠겨계시는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뇌리에는 장군님의 현지도를 수행하는 나날에 무지개동굴에서 목격했던 잊지 못할 화폭이 어제런듯 방불히 되새겨졌다.

어둡고 칙칙한 굴안, 군데군데에서 떨어지는 차디찬 석수...

그속에서도 명랑하게 웃으며 식사를 하는 병

사들을 위해 그날 우리 장군님께서 가던 차를 멈추게 하시고 오래동안 전조등을 비쳐주시였다.

병사들은 대낮처럼 환히 비쳐지는 전조등빛가까이로 막 뛰어와 바짝 모여붙었다. 어느분이 타신 차인줄도 모르고 전조등을 더 비쳐달라고 차쪽에 대고 부탁까지 하였다.

그러는 병사들의 모습을 차창너머 말없이 지켜보시는 우리 장군님의 눈가에는 참으로 이룰수 없는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그날의 마음속 충격이 또다시 복받치시는듯 장군님께서서는 자못 격하신 음성으로 그때 나는 당장 차에서 내려 그들을 위로해주고싶었다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고, 불빛아래서 밥을 먹는 그들을 순간이라도 방해하고싶지 않아서였다고, 그때 나는 사실 갈길이 매우 바빴다고, 그러나 자기 아들같은 병사들을 두고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한동안 불빛을 비쳐주고서야 길을 떠났다고 말씀하시였다.

마디마디 혈육의 정이 흘러넘치는 위대한 선군령장의 심중의 말씀!

정녕 그때 우리 장군님께서 병사들을 위해 불빛을 비쳐주신 시간은 15분이였다.

그 15분동안에 장군님께서서는 선군의 한길에서 뜻과 정을 함께 해온 자신의 아들딸과도 같은 이 땅의 모든 병사들을 추억의 한품에 다 안아보시였다.

실로 가를래야 가를수도 없고 또 끊을래야 끊을수도 없는 이 혼연일체의 력사와 더불어 선군조선은 수령결사옹위의 불패의 성새로 더욱 높이 솟아오른것이다.

혈연의 이 진리, 필승의 이 진리를 다시금 천명하시듯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좌중을 향해 병사들은 아마 그 차에 내가 타고있었는지 몰랐을것이라고, 그때부터 나는 때없이 그날이 잊혀지지 않고 자꾸 추억속에 떠오르곤 한다고, 동무들은 최고사령관과 병사들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라는것을 알아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잊지 못할 4월 26일!

그날의 밤은 이렇게 흘렀다. 위대한 선군령장의 불타는 추억을 싣고, 우리 장군님과 병사들사이에 맺어진 뜨거운 혈연적인연, 불패의 혼연일체를 다시금 력사의 갈피에 새기며...

이 땅에 났을 든 사람이라면
오성산을 안고 살아가 하리
우리 장군님 쌓아주신 행복의 천년성새
그 성새를 떠받든 만년초석 오성산을

아,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을
만대에 전해갈 오성산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의 빛나는 위업으로
이 땅우에 우뚝 솟아있구나!

신해만의 풍경



리 명

1

엷어져가는 어둠을 헤가르며 열차가 최속력으로 달리고있었다. 광란하는 바람은 산야에 덮인 눈더미들을 휩쓸어서는 차창가에 눈가루를 뿌리었다. 밤중에 터진 바람이 열차가 동해안쪽으로 접어들면서 더 사나워졌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보시던 신문에서 눈길을 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차창밖을 내다보시었다.

또한 눈가루가 안개처럼 서린 밝은 어느새 흐름 흐름 하늘같이 들리기 시작하였다. 멀리 검푸른 바다위에 뜬 찢어진 구름사이로는 얼음덩이같은 하얀 조각달이 떴고있었다. 그것도 인츰 눈보라속에 가리워졌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모든 풍경은 무관심하듯 가락맞게 들려오는 차륜소리에 사색을 엮고계시었다.

(홍수민...)

문득 그이께서는 신문에서 보셨던 한 일군의 이름을 뇌이시었다. 그러자 눈앞에 펼쳐졌던 울부짖는 눈보라는 지워지고 차창에는 아직 한번도 만나본적 없는 무게있고 듬직한 한 일군의 표상이 뚜렷이 그려지시었다. 그는 최근년간 수산물가공분야에서 일자리를 내고있는 일군으로 신문과 텔레비존에 소개되고있는 신해수산물가공공장 지배인이었다.

언제인가 미술전시장을 찾으셨던 장군님께서는 한쪽의 풍경화앞에서 발길을 인츰 떼지 못하신적이 있었다. 진귀한 색깔의 전복, 소라, 진주조개들의 조가비를 리용한 자개박이그림인데 자신께서 잘 알고있는 동해북변 신해만포구의 생활을 랑만적인 화풍으로 형상했던것이였다. 창작가는 홍수민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밤 림태현부부장이 홍수민의 딸인 홍진아의 편지를 받았다고 하던 말이 떠오르시었다.

젊은 부관이 차반에 새 차잔을 받쳐들고 들어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천천히 창가에서 돌아서시었다.

《림태현동무가 깨어났으면... 아니, 그만두오.》

장군님께서는 부관한테 이르려다 림태현이 지난밤 늦게야 잠자리에 든것이 상기되어 그만두시었다. 그런데 조금 지나 결방 침실에서 잠든줄 알았던 태현이 조용히 방에 들어섰다. 부관이 알린 모양이였다.

림태현은 어느새 잠을 털었는지 멀쑥한 얼굴에 목깃이 단긴 단정한 차림새였다.

《장군님, 밤새 또...》

태현은 탁상등이 켜진 집무탁에 무드기 쌓인 문건들을 피로운 눈길로 더듬다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태현의 부석부석한 눈두덩을 여겨보시며 간밤을 설쳤을 그의 마음이 헤아려져 빙그레 웃으시었다. 자신의 건강을 녀려해주는 그의 마음이 가슴뜨겁게 안겨오시었다.

어제 낮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평양곡산공장에 이어 **김일성**종합대학에 새로 지어주신 최상급의 수영관을 돌아보시었다. 날이 저물어서야 당중앙위원회 집무실에 돌아오신 그이께서는 태현이한테 **김일성**종합대학 수영관을 본 소감을 물으시었다. 태현은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말씀드리었다.

《장군님, 종합대학에서 다시 공부하고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았소. 허허... 우리가 마음먹고 훌륭한 수영관을 지어주기를 아주 잘했소. 오늘 다시 보니 학생들은 더 말할것도 없지만 늙은 교수들도 한결 젊어진것 같더라 말ियो. 우리 학생들과 교수들의 건강은 나라의 재부중의 재부입니다. 그들이 건강해야 나라가 더 힘있게 전진할수 있습니다.》

그이께서는 못내 만족해하시었다. 그 시각에 부

관이 들어와 인민내무군 책임일군들이 도착하였음을 알리었다.

장군님께서서는 곧 그들과 함께 대동강과수종합농장확장과 관련한 협의회를 가지시었다. 태현은 잠시도 잠없이 보내시는 장군님의 정력에 뜨거움을 삼키었다.

그는 이제 또 대동강류역의 끝간데없는 원홍땅 전부가 선군시대의 희한한 선경으로 펼쳐져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과일을 먹이시려던 구상이 빛나게 실현되리라는 생각에 잠겼었다. 하지만 태현은 시간이 흐를수록 협의회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심정에 가슴이 타들었다. 그사이 폐년에 없는 강추위속에서 평안북도와 자강도에 이어 평양시내의 여러곳에 대한 현지지도를 마치고 어쩌다 당중앙위원회 집무실에 돌아오신 그이께서 이 한밤이라도 편히 쉬시옵기를 바라시었다.

협의회는 밤이 이속해서야 끝났다. 태현은 협의회참가자들을 배려주고 다시 장군님의 집무실에 들어섰다.

장군님께서서는 조금도 지친 기색없이 열정에 타오르는 눈길로 문건들을 보고계시었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기어이 강성국가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해 질풍같이 내달리는 조국의 숨결을 문건들에서 느끼시며 그이께서는 신심에 넘쳐 그 갈피들에 활달한 필체로 가르치심을 써넣으시었다. 어느 한 문건에 시선을 멈추신 그이께서는 마지크뽀등으로 책상모서리를 한참이나 도닥이시다가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고개를 드시었다.

《부부장동무, 신해수산물가공공장 말이요. 이 사람들이 이번에 축양장을 현대적맛이 나게 또 크게 꾸렸구만. 지배인이 일할줄 알거던, 일할줄 알아. 참, 내가 전번에 알아보라던 문제는 어떻게 되었소?》

《저… 며칠전에 홍수민지배인동무의 딸 홍진아의 편지를 받았습시다. 그런데 그 편지에도 아버지가 어째서 신해만에 갔는지 자세히 밝혀있지 않았습시다.》

《음.》

김정일동지께서는 갈마드는 의혹을 다시금 느끼시었다. 태현은 장군님께 시원한 대답을 올리지 못하는 죄송스러운 마음을 안고 간절히 말씀드렸다.

《장군님, 제 짬을 내어 홍수민동무를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더는 마음쓰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날을 현지에 나가계셨는데… 이밤이라도… 이제 3시간이면 날이 밝습시다.》

《벌써 그렇게 됐는가?》

장군님께서서는 얼핏 탁상시계를 보시고 자리를 일으시었다. 방안을 몇걸음 거니시다가 창결에 멈춰서시었다.

불빛이 환한 정원숲은 바람질에 잔가지들이 뒤채이며 수선거리었다.

《3시간이라…》

그이께서는 입속말처럼 짧게 뇌이셨다가 한결 명쾌하면서도 저력있는 음성으로 뒤를 이으시었다.

《한 우주여행가가 말이요. 빛속도로 달리는 비행선을 타고 얼마동안 우주여행을 마치고 지구에 돌아오니 떠날 때 갓난아였던 아들녀석이 늙은이가 돼버렸다고 하오. 지구에는 실지 수십년세월이 흘렀다는거요.》

아직은 리론적연구에 기초하고있지만 사람들은 이 특수상대성리론을 통하여 속도에 따라 시간이 서로 다르게 흐른다는것을 알게 됐소. 말하자면 시간으로 속도를 계산하는것이 아니라 속도로 시간을 계산하게 되었소. 어떻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런것 같지 않소? 도처에서 선군시대의 선경들이 미증유의 속도로 일떠서고있소. 우리 인민이 오랜 세월 품어오던 리상과 포부들이 하나하나 현실로 꽃피어나고있소. 이 모든것은 강성국가를 건설하는 속도가 새로운 시간을 창조하여 나라가 더욱 젊어지고 부강해가고있다는것을 말해주오. 그렇지 않소? 부부장동무, 우리도 또 한번 달려보는게 어떻소?》

《네?》

태현은 그이께서 웃으며 하시는 물으심이 인츰 리해가 되지 않아 속으로 되뇌이였다.

(그럼… 장군님께서 이밤 또 강행군을 하시려는것이 아니실가?… 그렇다면?…)

《장군님… 혹시 신해수산물가공공장?…》 하고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장군님께서서는 정겨운 눈길로 그를 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부부장동무, 이밤으로 떠납시다. 그렇잖아도 북부공업지구의 제철소와 제강소에 가려됐는데 가던 걸음에 신해수산물가공공장에 들려봅시다. 내 언제부터 홍수민동무를 한번 만나보고싶었소》

태현은 그제야 자기가 크게 실책했음을 깨달았다. 홍진아의 편지소리를 괜히 하여 장군님의 일정을 급변시킨것 같았다. 그는 어쩌다 차려진 몇시간의 휴식마저 마다하시려는 그이의 말씀에 난색을 지으며 안타까이 말씀드렸다.

《장군님, 온 한해를 현지에 나가계셨는데 이해의 마지막 며칠간이라도 평양에서 지냈으면 합니다. 더구나 나라의 최북단에 있는 그곳은 지금 강추위가 여간 아닙니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부부장동무, 우리가 언제 추위를 마다한적 있

였소. 나한테는 사나운 계절이 몸에 맞습니다. 나야 백두산에서 나서자라지 않았습니까.》

그이께서는 태현이 더는 말을 못하게 꼭 눌러놓으시었다.

그렇게 떠나신 걸음이였다.

기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홍수민지배인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갖고계시었다.

지난해 장군님께서는 신해수산물가공공장에서 생산한 물고기가공품이 국제상품전시회에서 인기를 끌었다는 자료를 보고받으시었다. 물고기가공제품의 질적수준을 보여주는 기본지표인 제품의 멸균상태와 문화위생적인 진공포장이 높이 평가되었던것이다.

신해수산물가공공장은 제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 자신께서 내오도록 하시고 걸린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어 일떠세운 기업소였다. 그런데 불과 몇해사이에 기업소제품이 이렇게 이름이 나게 되었으니 실로 대견스러우시었다.

장군님께서는 그래서 태현이를 불러 신해수산물가공공장을 구체적으로 료해할 과업을 주시였던것이었다.

태현은 현지에 내려가 여러날 체류하면서 기업소실태를 료해하여 보고하였다.

기업소는 당에서 의도하는대로 산 물고기와 가공품을 동시에 생산할수 있는 최첨단과학기술설비로 장비하여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한층 높일수 있는 전망이 확고한 기지로 발전하고있었다.

기업소건설을 시작하러던 초기에 있는 일이었다. 군에서는 뜻밖의 자연재해로 황무지나 다름없이 파괴된 신해만에 새로운 수산물가공기지를 꾸릴 건설대를 조직하고있었다. 그무렵 한사람이 가족을 데리고 멀리 도소채지에서 찾아왔다. 자개박이공예가인 그의 작품들중에는 신해만의 희한한 풍경도 있었다. 그가 후에 기업소지배인이 된 홍수민이었다.

《장군님, 지배인동문 어떻게나 입이 무거운지 어째서 공예를 그만두었는가고 물었더니 일체 말을 안했습니다.》

태현은 기업소료해과정에 알게 된 다른 사실까지 덧붙여 말씀드렸다.

《...한번은 그가 출장갔다 돌아오니 그사이 종업원들이 이미 진척중이던 구내부두공사를 마무리하고있었다고 합니다. 부두에 화강석을 쌓고 바닥을 콘크리트포장을 하려 할 때였습니다. 그는 공사를 당분간 중지할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가타부타 말없이 말입니다. 부두준공이 하루가 새롭다면서 무섭게 다가어대던 그였습니다. 사람들은 공사를 중지시킨 문제를 놓고 여간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밤으로 화물자동차를 끌고 수백리나 떨어진 칠보산쪽의 바다가마음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거기서 바다물에 수천년 씻기고 다듬어진 옥돌같은 잔자갈을 며칠간 묵으면서 제 손으로 알알이 골라 한차 신고왔습니다. 그 옥같은 돌을 부두세멘트바닥에 촘촘히 박아놓은 후에야 준공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기업소에 모실 날을 그리며 장군님을 더 잘 모시려는 그 진정에 머리를 숙였다고 합니다.》

장군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시었다.

《대체로 미술을 전업한 사람들이 과묵합니다. 눈으로 관찰하고 손으로 작업하는 그들의 언어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곳 당조직에서는 홍수민동무는 미술대학 경력을 갖고있고 그의 아버지는 한때 일본땅에서 이름난 도자기공예가였다고 하였습니다.》

《음, 그래서 그도 자개박이공예숨씨가 있는 모양이구만.》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시대가 낳은 한 일군을 아시게 된것이 무척 기쁘면서도 방향전환을 한 홍수민의 인생행로에 필경 깊은 사연이 있으리라는 예감을 그때부터 가지셨던것이다. 태현은 장군님께서 알고싶어하시는 그 문제를 기업소에 내려갔을 때 퍼그나 친숙해진 홍수민의 딸 진아한테 부탁하였고...

렬차의 차륜소리가 더 기운차게 들려왔다. 멍렬히 질주하는 차창밖으로는 전주대들이 휙휙 스쳐 지나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차창에서 물러나 다시 쏘파에 앉으시며 물으시었다.

《부부장동무, 동무한테 홍수민의 딸애의 편지가 왔다고 했지? 그 편지를 갖고있습니까?》

《예.》

태현은 들고다니는 서류가방에서 두툼한 편지봉투를 꺼내 그이께 드리었다.

2

...

부부장동지, 지난밤 내가 얼마나 희한한 꿈을 꾸었는지 아십니까? 자나깨나 뵈고싶던 아버지장군님께서 저희들이 일하는 게가공작업장에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호호... 글썄 내가 우리 계를 가공하는 처녀들을 대표하여 아버지장군님께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리겠지요. 그리고 우리 처녀들이 지금 준비하고있는 게가공을 형상한 무용도 보여드리고요.

아버지장군님께서는 춤을 잘 춘다고, 게가공로동생활을 방불하게 잘 형상했다고 박수까지 쳐

주하지 않겠어요.

꿈을 깨고나니 얼마나 서운하던지... 그러면서도 정말 이런 추운 날 오시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국의 최북단인 이곳 날씨는 지금 동지추위로 생나무들이 쨍쨍 갈라져 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사시절을 내내 현지지도의 길에서 보내시는 아버지장군님! 요즘은 텔레비죤화면에서 아버지장군님의 모습을 볼 때면 자꾸만 축하신것만 같아... 웬일인지 저의 할아버지가 생전에 어버이수령님의 건강을 위한 일을 아버지에게 당부하셨다는 이야기가 떠오르곤 합니다. ...

부부장동지가 우리 집 가정래력을 알고싶어하여 자초지종 적습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일본땅에서 한시절 유명한 도자기공예가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여년전인 1959년까지 일본 구슈지방의 사가현 아리따마에서 살던 저의 할아버지에게는 그해 두가지 경사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첫아들인 저의 아버지가 출생한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동서해의 바다가를 다니며 크고 작은 골뱅이 수만개와 진주조개들을 수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할아버지는 마음속에 소중히 싹틔워오던 꿈을 실현할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아, 바람세찬 이역의 하늘아래서 한많은 노예살이끝에 죽으면서도 애끓게 불러보던 내 나라 땅... 태를 묻은 고국이지만 갈수도 없고 죽어서도 뼈조차 묻을수 없던 조국땅에 해방의 봄빛을 안아오시여 인민의 참된 나라를 세워주시고 오늘은 이역만리에 사는 동포들을 한품에 안아 귀국의 배길까지 열어주시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

할아버지는 한을 품고 돌아간 선친들과 이역땅에서 막돌처럼 버텨받는 동포들의 이름으로 그리고 새로 태어난 자식의 이름으로 **김일성**장군님의 옥체만강을 축원하여 꽃병을 빚어 삼가 올리고픈 열망으로 가슴을 끓였습니다.

수만점의 작은 골뱅이와 진주무늬로 장식할 그 꽃병으로 말하면 할아버지의 일생 최대의 걸작품으로 내용과 형식, 예술적품위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재보로 길이길이 전해질수 있도록 최상의 경지에 도달하여야 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골뱅이정선작업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쌀알만 한 크기의 골뱅이, 콩알크기의 골뱅이, 엄지손가락크기의 골뱅이들을 규격별로 선별한 다음 그 속살들을 바늘로 하나하나 파내기도 하고 껍데기를 닦고 쏘고 깨끗이 소독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진주조개무늬를 따내는 작업도 하였습니다.

낮에 밤을 이어 창작에 골몰하던 할아버지는 눈이 석자나 되는 대짜배기꽃병을 성형한 겉면에 골뱅이를 붙이는 작업과 함께 진주무늬로 《만수축원》이라는 글발을 새겨가고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앞으로는 일본 《천황궁》에서 발급한 금빛봉합엽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일본의 유일무이한 신이며 하늘이신 소화천황성탄명일을 맞으며 천황궁은 폐하께 진상할 극치의 백자기결품을 그대에게 소청하는바 그대는 순백한 추앙심을 안고 뼈와 살을 깎아 일등충신이 될지어다. ...

이 뜻하지 않는 《천황궁》의 강요는 왜나라쪽 발이들에 대한 할아버지의 사무친 원한을 더욱 끓어번지게 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즉시에 회신을 날렸습니다.

《나의 마음속 하늘은 오직 **김일성**장군님입니다!》

며칠후 할아버지의 작업실로는 한무리의 깡패들이 몽둥이와 쇠파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놈들은 무작정 작업실과 집에 달려들어 들부시고 박살내고 도자기로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할아버지는 범같은 노성을 지르며 놈들한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피에 주린 이리떼처럼 미쳐날뛰는 놈들을 할아버지 혼자서는 당해낼수 없었습니다.

놈들은 할아버지를 몽둥이로 때리고 발로 짓밟기도 하며 피주점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정신없고 인사불성이 된 할아버지는 잠간사이에 가산도 명예도 꿈도 다 잃은 알거지신세가 되고말았습니다. 남은것이란 아직 이 세상을 알지 못하는 피덩이 아들뿐이었습니다.

혼수상태에서 헤매이던 할아버지는 며칠후에 눈을 떴으나 일어나지는 못하였습니다. 림종의 시각에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꼭진한 당부를 남겼습니다.

《여보, 애를 데리고 조국에 가오. 첫 귀국선이 인츰 떠나오. 애가 자라면 이 애비가 이루지 못한 뜻을 꼭 잇게 해주오. 우리 **김일성**장군님께서 옥체건강하셔야 나라가 부강해지고 우리 민족은 자자손손 복락을 누리게 되오.》 ...

《부부장동무,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는 편지요. 나는 한 일가가 품고있는 소중한 마음들을 알게 되었소.》

쪼파 등반이에서 몸을 일으켜 세운 **김정일**동지께서는 편지에서 눈을 떴으며 계속하시였다.

《홍수민동무가 조국에서 자라면서 미술대학에 다닌건 분명 아버지의 뜻을 지키려고 한것 같소. 그런데...》

장군님께서는 더 말씀을 잊지 못하시였다.

홍수민, 나라의 머나먼 북변, 항시 마음에 걸려 내려가지 않던 추억깊은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인민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한 거점을 꾸려가고있는 그가 아버지의 뜻을 어긴것은 무슨 피치 못할 사정때문인지?...

달그락달그락... 씹없이 달리는 철차의 소음은 그이의 심중을 무겁게 누르기만 하였다.

철차는 종일토록 추위에 떨던 해가 서산쪽으로 기울무렵에야 크지 않은 산간역에 멈춰섰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야전차를 갈아타시였다. 신해수산물가공공장이 위치한 곳은 철길이 들어가지 않는 해안이어서 육로로 한참 더 달려야 하였다.

산세가 험한 령을 넘어서자 해안선을 따라 굽이진 넓은 석비레도로가 나졌다. 산골짜기를 타고 쓸어내리는 바람이 마구 회오리치면서 도로경계표 말밖에 쌓인 눈더미들을 파헤쳐 시창박을 뿌렇게 하였다. 시창너머로는 하늘과 맞붙은 바다가 넘실거리고 바다기슭 절벽우에 서있는 희끄무레한 이 짙나무숲이 아물거리였다.

점점 다가서는 날카로운 산악들과 산그림자가 드리운 눈보라길, 저 멀리 해안을 끼고 무연히 드러누운 벌판을 내다보시던 **김정일**동지의 눈앞으로는 부지중 추억의 물결이 이랑을 지으며 밀려오더니 퍼그나 친근하고 귀에 익으신 우렁우렁한 음성이 귀전에 울리였다.

《...차가 진펄에 빠져 갈수 없단 말이지. 자, 다들 내려 차를 밀어봅시다. 정 차를 타고갈수 없으면 걸어서라도 인민들이 사는 곳이라면 다 찾아가 보아야 합니다.》

전후 우리 수령님께서 령세어민들의 생활을 돌보시려고 진펄에 빠진 차를 몸소 밀고가시던 그 령사의 땅이 예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가도가도 끝없는 진펄, 색시 팔아 장화를 산다는 전설, 갈매기들의 처량한 울음소리...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고장들을 다 돌아보고싶어 고난의 행군의 나날 자신께서도 바로 이 고장을 찾으셨고 태풍과 해일로 발동선들과 고기배들이 죄다 파괴된 어촌을 두고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여기 어느 바다가기슭을 해가 저물도록 거닐지 않았던가. 기슭으로 달려오고 달려오는 저 파도는 그날 발목을 적시며 감겨들던 그 물결은 아닌지...

...맨처음 우리가 이사집을 풀어놓은 곳은 해일피해를 입은 해안가였습니다. ...

불현듯 그이의 뇌리에는 진아의 편지글줄들이 다시 떠오르시였다.

...깊은 밤 불쑥 나타난 아버지. 피로에 지친 겨진 눈확, 역한 해감내가 물씬거리는 옷자락...

《여보, 당신 또 신해만바다가를 해매이다 왔군요. 제발 내 말을 명심해들어요. 오늘 낮에 미술창작사에서 기별이 왔어요. 당신이 형상한 〈신해만의 풍경〉이 국가미술작품전람회에서도 입선됐다나봐요.》

엄마의 목소리는 기쁨과 행복으로 떨렸어요. 어찌 그렇지 않겠어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 아버지수령님과 아버지장군님께서 기뻐하실 명화를 목표로 삼고 머리속에는 환영처럼 존재하던 서도 좀처럼 그려낼수 없는 신비로운 선과 색채를 찾아 오랜 세월 품들여온 아버지의 작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의 표정은 한점의 반색도 없이 덤덤할뿐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신해만 선장아바이랑 그곳 사람들은 썩 달가와하지 않더구만. 모사품을 보여줬더니 말이요.》

《아니, 왜요?》

《신해만에 없는 풍경이라는거요. 하긴 상상화였으니까.》

《호호... 예술이란 그런거지요 뭐. 그들이 뭘 안다구...》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아버지는 버럭 어성을 높였습니다. 집안공기는 대번에 싸늘해졌어요.

아, 동해북변의 아름다운 바다가, 갯가지 이름모를 조개들의 서식장, 자개박이공예가인 아버지가 작품재료로 쓰일 여러가지 조가비들을 수집하려고 노상 나가살던 포구... 그러나 그때에는 편이여 들이닥친 해일에 엉망이 된 고기배들과 잔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버린 한적한 어촌이었어요.

아버지는 웃음과 행복의 파도가 일렁이던 지난 시절을 못 잊어 만신하고 돌아오는 정든 사람들을 마중하여 벽적 뚫은 포구생활을 랑만적으로 아름답게 형상했던것이였습니다.

난 아버지의 작품을 나무랬다는 신해만사람들과 선장아바이가 정말 미웠습니다. ... 소학교시절 여름방학에 아버지를 따라 신해만에 갯을적에 두툼한 입귀에 마라초를 물고 고기비늘내 풍기는 손으로 나를 덥석 안아쳐들던 선장아바이!

《어, 우리 꼬마미술가도 왔구나.》

그날 선장아바이의 그 룡말이 어쩔 그리도 내 마음에 꼭 들던지... 그 순간 나도 아버지처럼 공예가가 되어 한생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싶었어요. 그러자 낯설고 무섭던 검푸른 바다가 얼마나 정답고 마음에 흠뻑 들겠어요.

은조각, 금조각을 뿌려놓은듯 해빛에 반짝이는 잔잔한 바다, 눈을 시그럽히는 물면우로 쏜살

같이 날으는 흰새들, 푸른 물머리를 쳐들고 어리광치며 굼니며 기슭의 금모래알을 굴리는 파도의 장난질, 파아란 물속에서 요리조리 헤엄치는 잔고기떼들과 하얗고 까맣고 불그레한 조개들... 아, 저기 우윳빛안개가 떠도는 물개섬쪽에서 툭툭거리며 미끄러져오는 하얀 배는 동화책에서 보던 수정궁 꽃배가 아닐까?... 그날 난 물속에서 자맥질도 하고 아버지를 도와 조가비들을 고르기도 하고...

난생처음 맛본 그런 즐거움과 꿈을 주던 선장아버지가 어쩌서 아버지의 작품을 나무랐을까?...

그날부터 아버지의 입은 철문처럼 닫아버렸습니다.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창작사에 나가기도 하고 밤늦게 집에 오곤 하였습니다. 엄마는 알지 못할 불안을 예감하며 가슴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며칠 지나 우리 세식구가 한자리에 앉은 저녁, 아버지의 입이 열렸습니다.

《여보, 내 신행만에 아예 가기로 결심했소. 지금 그곳에서는 포구를 다시 꾸릴 건설대를 못하고있더구만.》

《예? 그건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 굳어졌습니다. 좀처럼 감정을 겉에 드러낼줄 모르는 아버지가 일단 마음만 먹으면 바위처럼 움직일수 없었으니까요.

《내 창작사 당조직에 제기했소.》

《호호... 참 당신두, 진아 할아버지의 뜻은 어떡하구...》

난 아버지가 그 말을 들으면 몹시 피로와할줄 알았는데 아무 내색도 하지 않더군요. 그제야 엄마는 아버지가 하루이틀에 결심한것이 아니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보, 가더라도 진아만은 이곳 삼촌집에 떨구어 중학교라도 착실히 마치게 하자요. 당신대신 진아라도 미술공부를 시켜야 하잖아요.》

엄마의 애원에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이었습니다. 묵묵히 날 바라보시는 눈빛은 부드럽고 따스한 애무가 어렸습니다. 그 아무리 무정한 아버지인들 어찌 외동딸의 장래를 생각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나서자란 정다운 도시... 소학교시절 선장아버지의 말에서 꿈을 간직한 이후부터 아버지의 뒤를 이으리라 맘먹고 매일같이 도학생소년회관 미술소조실로 다니던 나였습니다.

돌연 아버지의 투박한 말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리가 엘 여기 떨켜놓으면 그곳에 마음을 집착할수 없소. 진아도 그곳 잔물에 젖어야 장차 좋은 그림을 그릴수 있을거요.》...

얼마후 야전차는 길바닥에 깔린 얼음에 지치면서 뒤틀린 구름을 이룬 등마루길에 올라섰다. 그러자 여태 시창밖으로 흘러가던 자연풍경과는 다른 놀라운 전경이 신기루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차를 멈추게 하시고 내리시었다. 살을 어이는 칼바람이 그이의 솜옷자락을 날리었다. 그이께서는 추위도 잊으시고 신행수산물 가공공장이 자리잡은 만의 일경을 부감하시었다.

우중충한 산봉우리들이 위병처럼 둘러싼 안침진 바다가, 넓은 수역안을 거의다 차지한 공장구역과 건물들, 저녁역광을 받아 번쩍이는 시원스런 세멘트포장도로, 남향받이 산경사면에 기업소와 혈맥처럼 이어진 문화적인 다층살림집들과 편의봉사시설들, 그와 초간히 떨어진 곳에 석축을 하고 쇠그물을 쳐놓아 국제경기도 할수 있게 꾸린 잔디 깔린 운동장, 멀리 울창한 수림속에 들어앉은 직4각형의 반듯한 2층교사...

...부부장동지, 저희들은 첫째 여름을 이곳 초막에서 나고 겨울에는 가설건물에 입사하였습니다. 아버지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여기에 온 건설자들은 학교부터 지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던 날 아버지는 나한테 참으로 의미깊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진아야, 나는 네가 미술대학보다 먼저 여기에 뿌리를 내렸으면 한다. 우리 시대가 실지 무엇을 바라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할아버지의 뜻도 참답게 이룰수 있는거란다. ...

그래서 난 아버지와 함께 건설자가 되어 기업소구조물도 세우고 길도 닦고 집도 병원도 짓고... 난 생활의 향유자가 아니라 선군시대의 청춘답게 투쟁의 바다, 위훈의 열풍속에 뛰어들었습니다.

난 그때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공예보다 더 소중한 그 무엇이 간직되어있음을 어렵듯이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나 딱히 그것이 무엇인지?...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시 시선을 공장구내로 옮기시었다. 영생탑을 중심으로 다정하게 이웃하여 선각이한 형태와 규모의 산업건물들과 구조물들은 또 얼마나 이채로운가.

푸른 바다를 향해 금시 날을듯 퍼덕이는 나래를 형상한 하얀 지붕이 있는가 하면 특대형잠수함옷갓모양을 한 진밤색의 반원형지붕, 다층려객유람선모형의 웅건한 청사... 그것들은 죄다 무게있는 화강석재의 기초와 기둥에 받들려있었다. 이 모든것을 주의깊게 일별하시는 그이의 눈빛은 그윽한 빛을 뿌리며 밝아지시었다.

《멋있습니다. 건물들과 구조물들이 제나름대로

특색있고 품위를 갖춘 눈이 번쩍 뜨이는 만점짜리 들입니다. 큰 도시에 내놓아도 거리를 손색없이 장식할것 같습니다. 단조롭고 무의미한 산업건물의 낡은 형식을 깨고 선군시대의 산업건축미를 잘 살렸습니다. 걸불안이라고 건물들이 미적이고 문화적인 면모를 갖추어야 제품의 질적수준이 높아질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설계를 하였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만족한 기분으로 수원들속에서 태현이를 찾아 물으시였다. 지금껏 그이께 미치는 땀땀 바람을 조금이나마 막으려고 뒤전에서있던 태현은 앞에 나섰다.

《설계는 청진전문설계기관에서 하였지만 이 신해만의 전체적인 형성구도와 매 건물들의 도안은 홍수민동무가 하였습니다. 그는 산업미술에도 조예가 있었습니다.》

《일꾼들은 미적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일전에 경공업공장들을 돌아볼 때도 어느 한 기업소 지배인동무가 도안가였는데 그곳 건물들과 제품들이 참 멋쟁이였습니다. 홍수민동무도 산업미술 솜씨를 보여줬구만. 그 동문 여기다 착공의 첫 말뚝을 박을 때부터 있었다지.》

김정일동지께서는 홍수민이 형성도안을 하였다는 흐뭇한 기쁨을 맛보시며 나무랄데 없는 절경으로 변모된 해안을 점도록 바라보시였다. 진아의 편지속에서 상상하셨던 어제날의 흔적은 찾을수가 없으시였다. 그러나 그이의 뇌리에는 그 모든것이 선명하게 그려지시였다.

《지대를 수태 돌구었군. 지세로 보면 저 험한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지하수와 바다물이 부딪치는 곳이여서 수령판이었겠소.》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세멘트와 설비, 건설로력들이 없었더라면 여길 포기했을거라고 하였습니다.》

태현은 그이의 현명하신 판단에 기업소연혁을 료해할 때 알게 된 사실을 상기하였다.

《웁소. 생각나오.》

김정일동지께서는 문득 지난 일들이 떠오르시였다.

《그때 제기된 문건에는 이곳이 수산자원이 풍부한 명당 해구이지만 지대가 낮아 해일피해를 막지 못한다고 했소. 그래서 이미 있던 어촌마을도 피해를 입은건 사실이였고. 때문에 엄청나게 많아질수 있는 건설투자액을 고려하여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하는 의향이였소. 그런데 일부 건설자들속에서는 이곳은 전후 우리 수령님께서 진펄에 빠진 승용차를 몸소 미시며 인민들의 생활을 돌보시던 력사의 고장과 이어져있기때문에 그냥 여기에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것이였소.

나는 수령님의 평도의 업적을 꽃피워가려는 그 마음들이 고맙고 또 여기가 수산기지로서는 적합

한 자리여서 나라가 푼전을 쪼개쓰던 어려운 시기였지만 큰 마음을 먹고 세멘트와 강재, 건설로력을 푹 떼어 보내주었습니다.》

《장군님, 그때 이곳 부지를 끝까지 주장한 사람들속에는 홍수민동무도 있습니다.》

태현은 그이께서 너무도 자상히 기억하시는데 감동을 금치 못하여 건설이 시작되던 초기에 있는 사실까지 말씀올리였다.

…런 사흘째나 채찍처럼 후려치는 작달비에 죽탕이 될대로 된 작업장으로는 길길이 날뛰는 파도가 가설잔교를 들부시며 쓸어들었다. 벽체우에 씌운 방수박막이 날아가고 빨대목들과 발판들이 무너져내렸다. 폭풍치는 캄캄한 밤이였다.

땡땡땡… 다급한 종소리가 광란하는 파도와 비소리를 찢으며 어둠속에서 울렸다. 작업장에 돌발사고가 생길 때에만 울리게 된 정보였다.

《벽체가 무너졌소!》

건설지휘부와 건설자들의 숙소문들이 벌컥벌컥 열리고 전지불을 앞세운 사람들이 작업장으로 달려왔다.

《이쪽에 불을 비쳐라, 불을 비쳐!… 넌장, 잠꼬대같은 소리, 벽체가 무너지기는 뭐가 무너져!》

《그럼, 한길나마 쌓은 그 벽이 어디로 갔단 말인가. 파도가 냉큼 했을가?》

《끌궂혔어. 수령판이 기초고 벽체고 다 잡썰버렸어.》

《뭘, 벽체가 수령속에 침하됐다구?!》

《허, 그놈 수령 전달에는 양수기를 삼키더니 무던히 배가 고팠던게야.》

《하긴 그래, 하하…》

누군가 너털웃음을 터친다. 자연의 횡포에 어쩔수 없다는 맥빠진 웃음같으나 이 수령판에 뭘 짓겠다고 하는 그자체를 시까스르는 비웃음이다.

그날 밤 늦도록 건설지휘부에서는 비상회의가 열렸다. 결정적인 해결책을 찾아 열띤 주장들이 오고갔다. 방도는 명백하다! 이 수령판을 대담하게 말짱 다 파제끼고 산을 허물어 바위와 혼석을 처넣어 성토하자. 그다음… 지금처럼 모래다짐우에 떠보기초가 아니라 평판콩크리트기초를 하자. 여기 전체 면적에… 원, 천만에! 그 엄청난 세멘트와 철근, 로력을 어떻게 감당해. 이따위 물렁탕에 뭘 짓는건 밑빠진 항아리에 물붓기야. 이젠 사람도 설비도 지쳤어. 다른 곳을 찾아 옮겨야 해, 다른 곳을!… 회의는 종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상급기관에 상정시켜 우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기로 하였다.

밤이 깊었지만 모두들 잠들지 못하고있는데 느닷없이 구내확성기에서 애된 녀자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 노래는 소란스러운 비바람과 파도소리

에 꿇을락이올락하며 작업장과 숙소건물, 밤을 흔들며 울려 퍼졌다.

바람에 나무잎이 날려도 그리워지고
저 하늘 흰구름을 보아도 더욱 그림네

처음에 떠는듯마는듯 흐르던 음조는 점차 유순해지더니 어떻게나 절절한 감정을 타고 진실하고 애끓는 그리움에 젖어 울리는지 숙소문들이 하나둘 열리면서 사람들이 내다보기 시작하였다.

희미한 야외등이 비치는 약간 둔덕진 곳 현장 방송실앞에는 진아가 한손에 우산을, 다른 손에는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우산아래에는 누런 얼굴에 턱수염이 더부룩한 홍수민이 손뽕금을 안고 노래감정에 잠겨 때론 눈을 반쯤 감기도 하고 때로는 웃몸을 뒤로 제치면서 바람통을 한껏 열기도 하며 반주를 하였다. 깊은 명상에 잠긴 그 열정적인 모습은 나무잎 지고 흰구름끼인 보통날보다도 파도치고 비바람 울부짖는 이 음산한 밤 우리 장군님께서 걷고계실 전선길에 마음들을 따라세우게 하고 천가지만가지 고생을 헤쳐가시는 그 불굴의 헌신과 로고를 눈앞에 펼쳐주어 가슴들을 저미게 하였다.

구름아 나를 실어가주렴
아버지장군님품으로
달려가 안기고픈 이 마음
그리움에 불타네
오늘도 안녕을 바라며
...

노래는 흐느낌으로 떨다 끊어지고말았다. 손뽕금을 반주하던 홍수민이도 더는 잊지 못하고 머리를 떨구었다. 조금 지나서야 얼굴을 쳐들었는데 그의 꺼진 눈확에는 물기같은것이 번뜩이었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나직이 입을 열었다.

《우리 이 해구를 버려서는 안됩니다. 이 수령도 우리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내 조국의 땅이고 수령님의 거룩한 자욱과 이어진 곳이어서 우리 인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돼야 합니다. 이 한치한치의 땅을 지키려고 이밤도 우리 장군님께서 전선길을 걷고계실지... 어찌... 알겠습니까. ...》

목매에 떠듬거리는 홍수민의 그 소박하고 진정에 넘친 마음은 세찬 파도마냥 사람들의 가슴을 쳤다. 소연한 비소리와 파도는 그냥 날뛰었던 만 그 순간 건설자들은 아무것도 가려듣지 못했다. 송엄한 정적만 흐를뿐...

김정일동지께서는 태현의 이야기에 가슴이 그득해지시여 온몸에 스며드는 대기가 청신하고 훈훈

해지는것 같으시었다. 이 머나먼 복변기슭에 자신과 혈연으로 정을 잇고 사는 인간들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덥혔다.

《진아가 여기서 계가공원을 한다고 했지?》

《예, 하루일이 끝나면 처녀들을 휘동해가지고는 회관에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었습니다. 아버지장군님을 기업소에 모시게 되면 보여드리겠다고 극성이였습니다. 아닌게아니라 그들이 계를 가공하는 손동작은 얼마나 날래고 빠르지 로동이 그대로 춤가락 같기도 하였...》

태현은 얼핏 장군님의 안팡에 놀라와하시는 빛이 어리는것 같아 말끝을 여물구지 못하였다.

그이께서는 한시바삐 그들이 보고싶으시여 다시 차에 오르시었다.

4

야전차가 기업소정문을 가까이하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들판의 체구의 50대의 장년이 부자연스러운 몸가짐으로 서성거리고있는 모습을 띄여보시었다. 순박하면서도 어글어글한 눈은 긴장에 굳어졌고 꼭 다물린 입과 몸에서는 억제할수 없는 격정이 차넘치는것 같았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초면부지의 그가 무척 낮익은 구면같아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차에서 내리시었다. 홍수민이 웃몸을 앞으로 약간 내밀고 다가오고있지만 입은 열어불고 순진한 눈만 자꾸 슴벅이였다. 그 표정은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꿈인지 생시인지 아직 분별 못한 그런 기색이였다. 이윽고 열어불었던 홍수민의 입에서 더운 입김이 뿜어나왔다.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꿈을 꾸는것 같습니다. 잊저녀 텔레비죤화면에서 김일성종합대학 수영관을 현지지도하시는 장군님을 뵈웠는데... 이렇게 오실줄은... 정말...》

《동무들이 보고싶어 밤도와 달려왔습니다, 허허...》

김정일동지께서는 한밤을 열차에서 꼬박 새우시고 또 야전차로 달려오신 장장 수천리길의 로고를 헌헌한 웃음으로 날리시며 홍수민의 긴장을 녹쫓혀주시었다. 홍수민은 가쁜 숨결을 가까스로 누르고 그이의 빛나는 존안을 우러러 감격을 터치였다.

《정말 뵈고싶었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장수를 념원한 저의 부친의 마음까지 합치면...》

《자, 우리 걸으면서 이야기나 좀 나누지요.》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민의 팔을 끼시고 먼저 구내를 향해 걸음을 떼시었다. 태현은 장군님께서 잠시 언몰이라도 녹이시였으면 싶어 수민이한테

귀찮아 하려 했으나 그이께서는 벌써 구내공원을 지나 부두쪽으로 가고계시었다.

한겨울에도 싱싱한 푸른 잔디가 한벌 깔린 공원에는 전나무와 선향나무, 잣나무, 정향나무들, 붓나무들로 답답한 수림을 이루어 구내에 상쾌한 향취를 풍기고 가지마다 성글게 떠인 눈들은 진홍빛 노을이 부서지여 령롱한 광채로 반짝이였다.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고기배들이 정박한 부두가 길게 뻗어있었다. 불그레한 파도가 흥떡흥떡 부두벽을 회롱하며 가끔 바람에 포말을 날리었다.

《장군님, 부두쪽으로 더 나가시지 마십시오. 파도가 날릴수 있습니다.》

《팬찮소. 예까지 왔다가 바다를 보지 않다니.》

김정일동지께서는 앞을 막아서는 홍수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시고는 그냥 걸음을 짚으시었다.

태현은 그때에야 그이께서 굳이 부두로 나가시려는 뜻이 가슴을 찼다. 부두에는 홍수민이 이런 날을 위해 깔아놓은 옥돌바닥이 있었다. 전사의 남모르는 정성을 헤아려주고싶어하시는 그이의 다심한 사랑에 눈굽이 젖어들었다.

마침내 그이께서는 옥같은 충정이 알른거리는 바닥에 서시여 허리에 두손을 얹으시고 주위를 둘러보시었다.

물을 깊숙이 파고들어온 해구의 량열 대안에는 정수리에 다박술을 떠인 기암괴석들이 서로 키를 다투어 솟아있고 그우에서는 한무리의 갈매기들이 춤추듯 너울너울 날아왔다. 하얀 조가비들이 꺾비치는 수면으로는 파도가 드세차게 달려왔다가는 부두벽에 부딪쳐 천만구슬로 부서진다. 그이의 앞에서 두손을 모아잡고 서있는 홍수민은 파도의 비말이 뿌려질가봐 안절부절하면서도 눈빛은 그지 없는 행복에 젖어있었다.

이때 장군님의 시선은 바다기슭에 덩지크게 들어앉은 건물에 미치셨는데 그곳이 바로 문건에서 사진으로 보셨던 축양장이였다. 곡선미로 조형한 외벽기둥들마다 부각시킨 바다와 인간생활, 정보산업시대를 형상한 품위있는 장식들은 부채살처럼 퍼지는 저녁노을과 황금쫄갯빛을 뿜는 바다의 반사광으로 유난스레 번쩍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홍수민의 안내를 받으며 먼저 그 축양장에 들리시었다. 수산물을 산채로 가공하는 축양장해수탱크들마다에는 빼없이 너울거리는 문어와 털게, 성게, 해삼들이 옥실거리고 다른 칸들에는 여러 종류의 조개들이 물속에서 입을 딱딱 벌리기도 하며 은빛금빛을 뿌리었다. 밥조개, 참굴, 대합, 동조개, 섭조개, 피조개...

홍수민은 지금 이것들이 깨끗한 바다물에 잠겨 내장에 차있는 모래와 감탕, 부유물들을 토사하는중이며 2~3일간의 그 과정을 끝내면 그대로

먹을수 있는 제품으로 된다고 설명하여드리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머리를 끄덕이시더니 손수 물속에 손을 잠그시여 조개 하나를 집어드시었다.

《조개해물탕은 사람들의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술을 즐기는 사람들의 간이 조개만 보면 웃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장군님께서 유모아로 하시는 말씀에 장내에는 가벼운 웃음이 일었다. 그때 옆의 해수탱크 털게 무리속으로 문어가 너울거리며 미끄러져갔다. 엄지인듯 한 털게가 집게손을 짹 벌리고 방어태세를 취하고있었다.

《허, 그놈들이 가관이군. 동무들은 이런 축양장을 앞으로 더 많이 지어 산 물고기들을 대대적으로 길러야 하겠습니까. 우리 인민들이 아무때나 제 구미에 맞게 산 물고기들을 조리에 건져 회도 쳐먹고 끓여도 먹게 하자는것이 나의 뜻이기도 합니다.》

김정일동지의 안팎에는 해빛같은 미소가 떠오르시었다. 멸균소독기를 통하여 뿜어올리는 수정같은 맑은 물과 바다의 생태조건과 똑같은 축양장의 최신식시설들을 눈여겨보시던 그이께서는 무량한 감개가 온몸에 차넘치시었다.

어델 보나 환희의 광채가 사방으로 빛발치는 것 같았으며 그 빛이 흘러나오는 곳에서는 아름다운 선물도 흘러나오는듯싶었다. 돌연 이 머나먼 변방을 실용이 높은 수산물가공생산기지로 전면시켜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게 해놓은 홍수민이네들을 무한히 격려하고 고무하고싶은 감정이 끓어오르시었다.

《얼마나 좋소. 해안풍치도 좋아지고 나라의 재부도 쌓게 되고... 갈숲과 수령판이나 다름없던 곳에 동무넌 인민생활에 한몫 단단히 할 수산물가공기지를 꾸려가고있소. 동무들이 일떠세운 이 정교하고 조화로운 물고기가공건물들과 구조물들에는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고있는 우리 인민의 리상과 념원이 반영되어있소. 예로부터 건축은 공간속에 굳어진 회화이고 웅고된 음악이라고 하였소. 그렇소. 이 한채한채에는 세기적인 창조와 변혁을 이룩해가는 선군시대 우리 인민의 주도적인 정서와 지향이 있고 소박하고도 아름다운 선물이 흐르고있소.》

그이의 열정적인 음성은 확신에 넘쳐있었고 그 예지로운 말씀은 천근의 무게로 태현이와 수원들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알고보니 동무도 여길 끝까지 고수했더구만.》

벽간 감격이 물결치는 얼굴을 숙이고 세찬 숨결을 몰아쉬고있던 수민은 그이의 자애깊으신 눈길이 자기를 쓰다듬고있는것을 느끼자 몸둘바를 몰라 허둥거렸다.

《장군님, 사실 장군님의 세심한 손길이 아니었다면 이 고장이 이렇게 변모되리라고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었습니까. 장군님께서 여기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함께 최신형물고기가공설비와 고기배, 수백정보의 바다양식장까지 다 갖추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까울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묻고싶은게 있습니다. 난 동무가 안착된 도시생활과 꿈을 버리고 이 낯선 고장에 뿌리내렸다는걸 알고 생각이 깊었습니까. 무슨 사연이 있는것이 아닙니까?》

홍수민의 얼굴이 갑자기 벌개지며 눈길을 어디다 돌지 몰라했다. 이런 그를 여겨보시며 장군님께서 한말씀 더 이으시였다.

《자개박이공예를 하게 된것도 아버지의 뜻이었다고 하던데… 그리고 동문 실지 국가미술작품전시회에 작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홍수민은 모든 사실을 죄다 알고계시는 장군님앞에서 당황하여 어찌할바를 몰라 주저주저하다 지금까지 안해나 딸자식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마음의 철문을 열기로 하였다.

《장군님, 사실은 몇해전에 입선되였던 그 작품이 저를 이 길에 나서게 한… 계기로… 되었습니다.》

말끝을 더듬거리는 홍수민의 뇌리에는 별안간 이 고장의 늙은이, 선장아바이의 질책이 되살아오르며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

…참, 우리 신해만이 이렇게 멋있는가. 이 풍경이 평양에 올라갔다고? 그럼 우리 장군님께서 보실수도 있겠구만. 이 사람, 고난의 행군때 장군님께서 여기로 오신적이 있네. 그때 여기 꼴이 말이 아니였지, 지금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해에 무섭게 들이닥친 해일에 고기배 한척 번번히 성해있었잖나, 부두나 잔교가 살아있었잖나. 다 엉망이 됐지.

그이께서는 그날 저 마주 바라보이는 도래굽이 백사장에서 해지는줄도 모르시고 오래도록 거니시였네. 그대… 그이께서 이 풍경을 보시고 우리 신해만포구가 실지 이런가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할텐가? 후유— 우리의 마음이 이다지도 아플진대 그이의 마음이야 오죽하실가. …

홍수민은 말라든 입술을 감빨고는 긴 호흡을 내쉬며 계속 이어갔다.

《…그날 선장아바이는 가슴을 두드리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나는 눈물어린 그 질책과 물음에서 우리 인민은 현실에 없는 풍정보다 실지 그런 현실을 장군님께 보여드리고싶어하는 심정을 보았습니다. 실로 충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난 마음속으로 그것은 나와는 별다른 문제라고 우겼습니다.

난 예술가이지 건설자는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바이의 그 절절한 심정은 저의 가슴에 쇠덩이처럼 걸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은 아버지수령님의 건강과 기쁨을 바라셨던 저의 아버지의 소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무렵에 전 장군님께서 이곳을 돌아보시고 가시던 그날 밤 설한령에서 파자를 들고 쪽잠까지 드셨다는 일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파자를 들고 쪽잠이라니?!》

장군님께서는 뜻밖의 말에 고개를 기웃하시며 자못 의아한 안색을 지으시였다.

《있었습니다!》

림태현이 정중히 수궁해나서며 그날을 회억하여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전선에서 전선으로, 서에서 동으로, 남에서 북으로 종횡무진 뽀찌산식 강행군을 이어가시던 어느해 마가울, 이곳을 돌아보시고 가시다가 설한령에 야전차를 세우고 잠시 쉼이신 로독을 푸시였다.

수원들은 자그마한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이를 웅위하여 둘러앉았다. 그때 그이께서는 먼저 침묵을 깨치시였다.

《배가 출출하구만.》

아침에 한공기의 죽으로 끼니를 에우시고 점심을 건느신 그이이시였다. 현지지도의 길이 예상외로 길어지여 준비했던 췌기밥이 떨어졌던것이다.

태현이 얼른 일어나 차안에서 비상용으로 건사했던 파자 한봉지를 들고왔다.

《장군님, 이것밖에…》

《그게 어째서?... 우리 수령님께서 항일의 날 고난의 행군을 하실 때 한흙의 미시가투라는 눈물겨운 일화를 남기시지 않았습니까. 그에 비하면 이 파자는 성찬이지. 자, 하나씩 들지요.》

그이께서는 손수 수원들한테 파자를 쥐여주시고는 자신께서도 하나를 집어드시였다. 태현이네들은 그이께 끼니를 드리지 못한 죄책감에 핑 고여오르는 눈물들을 감추며 얼른 일어났다. 일어난김에 불무지에 집어넣을 삭정이를 주으려고 훌어져갔다.

잠시후 그들이 삭정이와 검불들을 안고 다시 불무지앞에 왔을 때였다. 아, 경애하는 그이께서 파자를 한손에 드신채 머리를 한옆으로 기울이시고 잠들어 계시지 않는가! 태현이들은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짓씹으며 저마끔 마음속으로 오열을 더쳤다. …

《그 나날 장군님의 고생이야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수령님 생전에 부친의 유언을 지키지 못했는데… 신해만의 아름다운 풍경을 현실로 꽃피우는데 적은 힘이나마 보탬하리라고 말입니다. 그 길이 장군님의 어깨우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길이요 아버지수령님의

장수를 바라던 아버지의 뜻을 참답게 잇는 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음.》

김정일 동지께서는 가슴을 치는 세찬 충격에 숨결을 툭아올리시었다. 지금껏 가슴깊이 묻어둔 사연을 다 드러내놓은 이 솔직하고 량심적인 인간을 뜨겁게 바라보시었다. 홍수민은 지나치게 말을 길게 한것 같아 송구하고 점직한 빛을 숨기지 못하고있었다.

그이께서는 불수록 고지식하고 미더운 그를 품에 한껏 안아주고싶으시었다. 그러면서도 홍수민의 딸애한테도 이 모든 사실을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었다.

《진아가 어데 있습니까?》

장군님께서서는 저옥 흥분한 어조로 물으시었다. 홍수민은 사뭇 놀라운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진아를 아실까 하는 의혹에 서었다.

《그 앤 종합가공장에 있습니다.》

《마침 잘됐습니다. 거기 가서 물고기가공작업공정도 보고 진아도 만나봅시다. 수민동무, 내 진아가 부부장한테 보내온 편지를 보고 동무네 가정래력을 좀 알게 됐소.》

5

2층으로 된 물고기종합가공장은 밖에서 볼 때보다 더 넓고 화려하였다. 실내운동장처럼 한끝이 아스랑게 보이는 가공장은 자외선을 막는 밤색의 형광수지판지붕을 뚫고 비치는 자연빛과 장내조명이 어우러져 마치도 시력에 좋은 색안경으로 보는 듯 은은하면서도 시원스러웠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역시 건물의 내부가 외부와 다를바없이 희한하게 꾸려진것이 기쁘시었다.

마침 물고기가공작업이 한창이였다.

생낙지흐름이 콘베아를 타고 유리집속의 탈피기를 통과하더니 셋말갈게 껍질이 벗겨져 절단기에서 실오리처럼 썰어져나왔다. 그것이 다시 멸균소독기와 건조기, 초급동기를 거쳐 상표가 찍힌 진공포장제품이 되어 쏟아져내렸다. 다른 물고기가공작업도 어종의 특성에 맞게 고도로 정밀하고 위생문화적일뿐만아니라 모든 생산공정이 CNC화되어있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흠뻑 기쁘시여 환하게 웃으시었다. 웃으시는 가위에 자동흐름선너머 한쪽편에서 무슨 작업인가 하는 처녀들이 눈에 밝히셨다.

《저기서는 뭘 합니까?》

《게가공을 하고있습니다.》

그이께서는 거기에 진아가 있으리라고 짐작하시

며 그쪽으로 향하시었다.

거기서는 처녀들이 널직한 작업탁위에 게들을 올려놓고 탈각작업을 하고있었다. 한결같이 연폴색작업복에 하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여 누가 누구인지 분간할수 없었지만 처녀들은 꿈결에도 그리던 장군님께 자기들의 일솜씨를 보여드리게 된것이 너무도 뜻밖이고 감격스러워 다들 세찬 흥분에 휩싸여있었다.

그들의 작업솜씨는 얼마나 짹싸고 날렵한지...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게딱지를 따고 다리를 자르고 장과 자부름을 긁어내고 몸살을 툰 다음 멸균청수에 씻어내는 그 모든 동작들은 림태현의 말처럼 꼭 자동기계같았다.

처녀들은 성수났어도 **김정일** 동지의 눈가엔 한가닥 그늘이 스쳐지나갔다. 어떻게 모든 공정이 CNC화된 환경에 이런 일이 있을수 있단 말인가. 여태 가슴에 일던 기쁨의 파도가 잦아드시었다. 진아의 편지구절에서 게가공작업을 형상한 춤이라는 대목을 읽을 때도 그래 좁전에 림태현의 말을 들으면서도 감촉이 이상했는데 바로 예감하셨던 대로였다.

그때 가공탁앞에서 손재주를 부리듯 게가공을 재빨리 해제끼던 처녀가 마스크를 벗더니 앞으로 다가오시는 그이께 인사를 올리였다.

《아버지장군님!》

그이께서는 예쁘장한 얼굴에 맑은 살갗, 호릿한 처녀의 순진한 눈매가 어쩌면 홍수민이와 신통한지 불시에 정이 끓어올라 환히 웃으시었다.

《오냐, 네가 진아로구나.》

《정말 뵈고싶었습니다.》

그이께서는 문득 꿈속에서도 그리며 손꼽아기다렸을 진아의 마음이 헤아려져 친딸자식을 만나신듯 다정히 손잡아주시다 장갑을 벗은 그의 한손을 찬찬히 살펴보시었다. 찬 물기가 땀 진아의 날씬한 손은 발그무레한 색조로 물들어있었다. 진아는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량볼이 빨간 단풍처럼 타 오르더니 슬그머니 그 손을 뒤로 가져갔다.

《너희들이 나한테 보여주려는 춤이 이 게가공을 형상한 춤이라지?》

《아이, 어떻게 그걸 다... 아직 완성 못했습니다. 이렇게 추운 계절에 오실줄은 몰랐습니다.》

《너희들은 나한테 기쁨을 주려고 그런 무용을 준비한것 같은데... 예술작품이란 말이다, 전형적인 현실속에서 생활의 진실을 반영할 때만이 그 감화력이 크지 않겠니. 그래 너희들의 그 춤이 진실로 생활의 기쁨이고 희열일가?》

《아버지장군님, 눈에 익고 손에 익은 우리의 로동은 그대로 룰동이고 춤가락입니다.》

《허허...》

그이께서는 웃으시었다. 그 웃음은 심중에 서리는 아쉬움과 일종의 아픔이기도 하시었다. 홍수민은 그때에야 장군님의 심중을 어렵듯이 느끼며 몸가짐을 바로잡고 말쑥을 올리였다.

《장군님, 계란 족속은 워낙 생김새와 구조가 복잡하여 기계가공이 어려운것으로 여기고있습니다.》

《어렵다?》

그이께서는 짧게 받아뇌이신 후 더 말쑥이 없으시었다. 홍수민이한테 얼핏 눈길을 던지신 그의 시선이 무심결에 태현의 눈길과 마주치시었다.

태현은 죄책으로 몸이 얼어들었다. 그도 이곳을 참관하였거나 지도나 료해사업차로 와보았을 수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무심히 스쳐버렸던것이였다. 료해사업때 이들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도...

김정일동지께서는 천천히 도리머리를 하시었다.

《우리가 강성국가를 건설하는 목적은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 물질문화적인 생활을 최상의 높이에 끌어올리자는데 있습니다. 인민생활을 남부럽지 않게 유족하게 한다는 의미는 단지 먹고 쓰고 사는데만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들이 온갖 어려운 로동에서 해방되어 지식경제시대에 맞게 문명한 생활을 향유하는것입니다. 인민생활에 필요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 진아네들의 고운 손을 망가뜨리면서 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뜨거운 선풍마냥 그의 말쑥은 공기속에, 가슴들에 징 울리며 사람들의 사색을 인간에 대한 사랑의 숭엄한 높이로 이끌어갔다.

홍수민은 깊은 회오에 몸이 죄어들었다. 진아가 뒤에 감추었던 제 손을 얼굴가까이에 펼치고 넋없이 바라보기만 하였다. 돌연 그의 입술사이로는 《이 손이 뭐라고... 이 손이 다 뭐라고...》하는 울먹이는 소리가 흘러나오더니 눈물이 끓는 얼굴을 두손으로 싸안고 주저앉아 흐느끼었다.

《장군님, 제가 그만... 다른 나라에서도 제가공을 손으로 하여 어쩔수 없는것으로 생각하였습시다.》

홍수민이 더는 참지 못하고 진땀이 흐르는 얼굴을 아래로 숙였다. 그이께서는 피로움과 안타까움, 미더움이 한가득 고이신 애뜻한 시선을 그한테서 떼지 못하시었다.

《수민동무, 우리 선군시대가 창조해가는 강성국가모습에는 티끌만 한 흠이 있어도 안됩니다. 로동이 그대로 예술이고 선물이 되자면 일터에 사랑이 흘러야 합니다. 우리 일꾼들이 진실로 인간을 사랑한다면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저으기 열기를 떠신 장군님의 안광에는 사랑과

온정의 빛같이 가득차시었다. 홍수민의 거뭇한 눈언저리가 불그레해지고 입술이 눈에 뜨이게 떨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부르짖고있었다.

(장군님... 제 인제야 장군님의 어깨우의 짐을 던다는것이... 장군님의 건강과 안녕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

홍수민의 얼굴에선 굵은 눈물방울이 한점 떨어져내렸다. 그 눈물은 어버이장군님의 한없는 사랑의 세계를 몸으로, 폐부로 체험하게 되는 감격과 그에 따라세우지 못한 자책의 눈물이기도 하였다.

홍수민의 마음속을 환히 들여다보고계시던 장군님께서도 눈굽이 더워지면서 온몸이 찌릿해지시었다.

강성국가에로 향한 진군대오에 진실로 자기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스스로 찾고 한점 사심도 없이 용약 뛰여든 사람, 자신의 어깨우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안착된 도시생활도 마다하고 이 북변의 바람세찬 해안가에서 열정을 다 바쳐가는 사람! 더없이 미더우시었다. 더 큰 힘도 주고 그의 소원도 다 풀어주고싶으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머리를 숙이고 자책의 눈물에 젖어있는 그의 어깨를 짊 잡으시었다.

《고맙소, 수민동무! 동무넌 그사이 많은 일을 했소. 지난날 이 고장 인민들에게 좋은 생활을 주시려고 진땀에 빠진 차를 몸소 밀면서 오시였던 우리 수령님께서 지금 여기 와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소. 인민들이 덕을 볼수 있는 기지가 꾸려졌다고 말ियो. 그렇소, 동문 여기다 수령님의 기쁨과 영생을 넘원한 아버지의 뜻대로 명실공히 아름다운 꽃병을 빚고있소. 동무네가 피와 땀으로 꾸린 풍치수려한 해안과 수산물가공기지, 아담한 마을들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우리 시대의 명화폭이요. 동문 아버지의 뜻을 훌륭히 이어가고있소. 동문 우리 선군시대가 낳은 훌륭한 인민의 예술가요! 나는 오늘 정말 기쁘오.》

《장군님!...》

별안간 홍수민이 건잡을수도, 누를수도 없는 숨소리를 헉 지르며 흐느낌을 터치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선친의 소망을 두고 끝없는 번뇌속에서 시달리던 가슴이 활 열리면서 내뿜는 환희의 웨침이였다. 진아도 목메인 소리로 아버지를 부르며 홍수민의 품에 몸을 던졌다. 수민은 갑자기 들이닥친 아름다운 영광에 눈앞이 핑돌아 비칠하였다. 태현이 얼른 그를 부축하였다. 홀연 태현의 가슴에서도 여태 홍수민의 진정을 알지 못한 가책과 함께 용암같은것이 불끈 솟구치었다. 우리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장군님의 안녕을 바라는 절절한 마음이 이런 경이적인 화폭을, 선군시대의 절경을 펼치는것

주체문학의 대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으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에서 인간은 복잡한 갈래를 이루는 생활의 다양한 흐름을 주동적으로 이끌어나가는 화폭의 중심위치에 확고히 서있어야 한다. 생활을 창조하는것도 인간이며 생활을 향유하는것도 인간이다. 사회현상은 다 인간에 의하여 발생하고 인간의 주동적인 역할에 의하여 변화 발전한다. 현실을 주체의 관점에서 보고 그리는 문학에서는 화폭의 중심에 인간을 내세우고 뚜렷이 부각하여야 한다.》

《문학에서 인간을 그린다것은 그의 성격을 그린다것이다. 문학에서 인간을 화폭의 중심에 세운다는것은 결국 그의 성격을 위주로 하여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말한다. 문학은 사건이 아니라 성격을 위주로 하여 형상을 창조하여야 한다.》

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것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버지의 품에 안긴 진아의 맑은 눈동자에서 무지개와 같은 행복의 빛이 뿜어나오는것을 정겹게 지켜보시였다.

진아는 그 옛날 어버이수령님의 만수무강을 바랐던 할아버지처럼 자기자신도 장군님의 안녕을 위해 아버지와 함께 신해만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가고있는줄을 비로소 알게 되었던것이다.

홍수민이 마음을 가다듬고 장군님앞에 한발 나섰다.

《장군님, 저희들은 기어이 계가공을 기계로 하겠습시다.》

《그래야지. 동무들이 이렇게 품들여 가꾼 훌륭하고 아름다운 화폭에 한점의 티라도 남겨서는 안되지. 하지만 그것이 동무들의 힘에는 부칠수 있습니다. 나도 돕겠소.》

김정일동지께서는 아까부터 구조가 복잡하고 각이한 크기를 가진 계를 가공할수 있는 지능로보트 기계손을 생각하고계시였다. 그것은 특수생물요소들을 수감하고 반사할 능력을 갖춘 고도기술이였다. 그와 같은 과학기술개발은 지금 기계공업분야의 CNC화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할수 있었다. 그들을 한시각이라도 빨리 만나보고 과업을 주어야 하였다. 그리고 래일 아침 예견했던대로 제철소에 닿으려면 이 밤중으로...

그이께서는 잠시도 지체할수 없는 촉박함과 온몸에 박차를 가하는 강렬한 충동에 떠밀리시여 밖에 나오시였다. 밖은 어느결에 어둠이 나래를 펴고있었다. 수평선을 물들이던 락조의 화려한 잔광은 사라지였다. 바람은 여전히 파도를 치절썩이였으나 찬 대기속에는 신성한 기운이 떠돌았다.

《자, 이젠 헤어집시다.》

《아버지장군님, 몸을 조금 녹이고 가시면 안됩

니까. 수천리길을 오시였다가 잠시도 쉬지 않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진아가 눈물이 고이는 애절한 눈빛을 쳐들고 간청하였다. 홍수민이도 같은 심정이여서 타는듯한 표정으로 그이를 우려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름할수없이 친근하고 따뜻한 정이 샘처럼 끓어오르시여 진아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려주시였다.

《그래, 잠시도 지체할수 없구나. 내 건강은 말이다, 나라의 곳곳마다 이런 선경이 펼쳐지고 너희들이 고운 손으로 춤을 추게 되면 문제없단다, 하하...》

그이의 힘있고 호탕한 웃음소리가 사위를 찰랑 들었다놓으시였다. 순간 그이께서는 이들을 위한 일감이 생긴 기쁨과 희열에 무한히 용솟는 왕성한 정력과 이밤 또 달려야 하는 질주의 쾌감을 느끼시며 서둘러 야전차에 오르시였다.

홍수민이들이 뜨거운 눈물속에 따라서며 그이를 바래드리였다.

태현은 크나큰 걱정과 복받쳐 온몸의 피가 일시에 끓어올랐다. 온 나라를 돌보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한 전사의 마음속 사연을 알고싶으시여 수천리의 강추위속을 뚫고오시여서는 그를 선군시대의 아름다운 화폭을 창조한 삶으로 빛내주시고 또 그들의 행복을 위해 강행군길을 다그치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그 불면불휴의 자욱자욱속에서 조국의 방방곡곡 그 어디에나 사랑의 선경들이 솟아오르고 이제 이 머나먼 북변의 한끝에도 한점의 티도 없는 풍경이 꽃피나려니 우리 조국의 래일은 또 얼마나 아름다울것인가.

누구나 하루일이 끝나면 피곤을 푸는 아래목이 있건만 순간의 휴식도 없이 한해가 저물어가는 어둠속으로 폭발적인 속도로 질주하시는 그이의 야전차뒤로는 눈보라가 구름처럼 일고있었다.

가을날에 피어난 진달래에 대한 류다른 서정

— 불후의 고전적명작 《진달래》를 두고 —

주 옥

연분홍빛의 포근한 자태를 드러내며 우리 가슴에 류다른 서정을 안겨주는 열정의 진달래!

찬 눈서리속에서도 끊임없이 봄물을 올리며 남먼저 피여 봄을 알리는 열정의 그 모습은 소박하나 순간에 온넛을 사로잡는 매혹이 있다.

진달래, 이는 무엇으로 아름답던가!

어찌하여 소박하고 부드러운 그 모습에 그 무엇으로써도 대신할수 없는 성스럽고 아름답고 고귀한 녀이 뛴는것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어머님께서는 진달래를 제일 사랑하시였다고, 그래서 우리 인민들은 어머님이 그리울 때면 진달래를 먼저 생각하곤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진달래꽃에 대한 추억이 열렬하고 아름답듯이 불후의 고전적명작 《진달래》에 대한 추억 역시 뜨겁고 강렬하다.

주체51(1962)년 9월 14일, 그날은 바로 추석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진달래는 우리 어머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던 꽃이라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조국진군의 길에 오르신 어머님께서 5호물동을 건너 조국땅에 첫걸음을 옮기셨을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며 제일먼저 품에 안은것이 붉게 핀 진달래였다고,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머님께서 드리는 진달래꽃을 받으시고 조선의 진달래는 불수록 아름답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는데 어머님께서는 그 일을 두고두고 잊지 못하시면서 정원에 늘 진달래를 곱게 피우시였다고 추억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래서 어머님분묘앞에 진달래를 옮겨심었는데 다음해에 가보니 꽃이 아주 곱게 피였다고, 그날부터 자신의 가슴속에는 그리운 어머님의 모습과 함께 소박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진달래가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소중히 간직되게 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며 자신께서는 얼마전에 늘 가슴깊이 간직하고있는 진달래에 대한 뜨거운 감정을 노래에 담아보았다고 하시며 불후의 고전적명작 《진달래》

를 조용히 읊으시였다.

해빛이 따스해 그리도 곱나
봄소식을 전하며 피는 진달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꽃송이
진달래야 진달래야 조선의 진달래

오가는 비바람 다 맞으며
산허리에 피어난 붉은 진달래
긴긴밤 찬서리에 피고 또 피여서
진달래야 진달래야 조선의 진달래

때늦은 봄에도 사연을 담아
해빛밝은 강산에 피는 진달래
못 잊을 어머님의 그 모습이런가
진달래야 진달래야 조선의 진달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서정을 안고 태어난 불후의 고전적명작 《진달래》.

불후의 고전적명작 《진달래》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진달래에 대한 서정적형상을 통하여 어머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어머님의 숭고한 념원이 활짝 꽃피난 조국강산의 아름다운 봄을 안아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끝없는 사랑의 세계를 노래한 작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숙동무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조국과 인민앞에 남긴 고귀한 업적은 길이길이 빛날것입니다.》

명작은 소박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진달래를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하면서 조국의 해방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한생을 다 바치신 김정숙어머님의 불멸의 업적과 숭고한 념원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려는 마음을 노래하면서 어머님께서 지니시였던 숭고한 애국심과 혁명정신을 진달래에 담아 감동깊이 보여주고있다.

여기에 명작의 서정이 가지는 독특한 매력이 있으며 참다운 의미가 있다.

진달래는 김정숙어머님의 불멸의 혁명생애를 전하는 성스러운 추억의 꽃이고 시련의 겨울을 끝끝내 이겨내고 봄을 맞이한 우리 조국의 상징이다.

지동치는 겨울과 태동하는 봄이라는 극적인 계선에서 자기 한몸을 깡그리 불태우며 봄을 알리고 저 열정적으로 피는 아름다운 진달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담아 흐르는 이 노래는 어머님께서 생전에 그토록 사랑하시던 사연깊은 진달래에 대한 뜨거운 정을 싣고 조선의 진달래에 어려있는 심오한 철학을 깨우쳐주고있다.

김정숙어머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은 어머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감회깊은 추억 그리고 어머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갈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이다.

가사 1절에서는 따스한 해빛을 받아 그리도 곱게 피어난 진달래에 대한 뜨거운 정을 깊은 서정에 담아 펼쳐보이면서 언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진달래꽃송이에 대한 깊은 추억을 감회깊이 노래하고있다.

가사 2절에서는 오가는 비바람과 긴긴밤 찬서리를 다 맞으면서도 산허리에 피어난 진달래에 대한 뜨거운 격찬의 감정을 노래하고있다.

항일의 눈비속을 헤쳐오신 어머님, 우박치는 탄우속을 뚫고오신 어머님,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밝은 모습으로 새겨진 어머님, 이 모든 감정정서와 시적화폭은 진달래에 집약되어 정서깊게 펼쳐진다.

가사 3절에서는 때늦은 봄까지 해빛밝은 강산에 피는 진달래의 숭엄한 모습을 감명깊게 노래하고있다.

가사는 매절의 마지막행에서 **《진달래야 진달래야 조선의 진달래》** 라고 노래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고 조국의 해방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은 수령님께 충직한 혁명전사이실 뿐아니라 우리 인민모두의 친근한 어머니이시라는 사상감정을 예술적으로 잘 형상하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진달래》** 는 서정이 매우 깊고 특색이 있다.

《조선의 진달래》 라는 뜻깊은 표현속에 어머님의 모습과 함께 잊을수 없는 어머님의 숭고한 혁명정

신과 애국심을 형상적으로 밝혀냈다.

또한 표현수법이 독특하고 생동한 어휘표현들을 잘 살려쓰고있다.

시적언어들은 소박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생동하고 진실하다.

명작은 세개 절전체가 다 은유적으로 씌여졌다.

명작은 **《그리도 곱나》**, **《봄소식을 전하며》**, **《오가는 비바람 다 맞으며》**, **《때늦은 봄에도 사연을 담아》** 와 같이 고유한 우리 말로 된 시적 표현들을 잘 살려쓰고있다.

또한 **《해빛이 따스해 그리도 곱나》**, **《뭇 잎을 어머님의 그 모습이런가》** 와 같은 수사학적물음문을 써줌으로써 서정성과 음악성을 독특하게 살리고있다. 매절의 마지막시행들에서 받아안게되는 부름과 대답의 시어들은 명작의 서정적효과를 최대로 높이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있다.

찬서리, 찬바람을 맞으면서도 봄을 확신하고 피어나는 진달래꽃은 미래를 띠고나와 온갖 시련을 이겨가는 영원한 신념의 꽃, 아름다운 희망의 꽃이다.

조국의 진달래야말로 시련의 겨울을 끝끝내 이겨내고 마침내 봄을 맞이한 내 나라의 장엄한 기상이고 높뛰는 활력이다.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언제나 진달래꽃이 활짝 피어있다.

고난의 행군길에서 철령을 넘으시면서도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 는 노래를 부르시며 마음속에 신념의 진달래를 피우시였고 선군조선의 최후승리를 그리시였다.

자신의 마음속에는 그리운 어머님의 모습과 함께 소박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진달래가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소중히 간직되어있다고, 그것은 언제나 마음속에 따뜻한 정과 그윽한 향취를 안겨준다고 외우시며 애국의 한길만을 꽃꽂이 이어가시는 장군님의 발걸음따라 조선이 나아가고 이제 활짝 열려질 강성국가건설의 승리의 대문이 우리를 마중온다.

실로 풍부한 감정과 고상한 사상의 유기적인 통일 그리고 높은 예술적일반화의 힘은 이 고전적명작의 중요한 사상예술적특징으로 된다.

오늘도 선군혁명의 힘찬 대오속에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진달래》** 가 우리의 가슴 뜨겁게 울리고있으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혁명정신은 세차게 맥박치고있다.

아 그 미소

심 복 실

하얀 비날론을 받아보신 기쁨이신가
청춘과원의 새 풍경에 즐거우셨는가
제철지구의 불노을에 하도 만족하시어
정녕 만시름을 다 잊으신듯
티없이 하얀 목란꽃속에서
오늘은 수령님 더 밝게 웃으시네

이 땅에 경사가 날 때마다
장군님 그려보신 태양의 미소
이 땅에 경사가 겹칠 때마다
인민이 우러른 아버지의 밝은 미소

아 그 미소
허리띠를 조이던 고난의 날에도
인민이 있는 그 어디나 계시며
사회주의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나날이 꽃피나는 무릉도원의 새 전경에
태양의 미소로 축복을 주신 수령님

전선길 떠나시는 장군님 야전차도
그 미소로 바래우시고
인민의 만복 강성부흥의 봄을 안고
수령님가까이로 더 가까이로
장군님 돌아오시는 큰 경사도
그 미소로 반겨맞으시나니

—멋있어!
우리의 위성은 하늘을 날고
우리의 철갑상어는 바다로 간다
우리의 과학은 최첨단을 돌파하고
우리의 비료와 우리의 기계로
옥야천리에 쌀이 넘쳐나게 될테지!

한평생 념원하시던
인민의 행복이 소리치며 꽃피나니
다시 보자 주체철 주체숨 주체의 비료...
크나큰 한품에 다 안아보시는듯
하도 기쁘시어 외우고 또 외워보시는듯

천만가지 복이 파도쳐오는
행복의 상상봉우에서
장군님 키워주신 영웅군대 영웅인민을 품안
으시고
세상제일 행복하게 웃으시는 우리 수령님

그 밝은 영상 다시 우러르니
억만년 무궁할 내 조국의 미래가 보이네
수령님 하냥 즐겁게만 웃으시니
피어난 목란꽃도 계절을 몰라라
온 나라를 행복의 락원으로 가꾸시는
아, 아버지수령님의 밝은 미소여

가 사

어머님고향을 노래하네

리 계 주

꽃속에 솟아오른 한쪽의 그림같이
인민의 락원으로 새 모습 펼쳐졌네
몰라보게 변모된 회령은 아름다워
어머님념원 꽃핀 고향을 노래하네

오산덕기슭따라 새 거리 일떠서고
화려한 불장식 꽃바다 펼쳐졌네

볼수록 회한한 회령은 아름다워
어머님념원 꽃핀 고향을 노래하네

장군님사랑속에 락원으로 변모된
인민의 지상락원 볼수록 황홀하네
선군시대 무릉도원 회령은 아름다워
어머님념원 꽃핀 고향을 노래하네

본 보 기 가 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사가 사람의 입에 오르게 하자면 생활적으로 씹여져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여러 기회에 노래 《아버지의 축복》의 가사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형상적인 가사의 본보기로 내세워주시였다.

주체69(1980)년 8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문화예술부(당시)의 책임일군에게 창작하고있는 가사들의 질이 낮은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당시 작가들이 쓰는 가사에는 직선적인 표현들이 적지 않았다.

더우기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노래하는 가사들에서 그런 결함들이 나타났다.

일군은 깊은 자책에 잠겨 아무런 말씀도 드리지 못하였다.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생각깊으신 음성으로 가사는 어디까지나 형상적으로 되여야 한다고, 가사는 예술영화 《금희와 은희의 운명》에서 나오는 주제가 《아버지의 축복》처럼 형상적으로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책임일군은 창작가들과 예술인들, 군대와 인민들속에서도 이 노래가사에 대하여 좋은 반응이 제기되고있다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의 말을 긍정하시면서 노래 《아버지의 축복》의 가사는 수령님의 형상을 직선적으로가 아니라 형상적으로 잘 해결하였다고, 작가는 노래 《아버지의 축복》에서 큰별에 형상의 초점을 두고 자기가 노래하고싶은것을 다 노래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의 머리속에는 순간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가하시는 그 노래의 가사의 구절들이 떠올랐다.

잘 자거라 아가야 내 사랑 아가야
밤은 캄캄 깊어도 잠 잘 자거라
백두산의 큰별님 밝게 비치여
너를 지켜준단다 내 사랑 아가야

...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마디마디에 힘을 주시면서 노래 《아버지의 축복》의 가사는 시어가 있고 형상성이 높은 아주 잘된 작품이라고 하시며 본보기 가사의 하나로 내세워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작가들의 가사창작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하겠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그리하여 작가들모두가 노래 《아버지의 축복》의 사상예술적성과의 모범을 따라배워 형상적인 가사를 창작하기 위한 된바람이 일게 되었다.

청 봉 의 밤 에

권 태 여

그립던 조국진군의 날
장군님 모신 청봉밀림속
첫 숙영의 우등불 타오르던 밤

대원들 잠 못들고
감격의 눈물을 적시며
밤하늘의 못별들을 바라보던 밤이었네

잠 못드는 나어린 녀대원의 손목을 잡으시고
김정숙어머님은 말씀하셨네
—하늘의 아기별들이 너를 보고 웃는구나

나어린 녀대원도 방긋 웃으며
어머님품에 얼굴묻고 속삭였네

—하늘의 별들이 어머님께 인사를 드려요

정다운 그 속삭임소리에
내물도 귀기울이는듯
청봉의 숲들도 설레임 멈추고 조용히 듣네

그리도 안기고싶던 조국의 첫날 밤은
감격과 기쁨에 젖어 깊어가는데
생각에 잠기신 어머님 말씀하시었네

—태양의 빛발 받아
저 하늘의 별들도 빛을 뿌린단다
장군님 모시여 우리 삶 빛나듯이

어머님의 그 말씀 가슴에 새기며
너대원은 군모의 붉은별을 쓰다듬었네
어머님께서 수놓아주신 별

하늘의 별과 같이
장군님따라 한생을 별처럼 빛나게 살자고
대원들의 가슴에 안겨주신 삶의 별

아 장군님을 태양으로 높이 모시여
하늘에는 고운 별 밤하늘에 빛나고
땅우에는 항일투사들 삶의 별로 빛나거니

정녕 못 잊을 그 모습
오늘은 **김정일**장군님 결사옹위할 별이 되어
이 땅우에 찬란히 빛을 뿌리고있어라

어머님의 맑은 샘 외 1편

정 동 찬

청봉
배개봉밀영에 가면
사령부천막가에서 몇걸음일가
잔잔한 잔디밭가녁에 쪽거울 하나 놓인듯
마주웃는 맑은 샘

집삼
염분진도래굽이를 찾아도
수령님의 담화터 멀지 않은 곳
잔잔개 발머리에 물동이 하나 고여있는듯
작은 웅달샘

수령님 다녀가신 그 어디서나
첫눈에 보이는 샘터
꾸며놓은 모양새 하도 소담해
찾는이들 누구나 고향집 울안의 샘을 본듯
어머님의 다심한 정 감도는 샘결을 못 뜨네

—어머님...
조용히 부르면 맑은 샘우에 떠오르는 모습
격전뒤나 행군끝에
남몰래 조용히
샘을 찾는 일과로 설참도 넘기신 어머님

모진 세월 한순간도
수령님결에서 마를줄 모르는 샘물
어머님 바라신 안녕의 마음 따르듯
어머님손길따라 샘줄기는 이어지고
어머님손끝에서 맑게도 맑게 샘은 솟았으니

아, 우리 수령님 한평생 드신 그 샘은
그 어느 산천의 줄기에서만 시작되지 않았네
오직 한분 수령님안녕을 위한
어머님의 충정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은
티없이 맑고 순결한 마음의 샘이었네

회령의 밤에

백살구꽃향기 그윽한 밤
어머님고향집 고요한 프락을 나서
오산덕마루길 길노라니 발목잡는 생각
눈부신 불야경의 저 거리와 한채의 초가
어제와 오늘의 화폭앞에 내 섰노라

여기저기 곱게 엮어놓은 불꽃덤불
터져오르는 축포장식
저 멀리 백두의 하늘에 엮어있는 은하수
두만강물결에 실려온듯

다투어 펼쳐지는 이밤의 이 경치
바라보니 황홀경속에 비껴드는것
불빛구름에 파도를 타고 오는 쪽배런가
우렁이 떠오르는 한채의 초가
내 방금 눈물겹게 안아본 한점의 등잔불

가물거리는 고향집 등불아래
가난의 어린시절 보내고
빨찌산 등불가에 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산에서 해와 달을 보내신 어머님

어머님 생전에 그리신 회령의 불야경
불흐름아래 웃음과 노래 흐르는 밤풍경앞에
어머님 생각으로 가슴 젖어와라
아름다움의 고결함을 말해주는
아, 한점의 등불이 타드는 소리

걸음걸음 고생을 이기며
한생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밝게 켜드신 등불
이밤에 피어난 불야경의 불씨로 되었거니
내 보았노라 아름다운 생을 노래하는
별천지 별천지를

친위전사의 숭고한 뜻 새겨주는 빛나는 형상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기념 단편소설집(4) 《친위전사》를 읽고—

김 순 립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를 《친위전사》라는 고귀한 부름으로 부르며 한없는 그리움속에 어머니께서 우리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추억하고있다.

참으로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는 고귀한 생애의 전기 간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고 그이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것을 생의 최대의 목표로 삼으시고 일생을 바치신 친위전사의 귀감이시며 가장 고귀한 전형이시다.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기념 단편소설집(4) 《친위전사》는 녀사의 혁명생애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단편소설로 형상한 작품들로 묶어진 고귀한 문학유산이다.

단편소설집에 들어있는 모든 작품들에 뜨겁게 맥박치고있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친위전사는 어떤 사상과 신념, 어떤 삶의 진리를 생활의 신조로 삼고 어떻게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 하는 친위전사의 숭고한 지향과 녀으로 세차게 고동치고있다.

작품들은 사상주제적지향에 있어서나 형상성에 있어서 높은 경지에 이른것으로 하여 큰 감화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있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그려야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주체형의 인간전형인 충신의 성격적특징을 옹게 밝힐수 있고 인간적품모를 선명하고 품만하게 보여줄수 있다.》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기념 단편소설집(4)에 들어있는 작품들은 영원한 친위전사의 빛나는 귀감이신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성격적특징과 숭고한 인간적품모를 선명하고 품만한 예술적형상으로 보여주고있다.

친위전사에게 있어서 최대의 영예이며 순간도 잊어서는 안될 가장 성스러운 임무는 위대한 수령님을 결사옹위하는것이다.

단편소설 《친위전사》(박경로 작)는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

전을 위하여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시고 마음을 쓰시였는가 하는것을 경위중대 군관인 강철수와외 관계속에서 깊이있게 형상하고있다.

작품에는 나라가 해방되여 네번째로 맞는 봄 어느날 경위중대와 이웃 보병중대와외 체육경기를 계기로 하여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모든 경위대원들을 수령결사옹위의 백발백중의 명사수로 키워주시는 녀사의 숭고한 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이날 체육경기에서 축구, 배구 등 체육종목들은 무승부로 끝났다. 이제 신입병사들의 무기분해 결합경기만은 반드시 경위중대가 이김으로써 녀사께 기쁨을 드리리라고 생각한 강철수는 지난해에 입대한 박영진을 선발하였다. 그로 말하면 녀사께서 남달리 사랑하시고 위해주시는 전사였다. 하기에 그가 이기면 녀사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랴고 제판의 생각을 하고있는 강철수였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짹짜게 무기분해 결합을 해나가던 영진은 그만 격발기를 떨어뜨렸다. 그런데 그는 눈길을 허둥거리며 격발기를 찾았으나 자기옆에 있는것도 모르는것이 아닌가.

결국 이 경기에서는 경위중대가 졌던것이다. 녀사께서는 이 사실을 놓고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 해방전에 연약한 몸으로 지주집머슴을 살며 먹을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고역을 치르며 허약해질대로 허약해진 영진이의 눈에 무슨 번고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시였다. 녀사께서는 영진이가 평양으로 떠나던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떨쳐나서서 뜨겁게 바래주고 송아지동무들은 동구밖 황철나무 있는 곳까지 따라나와 주머니에 로자와 잎담배를 찢려주던 고향사람들, 그의 약혼녀 복실이의 심정도 헤아려보신다.

그런데 영진은 경위중대에서 다른 구분대로 가겠다고 하는것이다.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영진이를 키우기 위하여 몸소 이름있는 명의들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 친히 결정가가루와 명래눈을 붙은 가루로 약들을 만드시였고 만경대조부모님께서 녀사의 얼굴이 축갸다시며 손수 닭을 보내주시였는데 그것마저 영진의 보약으로 쓰도록 하시였다. 그러시고도 영진의 시력에 맞는 안경을 구해주시며 조준련습은 한순간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영진이 치료를 받으면서도 조준련습을 쉬임없이 하

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다.

소설은 강철수의 체험세계를 통하여 눈을 치료하는 기간에도 친위대원으로서의 자기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려는 녀사의 불같이 뜨겁고도 세심한 사랑에 대하여 감동적으로 형상하고 있다. 그 사랑이 있어 영진은 시력을 되찾았고 드디어 사격에서 우를 맞고 녀사에게 기쁨을 드리는데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영진의 어깨를 쓰다듬으시며 아버지수령님을 결사옹위하는 친위대원의 대렬에 또 한명의 전사를 키워 세워주셨다는 기쁨으로 감격의 눈굽을 적시셨다.

강철수는 그가 누구든 총을 잡은 전사라면 귀중한 혁명동지로, 친혈육으로 여기시며 것처럼 크나큰 로고를 기울여 영광스러운 친위대원의 대오속에 세워주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우러르며 정녕 그이는 이 세상 가장 열렬하고 충직한 친위전사이시라고 걱정을 터치며 조국의 수많은 아들딸들을 친위대원으로 키우시는 자애로운 어머니, 위대한 혁명의 어머니이시라고 심장으로 토로한다.

바로 여기에 참된 친위전사의 숭고한 모습을 보여준 이 작품의 형상적성과가 있고 어머니의 성격적특징을 훌륭하게 재현한 작품의 총적지향이 있다.

작품집에 들어있는 단편소설들은 위대한 어머니께서 지니신 아름다운 소행과 빛나는 공적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충정의 세계를 깊이 파고들어 생동하게 그림으로써 친위전사의 숭고한 모습을 풍만하게 형상하고 있다.

수령에 대한 충정을 생활화한 사람은 수령이 의도하고 바라는 일이라면 어떤 어렵고 힘든 것이라도 하지 않고서는 배겨내지 못하며 그것을 억제당하거나 저에당하면 불쾌하고 허전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한 인간은 수령을 높이 받드는 길에서 참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찾으며 오직 수령이 준 과업을 실현하였을 때 삶의 긍지와 보람도 제일 강하게 느낀다. 문학작품에서는 이러한 주체형의 인간전형의 내면세계를 파고들어 깊이 펼쳐보여야 한다.

단편소설집에 들어있는 많은 작품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원한 친위전사의 내면세계를 빛나는 화폭으로 펼쳐보임으로써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신 수령님에 대한 충정의 세계를 한껏 부각하고 있다.

단편소설 《추억》(조상호 작)은 우리 나라 국방공업발전을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전략적구상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영상을 풍부한 내면세계의 개방을 통하여 감동깊게 모시고 있다.

남조선에서 살다가 1년전에 북으로 들어온 로천일은 29살의 병기기술자이다. 그는 자진하여 병기공장에서 일하고있었는데 그만 사고를 일으켰다. 다행히도 사람은 피해가 없었지만 일부 설비와 건물 한귀퉁이가 파괴되었다. 일부 편협한 사람들이 고개를 기웃거리며 로천일을 의심하며 배척하기 시작하였고 그는 어디론가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당시 군수공업부문 사업을 맡아보던 리덕현이 로천일을 찾아갔으나 그는 자기를 보고 리승만이 보낸 반동이라느니, 적들에게 비밀을 넘겨주었다느니 하는 소문에 고향에서 다시는 병기공장에 안 가겠다고 하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진포조선소를 찾으시여 그곳 노동자들이 만든 해군함선을 기쁨에 넘쳐 보시고 돌아오시던 길에 이 사실을 아시고 몸이 몹시 불편해하시면서도 로천일이 룡원에 있는 외삼촌네 집에 와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로 즉시 가시였다. 그런데도 로천일은 없었다. 양덕 어딘가 있는 4촌형네 집으로 가서 농사나 짓겠다며 아주 떠나갔다는 것이었다. 당시 녀사께서는 건군을 위해 아버지수령님의 로선을 관철하시느라고 너무도 파로하시여 몹시 불편한 몸이시였다. 하지만 녀사께서는 총대만이 조국을 해방하고 조국과 인민을 보위할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피로써 찾은 진리라고 하시며 물론 로천일이 없다고 당장 병기생산이 안되는 건 아니지만 나라를 지키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한사람이라도 더 나서게 해야 한다시며 자신께서 그를 찾으러 떠나실 결심을 하신다. 덕현은 녀사의 말씀에 목이 메어오름을 금할수 없는 걱정에서 무척 즉시 로천일을 찾아가 녀사의 말씀을 전하고 그를 데려오겠다고 다시 길을 떠난다.

소설은 해방이 된지 얼마 안되어 아직 우리 인민군대의 무장장비가 현대전에 대응할수 있으리만큼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수령님께서 모자라는 우리 군대의 무장장비를 우리 인민들의 애국적열성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해결해보자고 하신 말씀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한사람이라도 이 문제 해결에로 이끌어주시기 위하여 사색하고 또 사색하시는 녀사의 내부적체험세계를 깊이있게 파헤쳐보이면서 친위전사의 숭고한 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대인물인 리덕현과 김영준의 시점을 통하여 녀사께서 식찬가지수를 더 줄이고 잡곡을 더 섞는 방법으로 한푼두푼 모은 돈을 군기금으로 헌납하신데 대한 생활을 통하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이시야말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시는 친위전사의 귀감이시라는것을 한껏 돋구어주고 있다.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두고 그토록 아글타글하 시면서도 총을 못 만들겠다고 달아난 인간마저도 탓하지 않고 뜨겁게 안아주시는 그 품, 인간사랑의 화신! 덕현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인간성격에 매혹되어 길을 떠나면서도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다. 그런데 녀사의 병색이 짙어감을 느끼며 차마 발길을 뻗을 수 없는데 그것이 마지막작별이 될 줄을 어이 알았으랴. 덕현은 자신이 녀사의 뜻을 잘 받들지 못한 자책감으로 통분함을 금할 수 없었다.

바로 그러한 로천일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40여년간 녀사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세계, 조국과 인민을 위한 그 헌신에 감복되어 지금껏 자신을 깡그리 바치며 국방과학에 기여를 하고있는 것이 아닌가.

작품은 로천일에 대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백두산위인들의 내부적체합체계를 통하여 감동깊이 펼쳐 보여 줌으로써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이시야말로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생을 빛나게 산 영원한 친위전사라는 것을 감동깊은 화폭으로 빛나게 형상하고 있다.

단편소설집 《친위전사》에는 갓 해방된 이 땅에서 각이한 운명의 길을 걸은 각양각색의 인물들과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민모두를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새로운 삶을 누려가도록 이끌어주고 품어주시는 친위전사의 숭고한 인간세계를 선명하면서도 풍만한 생활로 형상하고 있다.

단편소설 《만아들》(강수 작)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해방후 나라없던 시절에 것처럼 버림받던 김명진을 어엿한 로동계급으로 키워주심으로써 오늘은 그가 로력영웅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자라난 소생의 기쁨을 강선제강소(당시)를 현지지도하고 계시는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제강소로동자문화회관에서 다채로운 예술공연이 진행될 때 명진이가 이야기하는 추억의 세계를 통하여 김정숙녀사의 사랑과 믿음에 대하여 감동깊이 형상하고 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안겨 주신 믿음과 김정숙어머님께서 주신 사랑이 있어 지난날 것처럼 버림받던 김명진이 오늘은 로력영웅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자라 이렇게 수령님앞에 나섰다는 그의 이야기를 타고 친위전사인 녀사의 숭고한 사랑과 믿음의 세계가 화폭으로 펼쳐진다.

…주체37(1948)년 한낮의 따사로운 해빛이 대지 위에 무르녹는 어느 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포조선소에서 진행하는 《신흥》호진수식에 참가하고 돌아오시던 길에 강선에 들려 증산정쟁의 앞장에서 있다는 명진을 만나고 싶으시어 제강소에 들리시었으나 명진이는 사고를 치고 보안서에 갇혀있다는

것이였다. 뜻하지 않은 소식에 접한 녀사께서는 놀라시어 문득 2년전 사창장마당에서 명진이를 처음 만나셨을 때의 일을 되새겨보시였다. 온몸이 석탄투성이가 되어 탄을 사달라고 애원하는 명진의 모습을 보신 녀사께서는 그의 형편을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일제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마저 일제놈들에게 잡혀가 옥사를 하고 의지가 없이 된 명진은 앓는 할머니를 봉양하느라고 해방이 되였지만 제강소의 탄을 가져다가 팔고있었다. 그야말로 수난당한 이 나라 사람의 모든 슬픔을 어린 몸에 다 체현한 명진이었다. 이런 그가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녀사의 사랑과 믿음속에 어엿한 압연공으로 자랐는데 보안서에 붙잡혀있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녀사께서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직공장의 팔과 눈이 맞았는데 처녀의 아버지가 명진을 보고 파철같은 놈이라고 모욕을 했던 것이다. 명진은 천시를 당한 아픔에 움해있다가 그만 사고를 쳤던 것이다.

사람을 천시하고 차별하는 것은 아버지수령님의 사상이 아니다, 오늘 우리 새 조선의 일군들은 해방전의 왜놈집장이나 판료가 아니라 인민의 심부름꾼이다, 일제통치의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뽑지 않고서는 새 민주조선건설을 할 수 없다. …

김정숙동지의 준절한 타이름에 명진이는 물론 직공장도 자책의 눈곱을 적시었고 명진은 드디어 수령님과 녀사의 뜻대로 나라의 만아들로 자라났던 것이다.

소설은 시작과 결속을 아버지수령님께서 김정숙동지에 대하여 뜨겁게 추억하시는 특색있는 형상수법으로 어머님의 고귀한 성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모든 현실과 인간을 대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철두철미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하는 것이라는 고귀한 인생관을 뜨겁게 안겨주고 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이러한 인간적 품모를 보여주는 것은 단편소설집에 들어있는 모든 작품들에 일관하게 흐르고있는 주제사상적 지향이며 형상적 결과이다.

유자녀학원을 처음 내왔을 때 리은금이라는 처녀애의 생일란이 비어있는 것이 가슴에 걸리시어 끝내 그의 생일을 찾아주시고(단편소설 《고귀한 사랑》 김석범 작), 신갈과 광선사진관의 주인이였던 리순원의 아들 리무일을 찾아 만경대혁명학원으로 보내주신 그 은정(단편소설 《눈오는 날에》 리하성 작)을 비롯하여 수난받던 이 나라의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인간애와 동지적사랑과 믿음에 의하여 참된 삶의 길을 걷게 되었고 새생활을 창조하게 되었다.

이 모든 형상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는

수령님의 사상과 뜻, 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가장 투철한 성격의 소유자이시라는 것을 선명하면서도 풍만한 모습으로 확증해주고 있다.

친위전사의 숭고한 품모는 아버지수령님의 뜻을 실천하는 길에서는 단 한치의 드림과 에누리도 없으며 오직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행동하는 데서 표현된다는 것을 단편소설 《빛나는 영상》(김정길 작)을 비롯한 여러 작품들에서 예술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아버 이수령님께서서는 김정숙동지에게 제1중앙군관학교졸업식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당당한 군사지휘관이 된다고 하시며 옛날로 말하면 장수들인데 군복을 잘 만들데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수령님의 말씀을 받들고 조직사업을 치밀하고 현실성있게 하고 그 일을 책임진 순화와 함께 피복공장 노동자들을 불러일으켜 촉박한 날자에도 불구하고 성과적으로 군복을 다 생산하였다. 그런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순화가 다 지어놓은 군복에 대해서 만족하여 매 군복을 깐지게 검열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게 되었다. 녀사께서는 군복을 만든것에 만족하여 검열을 안하고도 그것을 범상하게 생각하는 순화에게 자신과 함께 군복을 검열해보자고 하시면서 장군님의 말씀판찰에서는 허용오차라는 것이 절대로 있을수 없다고 준절히 타이르시며 밤을 새워 군복을 하나하나 검열해보신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보고를 받으시고 정숙동무가 다 보았다니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며 못내 만족해하신다.

자신께서는 참된 삶의 보람이 장군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데 있다고 본다고 하시며 해빛처럼 환히 웃으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단편소설은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신 아버지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을 수행하는데서는 티끌만 한 오차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절대적인 충정의 세계를 뜻깊은 제1중앙군관학교졸업식에 참가하시는 수령님의 안녕을 위해 물샐틈없는 조직사업을 하시는 것을 통하여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다. 녀사께서는 학교까지 가는 도로가 불비하므로 자신께서 선두차를 타고가신다. 그리고 경위대장에게 수령님을 호위하는 일에서는 순간의 실수도, 자그마한 틈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하시는 것이다.

소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친위전사로서의 이러한 충정의 숭고한 세계를 홍순화의 체험세계를 통하여 감동깊은 생활화폭으로 펼쳐 보이고 있다.

특히 소설은 항일무장투쟁시기 박완규소대장이 사령부의 안전을 지켜 적들을 유인하고 장렬한 최후를 마치면서 사령관동지를 총대로 오래 오래 보위하자고 결심했었는데 그 결심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간다고 하면서 자기 아들 수진이에게 권총을 전해달라고, 사령관동지를 더 받들지 못하고 가는 자기 뒤통까지 합쳐 잘 모셔달라고 남긴 유언을 지켜 김정숙동지께서 그의 권총을 보관하였다가 아들 수진이를 찾아 전해주시는 생활을 통하여 항일선열들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그 후대들에게 이어주기 위하여 애쓰시는 김정숙동지의 형상을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김정숙동지께서 제1중앙군관학교 제2기졸업생들의 분별행진을 보시며 오늘을 보지 못하고 먼저 떠나간 혁명전우들의 모습이 떠올라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어떤 침략자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새 조선의 휘황한 앞날을 그려보시는 생활을 통하여 김정숙동지께서 우리 혁명적무장력건설을 위해 바치신 노력과 쌓으신 업적은 이 땅에 차넘치는 수천수만의 수령결사옹위의 대오와 더불어 길이 빛난다는 것을 형상적여운으로 깊이 새겨주고 있다.

단편소설집 《친위전사》에는 또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아버지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해방전 식민지지식인의 설움을 뼈저리게 체험하며 살아온 구승백과 신흥근을 새 조선의 참된 지식인으로 키워주시는 숭고한 모습(단편소설 《홍남의 해돋이》 방정강 작)도 있고 해방을 맞은 우리 녀성들에게 산모들이 먹어야 할 미역을 넉넉히 보장해주며 굴양식을 잘해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이끌어주시는 이야기(단편소설 《강산의 환희》 김금옥 작)도 있으며 각이한 인생길을 걸어오며 수난 많던 우리 인민모두가 **김일성**장군님의 건국로선을 관철하는 길에 한사람 같이 펼쳐나 자기의 재능을 다 바쳐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감동적인 이야기(단편소설 《건국의 첫 기슭에서》 조창근 작)들이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져 있다.

참으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기념 단편소설집(4) 《친위전사》는 갓 해방된 조국땅 위에 수령결사옹위대오의 무성한 숲을 키워주시고 인민들의 삶과 운명을 따뜻이 보살피시어 천만사람모두를 아버지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건국로선 관철에로 불러일으키신 친위전사의 숭고한 품모와 끝없는 사랑과 믿음의 세계를 다양한 생활화폭에 담아 형상함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고 강성부흥의 령마루에로 돌진해가는 혁명적대고조전군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우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다운 친위전사이시였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셨던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정신과 고결한 품모는 오늘 강성국가건설의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 우리 인민이 펼쳐가고있는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과 더불어 앞으로도 영원히 길이 빛날 것이다.

아 그 날 은

안 통 준

그날은
아무리 생각해도 꿈만 같던 그날은
수령님 소문없이
우리 대학 교정에 들어서신 날

배잠뱅이 칠성이도
부엌데기 꽃분이도
두볼에 흐르는 눈물 아니 흘리려 해도
끝끝내 흘리고야만 그날

인민이 주인된 새세상
더더욱 밝아질 조국의 래일을
한가슴 벅차게 안으시는가
손저어 학생들을 뽐가까이에 부르시고

씩살 배긴 머슴군의 두어깨에
허물없이 손을 얹어주시며
집형편도 하나하나
소원도 하나하나

다정하게 물으시였거니

생각했다면
고무신밖에 아퇴일수 없었던
그 작은 가슴들에
새 교복과 번쩍이는 구두도 안겨주고
학용품과 장학금도 안겨주자 하실 때
목메여 우리르던 태양의 영상이여

후대교육은 국사중의 국사라고
강기슭의 모래알만큼 인재들이 많아야
새 조선이 흥한다고
하늘같은 믿음 주신 어버이사랑은
오늘도 가슴치며 이 심장 울리나니

아, 그날은
꿈만 같던 그날은
수령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날
은 나라의 영원한 학부형이 되신 날이여라

회 령 관 과 초 가 집

전 승 일

회령관
드넓은 홀에 아름다리원주들을 안고돌아
한단한단 대리석층계를 밟고오르는데
아, 눈이 부신 2층 하얀 벽에
오산덕의 초가집이 꽃속에 묻혀있구나

그리도 가난해 설움에 울던 집
했어도 그리도 절개높이
고삭은 추녀마다에서 분노의 서슬을 뿜어치
던 집
회령관을 보고싶어
구김살없는 웃음소리 듣고싶어
오산덕고향집 여기 옮겨왔는가

금시라도 토방을 내려

어머님께서 나오실듯
나오시여 물결쳐오르고 내리는
이 행복한 모습 다 안아주실듯싶어
아, 차마 선듯 걸음 못 떼겠구나

어머님 그리워
마음속에 조용히 불러만 보아도
뜨거운 불덩이로 목이 메이는
이 그리움의 땅에 솟아오른 회령관
정말로 이 회령관에
단 한번만이라도 어머님을 모시었으면...

너무도 많은 고생 다 겪으셨기에
그리도 녀원하신 인민의 이 기쁨 이 집
우리 누리는 이 아름다운 행복을 위해

백두의 전장을 달리시며
젊으신 한생을 불길처럼 태우셨거니

불러 목메이는 어머니
불러 사무치게 그리운 김정숙어머님
샘처럼 솟구치는 그리움에 받들려
황홀한 회령관이 한복판에

삼가 어머니의 고향집을 받들어올렸구나

어쩌면 이 고향집속에 이 회령관이 있는듯
이 고향집을 심장처럼 안고솟은 회령관
아, 회령관과 초가집
초가집과 회령관이여!

그 부름과 함께

왕 성 국

어머니란 말로밖엔
달리는 부를수 없어
언제나 한모습 그날의 부름으로
목메여 우러르는 김정숙어머님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비기지 못할 사랑으로
불보다 뜨거운 그 심장으로
백두의 아들을 안아올리시고

포연에 절고
땀에 젖고 이슬에 젖은
군복자락 언제한번 말릴새없이
천만고생 다 하신 우리 어머니

사랑을 찾아 정을 찾아
정처없이 방황하던 유자녀들을
한품에 다 안아 키워주시고
가슴속 눈물도 다 닦아주셨으니

분명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새 조선의 역군이 되라고

하늘같은 축복도 안겨주시며
손잡아 이끄시던 그 음성

진정 어머니의 모습이였다
장군님의 아들딸이 되라고
사범대학에 보낼 교과서는
내용도 보기도 좋아야 한다신 그 사랑

아, 순간을 살아도
태양의 해발로만 찬란히 빛나라고
오늘도 스승의 위대한 귀감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김정숙어머님

부모의 모습을 닮듯
어머님을 꼭 닮은 애국자들의 대오속에
가장 큰 애국이 무엇인가를
변함없이 가르치시는 김정숙어머님

진정 우리에게 그이는
어머님이자 선생님이시였다
태양의 영원한 전사였다



항일혁명투사의 불굴의 모습에 대한 예술적형상의 깊이있는 탐구

—장편소설 《잠들지 않는 녀》을 두고—

함정남

심장에 새기겠다, 한없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투사들의 모습을!

그리고 바치겠다, 위대한 당, 어머니조국, 번영하는 우리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그대들 선렬들처럼...

이것은 장편소설 《잠들지 않는 녀》(조상호작)을 읽은 사람들의 심장의 웨침이다.

기쁜 일이 아닐수 없다, 오늘의 혁명적대진군대오를 힘있게 고무하는 또 한편의 소설이 나왔다는 것이, 그것도 혁명전통주체의 작품형상에서 소설창작의 훌륭한 경험을 뚜렷이 시사한것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 예술인들은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닌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백절불굴의 투지, 불타는 조국애와 혁명적관주의를 예술적으로 감동깊게 잘 그려야 합니다.》

백두에서 시작된 우리 혁명은 장구한 년륜을 새기며 선군혁명의 위대한 폭풍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이 위대한 행정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항일의 혈전만리의 자욱자욱이 력력한 백두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선렬들의 고귀한 녀으로 조선의 위대한 기적을 쌓아나가고있다.

강성국가건설의 장엄한 번영기를 마련해나가고있는 오늘의 벅찬 시대는 우리 소설문학앞에 그 어느때보다도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던 불굴의 혁명정신, 백두의 녀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을 활활 불태워주는 작품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장편소설 《잠들지 않는 녀》은 거창한 시대의 이 부름에 화답하여 수령의 전사, 주체형의 선군혁명투사들은 어떻게 살며 한생을 빛내야 하는가를 주인공 녀투사의 형상을 통하여 뜨겁고도 절절히 새겨준것으로 하여 좋은 창작경험을 보여주고있다.

소설의 형상과제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결사옹위하여 준엄한 항일의 폭풍우를 헤쳐온 항일혁명선렬들의 빛나는 위훈과 그들의 삶이 후대들의 심장속에 어떻게 살아 고동치며 영생하고있는가를 확인하는것이다. 작품에서는 이 형상과제의 요

구에 맞게 의의있는 생활을 선택하고 깊이있는 예술적탐구로 항일혁명투사—주인공의 고귀한 삶과 불멸의 정신세계를 빛나게 그리고 감동깊게 그려내었다.

소설은 우선 항일혁명선렬들의 투쟁위훈을 소재로 하면서도 그것을 도식화하지 않고 생활을 진지하게 파고들으로써 혁명전통주체작품창작의 요구를 훌륭히 구현한 성과를 보여주고있다.

항일혁명투사들을 원형으로 하는 혁명전통주체의 소설창작에서 주인공을 열렬한 혁명가, 참된 인간의 본보기로 그리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형상문제로 제기된다.

그러나 이 요구를 실현하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삶과 투쟁의 거울인 항일투사들을 원형으로 하는 소설창작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작품의 형상으로 실현하는것은 절로 되는 일이 아니기때문이다. 혁명전통주체작품창작에서 누구나 실감하게 되는 문제이지만 독자들의 마음속에 이미 깊이 간직된 투사들의 숭고한 모습을 생활적인 형상으로 깊이있게 다시 새겨준다는것은 욕망 하나만으로 실현될수 없는 일이다. 원형—항일혁명투사의 생활과 투쟁이 새로운 모습으로 안겨지게 형상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식을 면할수 없다. 장편소설이 그토록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된것은 바로 주인공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있는 항일의 녀성혁명투사 리계순동지의 고귀한 모습을 다시금 새롭게 새겨안게 한데 있다.

그러면 그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데 있지 않다.

문학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인간—주인공의 생활을 깊이있게 탐구하고 참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내세운데 있다. 그렇다고 하여 소설이 예술적허구와 파장에 집착되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소설은 원형인물의 생활과 투쟁에 충실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잊을수 없는 추억으로 새겨진 항일혁명투사—주인공의 생활과 투쟁이라고 할 때 누구나 다 그의 머리태와 아기와의 리별, 영웅적최후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바로 소설에서도 그 이상의것을 보여준것은 없다. 하지만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파고있다.

머리대며 아기와의 리별, 영웅적최후의 밀바탕에 깔려있는 투사의 고결한 정신세계, 감정과 심리까지도... 여기에 혁명전통주제작품으로서 이 소설이 거둔 성과가 있고 그 비결의 하나가 있다.

소설은 또한 주인공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깊이있게 파고들어 잘 그려내고있는데서 주목할만 한 성과를 보여주고있다.

소설, 더우기 혁명전통주제의 소설창작에서 주인공의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잘 그리는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혁명의식, 계급의식형성과정의 합법칙성을 깊이 인식하게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주인공들의 정신세계에 공감하고 따라서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요구의 하나로 된다.

소설의 주인공은 위대한 수령님을 옹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내댈줄 아는 불굴의 혁명가,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굴할줄 모르는 건인불발의 의지를 지닌 강의한 녀성혁명투사의 전형이다.

최후의 순간에조차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안녕을 바라며 떳떳한 삶의 후회없는 미소를 짓는 주인공. 그의 이 고결한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은 천성적인것이거나 하루아침에 생겨난 기질이 아니다.

유년시절 어리광과 재롱만을 알고 앞날에 대한 소박한 꿈과 랑만에 가득차있던 천진란만한 주인공의 가슴속에 원췌 왜놈에 대한 증오와 혁명에 대한 자각이 불타오르게 된것은 일제식민지통치의 살풍에 찬 현실때문이었다.

잠자리에 들어도 자기를 꺼안아 잠재워주고 아침일찍 들일을 나가도 잠든 손녀의 곁을 떠나기 아쉬워 귀여운 그 불을 쥐여보고야 집을 나서던 할아버지를 독립군출신이라 하여 그가 보는 앞에서 불태워죽인 왜놈들. 그 왜놈들은 배움의 꿈을 안고 그가 열렬히 사랑하던 자그마한 시골학교마저 불태워버렸다. 깨끗한 동심의 정도 꿈도 모조리 앗아간 그 왜놈들과 어찌 한하늘아래 살수 있으랴. 하기에 주인공은 타오르는 증오와 복수를 안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나선 혁명의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니었다.

그 길은 그토록 따르던 오빠의 최후와 귀중한 혁명동지들의 희생, 종파분자들에 의한 남편의 피살과 피덩이같은 귀여운 자식과의 생리별... 실로 참기 어려운 피로움과 좌절감, 뼈를 에이는 아픔이 걸음걸음 막아서는 길이였다.

허나 그 모든 시련의 언덕을 넘어 주인공이 도달한 의지의 종착점은 위대한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의 봉우리였고 그로 하

여 그는 죽음앞에서도 지울수도 지워지지도 않는 아름답고도 고귀한 승리자의 미소를 동지들과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길수 있었던것이다.

주인공의 사상정신적특질을 규정하는 혁명적세계관의 형성과정에 대한 깊이있는 탐구로 하여 소설은 이와 같이 그토록 독자들의 심금을 더욱 울려주며 인상깊은 여운을 남긴것이다.

소설은 또한 철학적인 종자를 탐구하고 그의 요구에 맞게 인물관계를 립체적으로 잘 맞물림으로써 형상적전인력을 강화하고 구성을 특색있게 조직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철학적인 종자를 잡고 그에 맞는 인물관계를 조직하는것은 형상창조의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아무리 좋은 종자를 잡았다고 하여도 그의 요구에 맞는 옹은 인물관계를 설정하지 못한다면 훌륭한 소설이 될수 없다.

소설은 수령결사옹위투사의 삶은 후대들의 녀과 숨결로 된다는 작품의 형상적요구에 맞게 인물관계를 잘 탐구함으로써 립체적이며 조형적인 구성미를 잘 살렸다.

작품에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와 오늘이라는 두시대를 반영해야 하는 작품의 종자의 요구로부터 항일혁명투사—주인공과 우리 시대의 인간을 대변하는 김정옥을 설정하고 그들사이의 관계를 어머니와 딸이라는 혈친관계로 맺어주었다. 그러나 이 두 인물의 관계만으로는 주인공의 형상을 깊이있게 보여줄수 없으며 더우기 딸인 정옥이가 어머니의 고결한 모습을 새롭게 느낄수 없다.

물론 어머니의 전우였던 김일, 김명화 등 항일혁명투사들을 통하여 알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되면 주인공의 지하공작이나 최후의 투쟁모습 등에서 보여주어야 할 의의있는 생활과 투쟁이야기들이 억지스럽게 끌려들게 된다. 이로부터 이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자면 또 정옥으로 하여금 어머니—주인공에 대한 자부심과 행복감에 넘치게 하여 혁명선렬들에 대한 후대들의 마음속에 간직된 끝없는 공감의 마음을 확인하자면 투사들이 아닌 3자의 확인이 필요하였다. 더우기 무한히 고결하고 아름답고 숭고한 주인공의 삶을 반증확인하며 동시에 두 시대의 대변자로 사는 인물을 설정하는것은 투사들의 녀이 오늘도 어떻게 살고동치는가를 보여주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형상적 위치이며 작품생리의 엄격한 요구이다.

작품은 이런 형상적요구로부터 정신화라는 인물을 설정하였으며 그를 주인공과 뿔뿔해야 뿔수 없는 연고관계의 인물로, 동시에 정옥과 뿔연적으로 뿔결되게 되는 인물이면서도 의의있는 형상적뿔을 가진 개성적인뿔로 등장시켰다.

항일혁명선렬들의 영생의 삶을 확인함에 있어서 본의아니게 혁명대오에서 리탈되었던 정선화를 주인공의 최후앞에서 량심의 가책을 받아안고 한생을 투사의 뒤편에 속죄의 마음으로 살아오게 한 인물로 등장시킨것은 실로 이 작품의 중요한 발견이 아닐수 없다. 소설은 이 세 인물을 기둥으로 하여 그들을 둘러싼 각이한 계급과 계층, 다양한 혈친관계와 적아관계 등 인물관계를 맺어줌으로써 작품의 견인력을 한층 강화하고 형상의 폭을 넓히면서도 립체적이고 조형적인 구성미를 보장할수 있었다.

소설의 성과는 인물관계의 새로운 설정과 함께 작품의 형상적견인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한 극적감흥과 예술적흥미를 돋구어주는 구성형식도 적극 탐구리용한것이다.

엮잇 보면 소설은 회상식구성형식갈기도 하고 취재식구성형식갈기도 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두 형식을 결합하면서도 정옥이가 어머니에 대하여 이미 알고있는 자료에 대한 추억과 정선화에 의하여 씌여진 실화사이의 교차속에 주인공의 생활이 흘러가고있으며 동시에 주인공의 생활과 정옥의 생활 즉 항일무장투쟁시기와 오늘의 현실이 함께 병행되고있다. 다시말하여 병행교차의 수법으로 회상과 사람을 찾는 과정을 밀접히 결합하는 독특한 구성형식을 리용하고있다. 이 구성형식을 보면 어딘가 복잡하게 보여 창작에서 인위적인 기교를 부린것이 아닌가고 생각될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작품의 엄격한 요구이다.

모든 문학형상의 수단이나 요소들이 다 그러하지만 구성형식도 작품생리의 요구를 따른다.

주인공의 산 생활과 산 녀를 보여주어야 할 종자의 요구는 필연적으로 주인공을 둘러싼 정옥과 정선화의 시점을 필요로 하였으며 항일혁명투쟁시기와 오늘을 결합시켜 보여줄것을 제기하였다.

예술적흥미를 보장하기 위한 구성형식의 탐구에서 정옥의 형상적뒹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예술적흥미라고 하여 종자의 요구밖에서도 활용되고 존재할수 있는 특수한 형상의 산물이 될수 없으며 그것은 오히려 작품의 견인력을 상실시킨다. 작품의 사상성과 예술성이 통일되어있듯이 작품의 형상세계에 대한 독자들의 감명과 흥미도 통일되어있다.

소설에서는 작품생리의 요구에 따라 흥미있는 극적구성을 조직화하기 위하여 정옥의 시점을 중심으로 형상적화폭을 펼쳐나갔다. 그러면서도 정옥을 형상적화폭을 펼치기 위한 순수 전달자적인 시점인물로 고착시킨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고귀한 삶의 투쟁내용을 깊이있게 알아내기 위하여 노력

하는 인물로 설정함으로써 이야기발전에 더 큰 기대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정옥을 체험인물로만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실화를 써보낸, 자기를 숨기려는 사람을 찾는 인물로 그 형상적뒹을 배가시킨것은 작품의 형상적화폭을 자유자재로 펼치면서도 이야기를 집중집약화하여 시종일관 극적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작품의 세계에 심취될수 있게 한 요점으로 된다.

소설의 성과는 생동한 묘사와 언어구사로 인상깊은 형상적감흥을 적극 살려내고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소설의 묘사들은 회화적이면서도 감각적이며 시각적이다. 창바이(장백)땅의 어느 한 려인속에서 주인공과 헤어진 선화가 그가 있을 려인속쪽을 바라보는 장면에 대한 묘사문을 실례들어 보기로 하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뽕얀 눈의 장막뿐이었다. 눈바람은 우우 노한 소리를 지르며 룡트림을 하듯 눈가루를 하늘공중으로 말아올리기도 하고 와우— 와우— 산언덕으로 치달아오르는가 하면 잎없는 앙상한 나무가지들을 와지끈 툇 꺾어 내던지기도 하면서 미친듯이 날뛰고있었다.

여기저기서 눈갈기가 뽕처럼 기여다녔다.》

여기서 보면 마치 사나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광막한 들의 광경을 맞보는듯싶다.

특히 《우우》, 《와우— 와우—》, 《와지끈 툇》하는 표현들과 《 룡트림을 하듯 눈가루를 하늘공중으로 말아올리기도 하》며 《눈갈기가 뽕처럼 기여다녔다.》는 표현들이 주는 감각적이며 시각적인 광경들은 묘사의 회화적생동성을 방불히 보여주면서 강한 형상적여운을 준다.

특히 소설의 언어구사는 매우 박력있어 지루감을 주지 않는다.

그것은 주로 소설의 언어문장이 매우 짧으면서도 우에서 보는바와 같이 회화적이어서 정서적감흥을 련상시켜주는것과 관련된다.

이밖에도 소설은 특색있는 인물들의 성격과 갈등의 조직, 이야기줄거리의 주선과 부선의 특색있는 결합, 인상깊은 세부의 탐구 등 우수한 창조경험을 보여준다.

장편소설 《잠들지 않는 녀》은 오늘 백두의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따라 신심과 락관에 넘쳐 강성번영의 미래를 앞당겨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크나큰 정신적량식을 준 작품이다.

백두의 녀는 오늘도 살아 우리의 심장속에 삶의 숨결을 더해주며 힘차게 맥박치고있다.

영원한 동행자의 발걸음

작가, 그 부름은...

김 만 영

조용히 책상에 마주앉아
하얀 원고지위에 붓을 세울 때면
가슴을 치는 생각
우리가 제 손으로 이 붓을 쥐었던가

눈시울 적시며 새겨보노라
수령님품에서 태어난 주체문학의 붓대
세기의 언덕을 넘어오며
우리 장군님 이 붓대와 함께
작가들의 심장에 새겨주신 그 부름

—당의 친솔부대
영원한 동행자
선군혁명동지
시대의 대변자
...

간고하고 시련에 찬 혁명의 길에서
언제나 우리 작가들을
자신의 곁에 가까이 두고
살불이처럼 아끼시며
이 세상 가장 큰 믿음을 안겨주신 장군님

인류문학사의 갈피를 더듬어보면
갈길 몰라 번민하고 방황한 작가들
형형색색의 어지러운 사조들은 많았어도
자애로운 아버지의 사랑속에 꽃피난
우리 주체문학의 화원에는
단 하나의 잡초도 자란적 없었나니

그래서 붓을 쥐고 창작의 사색을 펼칠 때면
그분의 따스한 체온
그분의 빛나는 예지
이 가슴에 샘줄기처럼 흘러넘쳐
심장은 세차게 고동치고
붓대에선 삶과 투쟁의 노래가 울려나오거니

오, 붓이여

네가 새겨안은 글발은
혁명이란 기관차에 마를줄 모르는 윤활유
천만군민의 가슴에 힘과 용기를 백배해주는
정신적량식이며 타끓는 용암

수령님품속에
작가대오가 태어나 장장 65년
사나운 광풍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주체문학의 년륜만을 새겨온 그 나날
우리 작가들은 불변의 철리를
심장으로 절감하였나니

수령의 사상을 생명으로 간직한 붓대만이
진리의 글발을 새기고
위대한 령도자의 품에 안긴 작가만이
진정한 문학의 길을 걸을수 있다는것을

고마워라
어제날 풀대처럼 연약했던 붓을
백두산붓대로 억세게 버리어
우리의 손에 쥐여준 위대한 스승이시여
언제나 우리를 손잡아 이끌어
시대의 선도자로 내세워준 위대한 어버이이시여

수령님탄생 100돐을 앞둔
가슴벅찬 시대의 령마루에서
자랑스러운 65년을 안고
휘황한 미래를 마중가며
값높은 부름을 심장으로 웨치노라

작가
이는 시대의 기수
세월이 흘러 세기가 바뀌고
지구가 열백번 변한다 해도
수령님과 장군님의 뜻으로
시대를 선도해가는
위대한 선군혁명의 전위투사여라

별 무 리 흐 르 는 밤 에

황 명 성

고요한 밤하늘 가득히
못 잊을 추억을 부르며 흐르는
별무리 별무리...

이밤따라 유난히 반짝이는 별들이
해방된 이 땅에서 우리 작가들
아버이수령님 품에 안긴
10월의 그밤에도 너는 흘렀지

너 속삭여다오
혁명적인 소설은 금보다 훨씬 값있다고
작가들은 귀중한 나라의 보배들이라고
사랑의 꽃방석에 앉혀주신 아버이의 그 은정

깊은 밤 돌보기를 끼시고
소설의 굴죽우에 심원한 사색을 엮으시던
거룩한 그 영상 못 견디게
아, 못 견디게 그리워

가슴에 젖어오누나
나라가 첫걸음 떼던 건국의 봄
작가들에게 보내주신
옥백이가마니에 열굴 묻고
걱정의 눈물 쏟던 그 흐느낌이...

산 좋고 물 맑은 호수가에
휴양각처럼 창작실을 지어주시고

때로는 우리 작가들에게
빨찌산시절의 전투담도 들려주시던
우리 수령님

새 소설이 나오면 제일 기뻐하시며
언제나 첫 독자가 되어주신분
현지지도의 먼길 떠나실 때도
부피두터운 소설책이 승용차에 실렸더라
달리는 차창엔 록음된 소설이 울렸더라

정녕 세월이 흘러도 잊을수 없는
자애로운 아버지 그 모습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작가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사향가》를 부르시던 그 영상이여!

이밤도 내 굴죽을 더듬는 원고지우에
그날의 별무리가 내려앉아
더더욱 그리워지는 수령님
위대한 스승의 품에서
주체문학의 화원은 꽃폈나니

오, 태양의 빛으로 눈부신 별무리 별무리
수령님 그 사랑 가슴벅차게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파사로온 품속에서
작품도 작가의 삶도
별처럼 빛을 뿌리고있구나!

어 머 님 주 신 붓 대

한 광 춘

붓을 들고 그 몇만리
세월은 흘러흘러가도
더더욱 못 잊는 어머니 생각
수령송가로 우리의 첫걸음을 떼여주시던
아, 김정숙어머니의 그 모습

오늘도 이 가슴에 울러오누나
백두광야를 생각깊이 더듬으시며
어머니 들려주신 수령님 이야기
장백산 줄기줄기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옥자옥의 그 이야기

수령님 안겨주신 붓대에
어머니 실어주신 숭고한 뜻이여
한구절 한구절
어머니의 그 뜻을 안고 태어난
《김일성장군의 노래》여

오, 태양을 우러러
우리의 붓대를 세워주신 어머니
오늘도 그 손길로
오직 그 한길에
우리의 삶을 세워주신 어머니

그리워라
철령에 만발한 철쭉꽃 송이송이
어머니의 그 미소가 피운 봄꽃이런가
전선길 천리 또 천리를 가도
어머니의 그 마음이 가슴에 새겨지더라

장군님을 따르고따르는
전선길 자옥자옥
어머니는 그날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라
친위전사의 뜨거운 그 숨결로
걸음걸음 우리 심장을 덥혀주시여라

세대를 이어
장군님 따라온 길도
세기와 세기를 이어
위대한 당을 받들어가야 할 길도
어머님 떼여주신 그 첫걸음으로 우리 가리니

아, 노래의 천만리
조선혁명의 천만리
우리와 함께 가시는 어머님
수령송가의 영원한 붓대를
우리에게 주시었어라!

그 손길 잡고 내 걸어왔노라

백 하

이 땅 그 어데 가나
강산에 울리는 노래소리
조용히 귀기울이면
못 잊을 사연들을 끝없이 속삭이며
뜨거이 뜨거이 이 가슴 흔들여라

이름없는 시인의 숨결이 어린
한편의 노래를 들어주시고
따뜻이 품어주신 우리 장군님
꿈같은 믿음을 주시었노라

한생의 소원으로 붓을 들었건만
노래의 참뜻 다 알았던가
사랑을 다해 정을 다해 키워주신
장군님 그 품에서
시인의 첫걸음을 떼었노라

순간에 온녋을 틀어잡는
비범한 예지의 그 빛발
무한한 서정의 세계를 밝게 비쳐
속도전으로 뚫는 조국땅에
우리가 지은 노래 진군가로 울려주시었노라

조국수호의 준엄한 나날
우리를 최고사령부의 종군시인으로
자신의 곁에 세워주실 때
우리 얼마나 끝없는 행복에 휩싸여
한자한자 뚫는 피로 시를 썼던가

한걸음에 새 역사를 펼치시고
한자욱에 세기를 주름잡는
천출위인의 그 업적
내 온 세상에 전하러
정일봉의 눈비를 맞고 또 맞았노라
성지의 흰눈우에서 가사의 구절구절 새기여
삼가 심장의 노래를 드렸노라

전선길 달리시는 장군님
그 노래 기쁘게 들으시고
반미대결전의 온 전선에
장쾌하게 가슴후련하게
선군의 우뢰소리로 터쳐주셨나니

온 행성을 뒤흔들었노라
그 우뢰소리 우뢰소리
노래로 천만의 심장에 승리의 신심 안겨주고
백두의 총대와 투쟁의 노래로
장엄한 선군시대를 열어놓으신
백두령장의 그 위대한 령도여
누리에 빛나는 그 불멸의 업적이어

오, 음악정치의 위대한 스승이신
김정일장군님
그 손길 잡고 내 걸어왔노라
심장의 붉은 피 방울방울 기울여
위대한 태양의 노래를 부르고부르리라

생 의 메 아 리

신 문 경

우리 당 붉은 기폭에 안겨
별처럼 빛나는 모습들은 그 얼마
우리 붓대의 대오속엔
전설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나니

뜨락의 배나무가지우에서
류달리 까치가 울던 어느 아침
안해와 아들은 받아안았다

남편의 이름 또렷한 작품집
아버지의 위훈이 비낀 훈장을

두터운 소설의 갈피갈피
피터운 그의 숨결이 흐르고
번쩍이는 훈장엔
젊은 종군작가의 모습이 비껴있었다

오랜 세월 생사조차 알길 없어
이름도 얼굴도 작품도
기억속에 사라져가던 작가는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거니
오, 이것은 꿈이 아니었어라
전설도 아니었어라

등사기로 마지막선전물을 찍어낼무렵
지리산빨찌산의 천막은
놈들의 포위속에 들었다

원썩들이 한치한치 다가드는 그 순간
그는 수류탄을 뽑아들었다
배낭속엔 못다 쓴 소설원고
최후를 알 사람도 없었다

허나 자기 생을
미완성으로 남길수 없었나니
조국앞에 다 부르지 못한 삶의 노래
그는 **김일성**장군 만세에 답아
수류탄폭음으로 터쳤다

그날의 퇴성은 산천에 찾아들고
혈육들의 마음속에선
한가닥 희망도 사라져가고
함께 붓을 들었던 벗들마저
그가 쓴 소설들을 하나둘 잊어가던
그 수십년세월

오직 한분 우리 장군님만은
그의 생의 메아리를 듣고계시었다
세월의 이끼를 헤치고 또 헤쳐
그의 고귀한 인생
그가 부른 노래를
시대앞에 값높이 내세워주시었나니

누가 시켜서는 부를수 없는 노래
심장으로 부르는 우리 장군님 노래
단두대우에 올라선대도
우리 어찌 그 노래를 멈추랴
운명을 지켜주는 그 품에 안겨있기에
이 세상 한끝에 홀로 서있다 해도
우리 생의 메아리는 영원히 울려가리라

못 잊을 새벽

김 석 천

하늘가 멀리 동이 터오니
가슴은 젖어드누나
전선길의 새벽 3시...
우리들이 올린 작품들에 밑줄을 그으시며
장군님 지새셨던 그 새벽이 어려와

어이 알랴 못 잊을 그 새벽처럼
그이 보아주신 사연깊은 시들
이 아침 신문에 실려 집집에 찾아올지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다듬어주신 가사들
명곡에 담겨 출근길에 울려퍼질지

뜨거운 생각속에 안아보는 새벽이여
우리 작가들을 위해
장군님 바쳐오신 로고의 시간들이
저 새벽하늘에 다 비껴있는듯싶구나

꿈결엔들 잊으랴
준엄했던 고난의 나날
우리 당이 아끼는 작가들 생각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최고사령부창가에 올리던 절절한 그 음성
전선으로 달리는 야전차에서
작가들의 휴양명단을 친히 짜주신 그 사랑을

세월이 간들 잊으랴
버럭처럼 묻혀질번 했던 인생도
동행자의 길에 다시 세워준
아버이의 그 믿음이 고마워
시인이 목메여 터친 심장의 그 웨침
—어머니! 어머니없인 나는 못살아
장군님품을 떠나 우린 못살아!

한사람한사람 우리 작가들을 두고
그리도 마음쓰신 우리 장군님
그렇게 지새우신 새벽과 새벽들에서
시대를 짧게 하는 명작들이 태어났나니

이 땅의 해와 달
낮과 밤은 쉬임없이 흘러도
가지 않아랴
우리 심장속에 간직된
위대한 사랑과 헌신의 그 새벽들은

복반은 작가의 삶과 운명이
어떻게 빛나는지
우리의 가슴에
인민의 심장속에 뜨겁게 새겨주며
동이 트누나
선군조국에 새아침이 밝아오누나

사 랑 의 취 재 차 달 리 네

리 명 옥

유정히도 맑은 가을하늘아래로
사랑의 취재차 달린다
구수한 낱알향기 흐르는 들판을 지나
푸른 산 넘어넘어
들끓는 대고조전투장으로 달린다

산새도 따라서네
물새도 따라서네
장군님 보내주신 취재차를 타고
통림으로 북방의 철의 기지로 달리는
우리 여성작가들을

아, 장군님 자옥파라 가고갈수록
뜨거웁에 젖어드는 마음이어
길 떠나는 너인은
문턱을 넘어설 때부터 집걱정이라지만
우리 여성작가들 마음도 가벼이
천리길을 간다 밝게 웃으며

해빛 눈부신 차창가엔 어려오누나
탄전을 찾아 방목지를 찾아
가정을 뒤에 두고 먼길 가는 여성작가들의 마음
그리도 속깊이 헤아려주신
자애깊은 아버지의 그 모습이

금시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아라
철따라 안겨주신 새옷이 몸에 꼭 맞는가
전기밥가마에 밥이 잘되는가

우 리 는 오 직 한 길 만 간 다

류 동 호

그 누가 다 알고 가던가
떨고면 세상길
고개는 그 몇몇이고 갈래길은 또 얼마인지
허나 우리 걸어온 길 뒤돌아보면
당을 따라온 오직 그 한길

행복한 추억이여라
우리를 동행자라 불러주신 그 믿음을
신념의 기둥으로 세우고 장군님 따라온 천만리에
우리 삶의 자옥도 새겨져있다는것이
참된 뜻에 살고 정에 사는
우리의 값높은 한생이 다 비껴있다는것이

그 한결음한결음
그 어떤 동란과 유혹에도 흔들림 있었던가
사회주의붉은기를 잃은 작가들이
길을 잃고 헤매일 때
우리 삶의 표대를 더욱 역세게 세워주신 장군님

우리 다 알고 따랐더니

아버지되시여
딸에게 물으시는 다정한 그 음성이

그렇더라
너인이 없는 집은 빈집같다 하지만
우리 여성작가들의 집에는
한 너인의 정으로는 다 가닿을수 없는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넘쳐흐르거니

그 어디에 있으랴
우리처럼 복받은 삶이
나라에 기쁜 일 좋은 일이 있어도
몸가까이 불러주시고
명절이면 사랑의 선물도 아름가득 안겨주며
붓대의 꽃으로
시대의 앞장에 내세워주시는 장군님

그 사랑에 떠받들려 취재차는 달린다
자식들 키우고 한 가정을 돌보며
손엔 붓을 든 여성작가들
창작의 나래 마음껏 펼치고 간다

아, 어서 가자 취재차야
지금도 우리앞엔 장군님야전차가 달리고있다
인민의 행복위해 먼길 가는 아버지
붓을 들고 따라선 딸들
꽃들도 부러워 망울 터치고
산천도 반기여 설레이여라

그이 넘으신 사생결단의 그 고비들을
야전철차를 집으로 삼고 이어가신 강행군길에서
천만고생을 다 겪으시는 그이께
우린 그저 소박한 시가에 마음을 담아드렸을뿐
인데
작가들은 나에게 힘을 준 선군혁명동지라
뜨겁게 안아주신 우리 아버지

어이 있으랴
수십년세월 하루같이
끈은길도 헛디딜세라 보살펴주신 그 눈빛
진철길에 주저앉을세라 이끌어주신 그 손길

그 사랑 있으면 한결음도 못 가
그 믿음 없으면 한순간도 못살아
선군혁명의 한길에 남긴 그 자옥은
우리 삶의 자서전
우리 붓대의 주제가 **김정일**장군찬가

한번 안아 품어주시면

삶과 운명을 끝까지 책임져주고
한생을 빛내주시는 장군님
그 손 잡고 걸음걸음 따라온 길엔
단 한치의 갈래길도 없어야

백발의 작가도 젊은 작가들도
그 품에 숨결을 잇고
운명도 미래도 의탁하고 받들며
참된 인생의 진리를 알았노라
우리 당의 위대한 력사속에
작가의 한생도 새겨져 빛나야 한다는것을

우리는 조국앞에 후손들앞에
장군님 따라온 길 땀뿜하게 추억하노라
위대한 당을 따라
강성국가의 봄언덕을 향해가는 승리의 길
우리 자랑차게 웨치노라

오,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

장군님 불러주신 그 이름은
칼날우에서도 꺾이지 않을
불대의 지성이며 량심
우리 작가들의 억척같은 삶의 근본

넓고넓은 이 행성에
길을 가리키는 이정표는 많다 하라
하나 우리 삶의 좌표는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장군님 따르는 오직 한길
그 길 떠나 갈길은 이 땅에 없고
그 품 떠나 찾는 행복 이 세상엔 없노라

아, 우리는 인생길을 알고 간다
장군님을 받들어 천만리
당을 따라서 천만리
선군조선의 무궁창창한 미래를 가리키는
오직 하나 불변의 이정표따라
하늘땅 끝까지 동행자의 한길만 가고가리라!

나는 봉화리의 교단에 서있다

조 성 찬

별빛같은 눈동자를 마주하고
오늘도 교단에 서니
승엄히 안겨오는 마음의 교단
나는 봉화리의 교단에 서있다

교단에 선 첫날부터
늘 가슴에 안고산 봉화리
내 언제 그 어느때나
잊어본적 없는 추녀낫은 교정이어!

매일같이 안고사는 교단이어도
눈들어 우러르면
지원의 뜻 가르쳐주시던
김형직선생님의 모습이 어려와

선생님은 그 어디선가
나의 모습 대견히 지켜보시는듯
강의가 끝나면 참 잘했다고
크나큰 고무도 해주시는듯

선생님 서계시던
봉화리의 교단은 높지 않아도
지원의 큰뜻이 뜨겁게 어려
내 한생 지켜갈 마음의 교단이어

그 뜻을 가슴에 지니고
부강조국의 미래를 키워가는
나의 교단은
그 얼마나 높은것인가

나는 봉화리의 교단에 서있다
천년만년을 부강할
내 조국의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
이 교단을 내릴수 없거니

아, 마음의 교단
봉화리의 교단이어!

상식

◦ 어느 한 나라 과학자들은 자외선을 막는 나노박막을 개발하였다.

나노기술에 의하여 만들어낸 이 박막은 유물을 비롯한 영구보존물의 변질을 매우 효과적으로 막을수 있다.

◦ 어느 한 나라 과학자들이 옷이나 물건에 묻은 하나의 침방울흔적에서 유전자를 분석해내고 그것을 증가변화시켜 련관된 여러개의 유전자를 얻어내는데 성공하였다. 이것은 하나의 침방울흔적을 가지고도 그 사람의 모상을 쉽게 알아

낼수 있게 한다고 한다.

◦ 어느 한 나라 과학자들이 가열기를 첨부한 랭동기를 만들어냈다. 출근할 때 음식을 랭동기에 넣은 후 일터에서 휴대용전화기로 랭동기에 지령을 주면 랭동기는 가열기로 전환되어 주인이 돌아오면 더운 음식을 대접한다.

두개의 칸으로 되어있는 이 랭동기는 매 칸이 가열도 랭동도 할수 있으며 한칸이 랭동되면 다른 칸은 가열기로도 된다. 또 요구에 따라 두칸을 동시에 가열도 랭동도 할수있게 되어있다.



흰눈의 광야에서

조인영

1

휘익— 흰눈의 광야에 설한풍이 휘몰아쳤다.
사철 푸른 바늘잎나무림은 흰눈의 세계와 그우
에 가없이 펼쳐진 푸르청청한 하늘과 강한 색조의
대조를 이루고있었다.

수림은 누리를 쫓쫓 얼구어버린 찬바람에 모질
게 부대끼우며 신음이라도 하듯 좌— 좌— 설레이
며 뒤채기였다.

짧은 겨울해가 떨어지자 사위에는 어둠이 들이
닥쳤다.

흰눈에 반쯤 묻힌 추녀앉은 귀틀집에서 소부대
책임자인 최일벽은 식량공작 나간 대원들을 기다
리며 며칠째 잠 못이루고있었다.

소부대 부책임자인 강학준이네 조는 성공하고
돌아왔으나 다른 조는 아직 소식이 없었다.

강학준이네는 식량을 무겁게 지고오던중 적들의
추격에 걸려 3일째나 밀림속을 헤치다가 드디
여 놈들을 따돌린 뒤 무사히 밀영으로 돌아올수
있었다. 지칠대로 지친 두명의 조원들은 짐을 벗
어놓기 바쁘게 녹초가 되어 쓰러졌다.

학준이도 몸을 가눌수없이 피곤했지만 최일벽이
와 함께 밤깊도록 백봉기네가 올 때를 기다리다가
자정이 깊어서야 잠시 눈을 붙이었다. 살이 죄다
빠져 훌쩍하게 패인 학준이의 두볼은 얼어서 퍼릿
퍼릿했는데 조각칼로 다스린듯 날카롭게 솟은 코
마루만은 모두숨을 쉴 때에조차도 까딱 움직이지
않았다. 강인한 성품이 그대로 내비낀 학준의 잠
든 얼굴에 느슨한 미소가 어리곤 했다.

임무를 수행한 안도의 마음이 어린것이였다.
새벽을 앞둔 깊은 밤이였다.

강학준은 가물가물 흐려지는 혼몽상태에서 헤매
였다. 갑자기 나들문이 여닫기며 눈가루 섞인 찬
바람이 획— 날려들어 얼굴을 선뜩하게 식히였다.

하나 학준은 정신을 차릴수가 없었다.

꿈인지 생시인지 알수 없는 잠결에 그는 누군가
의 입에서 조심스레 튀어나온 딸애와 안해의 이름
을 들었다. 그것은 머나먼 미지의 세계에서 들려
오는듯 한 소리였다. 두런두런 주고받는 말소리가
귀전을 간지럽히자 학준은 잠시후에 눈을 뜨며 웃
몸을 일으키였다.

그제서야 그는 백봉기네 식량공작조가 모두 돌
아온것을 띄어보고 반갑게 손들을 잡아주었다.

그런데 그들은 왜서인지 침중한 얼굴로 학준을
마주보면서 힘겹게 미소를 지어보이는것이였다.

학준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무슨 일일까?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쩌서 최일벽책임자마저도 입다물고
침울해있는것일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학준의 의문이 풀릴 사이도 없이 밖에서 인기척
이 났다. 야간보초를 서던 대원이 다급히 문을 열
더니 정체를 알수 없는 사람이 보초막가까이에 와
서 쓰러졌다고 보고하였다.

바짝 긴장한 강학준은 최일벽을 뒤따라 나갔다.
흑한속에서 밤새껏 해매인양 기력이 진한 사람
은 다름아닌 사령부의 통신원이였다.

오매에도 기다리던 사령부의 연락선이 드디어
와당자 밀영은 명절마냥 설레이였다.

귀틀집에 들어와 한참만어야 눈을 뜬 통신원은
빙 둘러선 소부대성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띄어
보더니 《다 무사했구만.》 하고는 미소를 머금
었다.

《사령관동지께서 건강하십니까?》

강학준의 절절한 물음에 통신원은 웃몸을 일으
키면서 《건강하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통신원은 한숨 돌리고나서 뒤를 이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최일벽동지와 강학준동지

를 비롯한 이곳 소부대성원들의 안부를 녀려하시었습니다. 그이께서는 동지들이 심산속에서 고생하면서도 밀영을 지키면서 사령부로부터의 연락을 고대하고있을것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강학준은 통신원의 말에 가슴이 후터워졌다.

사령관동지께서 자기들의 안부를 물어주시었다니 무한한 행복감에 심장이 뛴뛰었다.

통신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뒤를 이었다.

《사령관동지의 관심은 동무들뿐만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닿아있습니다. 일전에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동무들의 혈육들을 놔들이 노린다고 하시면서 적구로 나가는 소조성원들은 현지의 지하조직과 연계하여 유격대가족들이 화를 당하지 않게 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장군님께서요?!》

학준은 후터운 감격과 행복을 느끼며 통신원의 두손을 뜨겁게 감싸쥐었다. 그리고는 눈길을 들어 최일벽과 동무들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순간 학준은 놀랐다. 피로움을 참는듯 입술을 짹 깨물고있는 최일벽이며 흡사 잘못이라도 저지른듯 고개를 푹 떨군 백봉기네 식량공작조원들의 까닭모를 피로운 인상이 그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자기가 잠에서 깨 깨기 전에 가족에 대하여 무슨 이야기인가를 나누다가 그가 눈을 뜨자 문득 침묵을 지키던 동무들의 모습이 상기되면서 가슴 서늘한 불안이 갈마들었다.

통신원은 방안의 공기를 느끼지 못하는듯 했다.

잠시후 통신원은 조용한 음성으로 사령관동지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얼마전에 국제당에서는 중요한 문건을 중국인 파견원에게 주어서 내보냈는데 여기로 오던중 어데선가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두세명의 소조인원을 내보내여 파견원의 행처를 반드시 알아내며 그가 만일 적들에게 체포되었다면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펴고 회생되었다면 회생경위를 자세히 알아내여 국제당에 정확히 통보 해주어야 한다고 이르시였습니다. 그러되 소조는 강학준동지를 책임지워 내보내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강학준동무를 말입니까?》

최일벽이 얼굴을 번쩍 들면서 물었다.

《그렇습니다.》

학준은 순간 온몸이 불화로처럼 달아올랐다.

사령관동지께서 자기를 믿어 중대한 임무를 맡겨주시었다는 사실이 그를 감동시킨것이였다.

그이를 몸가까이 모시고 만찬을 해쳐오던 신입대원시절 온갖 사랑을 받아오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지났다. 그이께서 한몫의 미시가루를 나눠주시던 일이며 열병에 걸린 자기에게 한장뿐인 담요를 덮어주시고 밤새워 머리맡을 지켜주시던 모습이 삼삼히 어려와 코허리가 시큰해졌다.

이 순간 학준은 사령관동지의 믿음에 숨이 지는 한이 있어도 보답하리라 속다짐하였다.

통신원은 품속에서 돌돌 만 종이를 꺼내여 학준이에게 주었다.

국제당파견원의 행적을 가상한 통로가 그려진 락도였다. 학준은 락도를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학준이와 함께 이 지방 지형에 밝은 신입대원 백봉기가 가게 되었다.

떠나기 전에 최일벽은 왜서인지 백봉기를 따로 불러 무슨 말인지 한동안 해주었다.

통신원은 학준이에게 당부하였다.

《늦어도 열흘내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령관동지께서 소식을 기다리고계십니다.》

《알았습니다. 마음놓으십시오.》

학준은 힘있는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2

새벽에 학준이네는 길을 떠났다.

학준이가 앞장에서 전방을 감시하며 걸었고 백봉기는 뒤따르면서 좌우와 후방을 감시했다.

학준은 개털가죽모자를 푹 눌러쓰고 농민들이 한겨울에 흔히 입는 무명천솜옷을 걸쳤다.

봉기는 입대할 때 입고왔던 목재판로동자들의 겨울작업복차림이였다. 그런데 길을 갈수록 학준은 백봉기가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어느때에는 곧잘 웃고 떠들던 신입대원 백봉기가 어인 일인지 입을 꼭 다문채 자책에 잠긴 모양으로 묵묵히 걷고만 있는것이 아닌가.

장군님께서 주신 임무의 중요성때문에 긴장된 탓일까. 하긴 그럴수도 있었다.

학준이 역시 그이의 명령을 기어이 수행할 결심으로 이따금 가슴이 후두두 뛴뛰곤 하는것이였다.

그는 사령부통신원이 준 쪽지를 펼치여 국제당파견원의 행동로정을 다시금 여겨보았다.

파견원이 들릴수 있는 가장 가까운 주민지로는 고작 100여리밖에 안되는 학준이네 집마음이 짙혀있었다. 거기는 조국광복회 지하조직의 활동이 활발한 지구였다. 국제당파견원들이 이전에도 몇 번인가 거기에 들러 밀영과의 연계를 가진적이 있었다. 강학준이 그 방향을 거슬러 실마리를 찾아 봐야겠다고 봉기에게 말했을 때였다. 봉기가 화들 놀라며 그쪽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했다.

《왜 그러나?》

학준의 의문 실린 물음에 봉기는 우물쭈물했다. 학준의 찌르는듯 한 눈길을 견뎌내지 못한 봉기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우리 식량공작조가 거길 갔다가 그만 적들의 포위에 걸려 허탕을 치고 구사일생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흐느끼듯 말을 삼켜버린 봉기는 지금껏 목새겨온 심중의 괴로움을 터쳐놓고야말았다.) 마을은 한집도 남지 않고 초토화됐습니다.》

《뭐라구?!》

학준은 펄쩍 놀라며 뒤로 돌아섰다.

새벽부터 자기를 피하던 눈길들의 의미가 드디어 깨쳐졌다.

봉기는 눈우에 풀썩 물러앉으며 최일벽이가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던 학준이네 가정의 비극을 떠들떠들 이야기했다.

《우린 식량을 정 구하기 어려우면 집에 들려서 다문 얼마라도 해결해오라던 학준동지의 말이 떠올라 거길 갔됐어요. 그런데 글썽 집터엔 재무지만 남아있었습니다. 나들이 갔다가 살아남은 로인의 말이 유격대와 내통하는 마을이라고 식구들을 모두 집안에 가두어넣고 불태워...》

봉기는 머뭇머뭇 뒤말을 잊지 못했다.

학준은 가슴이 후둑거리고 다리땀이 풀리어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말았다.

컴컴하게 질린 그의 얼굴은 무겁게 굳어졌고 검은 고수머리는 눈바람에 형클어져 마구 훑날렸다. 그의 억센 손아귀는 개털모자를 쥐어짜듯 비틀고 있었다.

문득 4~5년전에 떠난 정든 집, 한여름이면 북숭아나무 한그루가 솜털이 보르르하고 시큼털털한 열매를 맺는 초가집이 못 견디게 눈앞에 떠올랐다. 네살이던 딸애 영이는 그 불썹없는 풋열매를 세상에 더없는 보물이기라도 하듯 눈만 떨어지면 따달라고 발을 구르곤 했다.

그럴 때마다 학준은 여물지도 않은 그 열매를 따서 옷자락에 꼼꼼히 문대여 솜털을 깨끗이 닦아내고는 딸애의 고사리같은 손에 쥐여주곤 했다. 딸애는 너무 좋아서 여물지 않아 씹쌀한 물기가 터져나오는 말랑말랑한 좀복숭아씨까지 오작오작 깨물어먹으며 귀여운 입을 모물거렸다. 그러면 학준은 아버지된 행복감을 가슴 빼근하게 느끼며 그 모양을 오래오래 바라보곤 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딸애 영이를 영영 다시 볼수 없게 되었던 말인가. 그 추녀낫은 초가집이 왜놈들의 토벌에 불타버리고 그 재무지속에 귀여운 딸애와 사랑하는 안해가 묻혀있다는것이다.

모녀가 애타게 구원을 바라고있을 때 자신은 100여리밖의 밀림속에 총들고있으면서도 그 사연

을 감감 몰랐으니 가슴 찢기는 고뇌와 설분을 어데다 헤쳐보일 길이 없었다.

드디어 그는 최일벽이 어찌하여 자기에게 임무 주어 보내는걸 주저했던지 헤아려졌다.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벅찬 비극에 직면하면 어떤 일을 빚어낼지 알수 없는것이다.

이길로 달려가 재무지를 헤집고 혈육의 유해를 찾아내어 안장해주고픈 생각이 굴뚝같이 치솟았다. 하나 그는 다음순간 입술을 깨물며 마음을 다잡았다.

아니야, 이래선 안돼, 지금의 내 모양을 사령관동지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가슴저려하시겠는가, 참자, 참고견디어야 한다.

문득 봉기가 자책에 겨운듯 한 목소리로 말했다.

《학준동지, 용서하십시오. 최일벽동지가 말한대로 끝까지 입을 다물어야 하는건데 그만...》

《무슨 소릴 하나? 내가 나약해질것 같아서?》

학준은 앉은자리에서 불쑥 일어나면서 봉기의 손을 억세게 잡아 일쿠었다.

《어서 가자구.》

학준은 발자욱을 떼면서 《설한풍이 휩쓰는 험한 산중에...》 하고 웅근 목소리로 노래를 떼었다. 봉기도 따라부르면서 걸었다.

얼마쯤 지나 학준이네 집마을로 갈라져들어가는 길어구에 이르렀을 때 이번에는 봉기가 오히려 그쪽으로 가자고 했다. 영이와 영이 어머니의 시신을 찾아내어 안장이라도 해주고 가자는것이였다.

학준이가 도리머리를 저으며 짝어 대답했다.

《우리 임무만을 생각하구요.》

이윽고 그들은 점차 지치기 시작했다. 배낭속에는 뽕뽕 얼어버린 조밥덩어리가 몇개씩 있을뿐이였다.

봉기는 쉬어갔으면 하는 인상이였다. 하나 학준은 웅할수가 없었다. 해는 저무는데 이제 주저앉으면 쉽게 일어날수가 없게 된다.

사령관동지께서 주신 임무를 앞에 두고 어찌 걸음을 늦출수 있으랴.

밀림속에는 어느덧 어둠이 깃들었다. 별도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이였다. 앞을 밝힐 한점의 불빛조차 없었다.

걸어온 시간을 가늠해보니 편락지점어방에 거의 이르렀음직 했다. 이제는 더 가지 말고 날새기를 기다려야 했다.

그들은 아름답리나무아래에 서로 몸을 의지하고 앉아서 교대로 잠간씩 졸았다. 나무우듬지들에 가리워 손바닥만큼 쳐다보이는 밤하늘은 여전히 캄캄했다. 출고 배가 고왔다. 그러나 학준이의 뇌리

를 지배하는건 오직 국제당과전원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그는 살았을가? 아니면 희생되었을가?

살았다면 지금 어디에 있으며 기밀문건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가?...

문득 어데선가 들어본지 오래된 닭울음소리가 모기소리만치 가늘게 들려왔다.

날이 새자 그들은 일어서서 심호흡을 하고 기지개를 켜다.

그리고는 주위를 살살이 눈주어 살피며 연락지점을 찾아 걸었다. 얼마쯤 갔을 때 길손들이 무심히 휘둘러댄듯싶은 도끼에 찍힌 나무 몇대가 눈에 띄었다. 그것은 그들만이 아는 표식이였다. 북동쪽으로 곧바로 5리안팎에 연락지점이 있다는 뜻이였다.

얼마전에 연락지점을 찾아갔던 봉기가 대뜸 화색을 지었다.

한시간을 걸어서야 그들은 낮익은 비밀연락지점에 당도하였다. 송라들이 류달리도 많이 매여달린 가문비나무밑동에 좁전에 본것과 류사하면서도 더 깊숙이 찍어낸 도끼자리가 +자로 나있었다.

학준은 품안에서 꿩다리연필과 손바닥만 한 종이를 꺼내어 접선장소를 적은 뒤 돌돌 말아가지고 두터운 껍질사이에 밀어넣었다.

그리고는 그곳을 감시하기 유리한 장소에 은폐하고 조국광복회 지하조직원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3

《산매》라는 대호를 가진 지하조직원은 오후 세시쯤해서야 나타났다.

봉기는 며칠전 식량공작을 나왔을 때 만났던 그를 대뜸 알아보았다.

쌍대배기립총을 메고 회색두루마기차림을 한 40대 중반의 키가 흰칠한 사나이였다.

예민한 눈길로 주변을 살피면서 폐의 가문비나무계로 다가선 그는 익숙된 숨씨로 나무껍질사이에 밀어넣은 쪽지를 끄집어내었다. 쪽지를 읽어본 그는 거기에 표시된 방향으로 뚱다 달려왔다. 강학준이와 봉기가 나무뒤에서 불쑥 자태를 드러내자 《산매》는 허리치는 눈길을 헤치며 달려오더니 두사람의 발치에 어푸러졌다.

《〈산매〉 동무!》

《학준동무!》

구면인 그들은 반갑게 두팔을 그려잡았다.

봉기도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꾸벅 인사했다.

《산매》가 봉기쪽으로 낮을 돌리며 반색을 했다.

《그래 그날 무사히들 돌아갔소? 우린 적들의

추격에 모두 잘못된줄로만 알았소. 놈들이 마을에다 그렇게 소문을 돌렸던거요.》

《식량은 못 가져갔지만 피해는 없었습니다.》

백봉기가 머주히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도 식량공작이 실패했다는건 예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우리 조직원들이 직접 지고 가자고 토론했는데 이렇게 또 내려왔구만요.》

《산매》가 학준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강학준이 신중한 낮빛으로 내려온 목적을 밝혔다.

《고맙습니다만 이번에 우리의 과업은 식량공작이 아닙니다. 사령관동지께서 국제당과전원의 행방을 정확히 알아낼데 대한 임무를 우리에게 주시였습니다. 혹시 무슨 단서라도 될만 한 소문을 들은게 없습니까?》

《아, 그래요?!》

《산매》는 저으기 난감한 기색을 지으며 잠시 생각을 굴리었다. 그러던 그는 문득 짐작되는바가 하나 있다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치성하(칠성하)부근의 수림속에서 왜놈〈토벌〉대놈들과 조우한 무장인원 한명이 총탄이 다할 때까지 접전을 벌리다가 놈들의 포위에 들자 자폭했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의 말에 의하면 현장에 자폭성원은 형체도 없고 죽어자빠진 놈들의 시체만 너저분했답니다. 급급히 달려온 〈토벌〉대놈들은 겨우 형체를 가려볼수 있는 시체들을 거두어가지고 달아났다고 하더군요.》

적들은 자폭성원이 대단한 인물일수 있다고 떠들면서 현장을 살살이 조사했지만 무슨 흔적이나 단서는 쥐지 못한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문들을 확고히 믿을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전혀 부정할수도 없다고 봅니다.》

《산매》는 애매하게 말을 뱉었다.

학준은 생각이 깊어졌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 부정해야 하는가, 사령부에 보고하여 임무수행을 결속짓는게 어떻게?

학준은 순간 도리머리를 저었다.

사건현장을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여 명백한 과학적근거를 가지고 사령부에 보고해야 한다.

《〈산매〉 동무, 사건현장까지는 거리가 멀니까?》

학준의 물음에 《산매》는 두눈이 휘둥그레졌다.

《거기까지 가자고 그럼니까? 500리길입니다. 왜놈들이 어떻게 깔렸습니까. 위험합니다.》

학준은 강인한 어조로 말했다.

《가야 합니다. 설사 목숨이 위태롭다고 해도 말입니다. 자폭용사가 분명 국제당과전원이라면

그의 장렬한 최후에 대하여 위치라도 정확히 확증하여 사령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는 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국제당파전원이 간 곳을 알아내야 합니다.

사령관동지께서 그때문에 우리를 보내신게 아니겠습니까.》

둘려세울수 없는 학준의 굳센 마음을 읽은 《산매》는 저르기 감동된 어조로 말했다.

《치싱하부근 수림속의 숲구이군들을 만나면 혹시 상세한 이야기를 들을수도 있을겁니다.

자폭현장이 숲가마와 가까웠다는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산매》는 곧 적의 눈길이 덜 미치는 산길로 그곳까지 갈수 있는 락도를 그려주었다.

《곰바위골 숲구이막에 지하조직성원 세명이 있는데 〈창성도투바우〉라는 별명을 가진 숲가마주인을 찾아서 〈《산매》가 문안드립니다.〉라고 하면 반겨줄겁니다.》

《고맙습니다.》

학준은 《산매》에게 인사하면서 봉기에게 얼핏 눈길을 주었다. 그는 허기지고 피곤해서 눈을 겨우 뜨고있었다. 당장이라도 주저앉을듯 한 기색이었다.

《봉기, 어쩐가? 가낼것 같애?》

봉기는 그런 물음을 예견했듯 큰 눈을 꺼벅거리면서 대답하였다.

《함께 명령받고 떠난 길인데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요. 그런데…》

봉기는 잠시 바재이다가 뒤말을 이었다.

《지금처럼 허기져가지고는 더 못 갈것 같애요.》

《그건 나도 같애. 식량을 좀 구해야지.》

학준이가 《산매》쪽으로 얼굴을 돌리면서 말했다.

《그건 넘려마십시오. 우리가 요긴한데 쓰려고 만든 자그마한 감자음이 하나 있습니다. 한배당씩 구워서 지고 떠나시우.》

학준은 그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4

짧은 겨울해가 저버리자 지루하고 캄캄한 밤이 계속되었다. 별자리를 보면서 북동쪽으로 계속 걸었다. 돌덩이처럼 얼어버린 구운 감자를 갈아먹으면서 갔다. 어데선가 굶주린 이리떼가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학준은 봉기의 팔을 끼고 눈길을 헤쳤다.

거친 숨소리가 막을수없이 터져나왔다.

휘청대며 힘겹게 자욱을 떼던 봉기가 기진한듯 가파스로 입을 열었다.

《학준동지, 나때문에 더 맥이 나지요. 내가 짐이 되니…》

《봉기도 통을 곧잘 하는구만. 짐이 된다는건 무슨 소린가. 동무가 있어 내가 여기까지 온게 아닌가.》

《그렇다면…》

봉기는 마음속의 짐을 벗어던진듯 몇걸음을 더 활기있게 내딛다가 기력이 진하여 풀썩 주저앉았다.

학준이도 물러앉았다. 서로 어깨를 맞대고 의지하여 잠간 숨을 돌리었다.

문득 쨍쨍 얼음장 터지는 소리에 깨어났다.

《봉기, 치싱하가 코앞에 있는 모양인데 조금만 더 용기를 내자구.》

《알았습니다. 어서 건자요.》

사흘낮, 사흘밤을 쉬임없이 가고 또 갔다.

…모든 일은 순조롭게 되었다.

떠나서 나흘째 되는 날 이른아침에 그들은 드디어 곰바위골어귀의 숲구이막에 이르렀다.

키가 작달막하고 성미가 무뚝뚝할것 같은 《창성도투바우》가 《산매》가 인사전하더라는 학준의 말을 듣자 대변에 곰살가와졌다.

마마자욱이 듬성듬성 찍혀있고 고열에 그늘어 살갗이 감승감승한 30대의 사나이였다.

숲구이로에서는 한창 불이 이글거리고있었다.

주인이 이끄는대로 집채같은 바위를 의지하여 지은 돌막집에 들어갔다. 구름나무속껍질을 조붓하게 오려서 엮은 노전이 깔려있는 방바닥은 뜨끈했다. 한주일을 헤매다가 따듯한 집이라는뉘틀 들어오니 녹초가 되도록 지쳐버린 심신을 구들우에 던져버리고 내쳐 잠들고만싶어졌다. 하나 학준은 한시가 새로왔다. 그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이 주변에서 자폭으로 왜놈들을 황천에 보냈다는 용사에 대하여 아는대로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창성내기라는 지하조직원은 눈을 크게 뜨면서 놀라와했다.

《그가 혁명군이였는가요? 분명히 우리는 그가 마지막순간에 중국말로 〈세계혁명 만세!〉라고 웨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

그의 말에서 강학준은 신심을 얻으며 성급히 사유를 밝혔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얼마전에 국제당이 보낸 파전원의 행처를 판심하고계십니다. 우리는 그이의 령을 받들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자 창성내기의 인상이 확 달라졌다.
《김장군님께서 관심하신다고요?! 그렇다면 문제가 다르지요. 처음부터 얘기해드리겠습니다.》
학준이가 선채로 조금하듯 말했다.

《미안한대로 현장에 나가서 설명해주십시오.》
《아니, 뭐 좀 요기라도 하고 몸이나 녹인 뒤에 가면 안 됩니까?》

학준은 제먼저 나들문께로 다가갔다.
《한시가 급합니다. 지체할수 없어 그러니다.》
창성내기는 할수없이 학준이와 봉기를 뒤따랐다.
기다란 참나무장대기들을 숲가마에 다져넣고 있던 숲구이군들이 학준이 일행을 흥심없이 여겨 보았다. 얼굴이 시뻘겋게 상기되기도 하고 거뭇게 그을거나 숯검댕이때달질이 되기도 한 그들은 무표정한 태도로 일에 몰두했다.

창성내기가 그들가운데서 두사람을 불러 함께 가자고 했다.

창성내기로부터 용건을 알게 된 두 동료(그들도 지하조직성원이었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왔다.

한참만에 일행은 현장에 이르렀다.
그곳은 참나무와 이갈나무가 듽성듬성 들어선 등성이었는데 오른쪽은 아찔한 낭떠러지이고 그 밑으로는 치성하가 흘렀다. 한겨울이라 꽁꽁 얼어붙은 강우에는 눈이 덮여 길다란 옥양목필을 늘어놓은것 같았다. 가까이 선 나무들에는 잘디잔 파편이 배긴 흔적들이 남아있었다.

강학준은 약 50미터거리에서 당시의 현실을 목격했다는 지하조직원들에게 자폭용사가 섰던 위치를 정확히 대달라고 했다. 세사람은 잠시 손세를 써가며 의견을 모았다.

학준은 창성내기가 가리키는데로 자폭용사가 섰던 동남방향을 향하여 왜놈들과 맞선 심정으로 서보았다. 순간 혁명앞에 지닌 임무의 귀중함을 지켜 낮선 산천에 육탄으로 흘날려버린 이름도 얼굴도 모를 자폭용사의 모습이 어려와 심장이 쿵쿵 흥박을 두드리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왔다.

이윽고 세사람이 흥분하여 그날의 현실을 겨름내기로 서로 보충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며칠전이었다고 한다.
그들이 한창 숲가마에 참나무토막을 쌓아넣고 불을 지르려는데 낮모를 어떤 장대한 사나이가 숲속길에서 급히 내려오고있었다. 척 보매 눈초리가 예리해서인지 보통 범상한 사람 같아보이지 않는 그 사람은 차림에 어울리지 않게 밤색가방을 손에 쥐고있었다.

숲구이군들과 눈길이 마주친 그 사람은 무슨 말인가 걸 심산으로 몇걸음 다가왔는데 바로 그무렵

아래쪽에서 불쑥 한개 분대가량의 왜놈 《토벌》대가 올라오고있었다.

실로 위급한 순간이었다. 왜놈들을 먼저 발견한 그 사람은 비호같이 몸을 날려 아래낭떠러지쪽에 내려가 몸을 숨기었다.

뒤미처 그 사나이를 발견한 왜놈들이 《유격대다. 생포하라!》고 악청을 질러대면서 그가 숨은 낭떠러지쪽에 몰사격을 해대었다.

그도 명중사격으로 왜놈들을 쏘눅혔다.
그러던 그의 총이 잠잠해졌다.

총탄이 다 떨어진 모양이었다. 빈총을 힘껏 던져버린 그가 무게있는 걸음으로 천천히 벼랑우에 올라섰는데 그때에는 그 가방이 보이지 않았다.

적들은 적수공권의 그에게 이리떼처럼 달려들었다.

순간 그는 주머니에서 수류탄을 꺼내어 두손을 높이 쳐들었다. 적들은 잠시 주춤했으나 네놈이 제 죽을줄 모르고 수류탄을 터뜨리랴 하는 생각에서인지 발범발범 죄어들었다.

서로 손이 닿을듯 한 거리에 마주섰을 때였다. 용사는 두손의 수류탄을 발밑에 뿌려던지며 《세계혁명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었다. 순간 화염이 충천하면서 요란한 폭발소리가 밀림을 흔들었다.

그를 에워쌌던 놈들은 모두 피투성이 되어 너부러지고 용사의 육체는 형체도 없이 산산이 휘뿌리워졌다.

그후 한것이 지나서 나타난 왜놈 《토벌》대가 제놈들의 만신창이 된 주검들을 주섬주섬 거두어가면서 애꿎은 숲구이군들을 붙들어놓고 그 사람의 신원을 대라고 행패질을 했다.

적들이 가버린 뒤 조국광복회 조직원이 그 가방에 생각이 미쳐 자폭용사가 피해서 내려갔던 벼랑턱으로 내려가 오래동안 가방을 찾아보았지만 종내 얻어내질 못했다.

그런 가위에 주위사람들이 그 사람이 가방을 메고있던걸 보았다고도 하고 그들중 어떤 사람은 가방을 못 보았다고 하는통에 그도 헛것을 보지 않았는가싶어 다음날에는 더 찾아보기를 단념하고말았다고 한다.

학준은 창성내기마저 기연가미연가한 인상을 짓자 가냘픈 희망의 한귀통이라도 잃은듯 가슴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그는 가방의 존재를 믿고싶었다. 적들을 먼저 발견했던 자폭용사가 부디 벼랑턱으로 내려섰던것은 가방을 감추려 한것이 분명했다.

아니다, 결코 헛것일수 없다.

학준은 그 사람이 운명직전에 적들의 눈을 피하여 어텐가에 감추었을 가방을 찾아내는 길만이 그의 신원을 명백히 할수 있는 길이라고 단정했다.

《봉기, 어떻게 생각하나? 최후의 순간에 〈세계혁명 만세!〉를 웨쳤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서야 어떻게 그가 국제당파견원이라고 장군님께 보고드리겠나. 우린 반드시 물질적인 증거로 될수 있는 가방을 꼭 찾아내야 하네.》

《웁습니다. 찾아봅시다.》

봉기도 학준의 의향에 동감하였다.

가방을 기어이 찾아내고야말 학준이네의 결심을 깨달은 창성내기도 도와나섰다.

강학준은 그들과 함께 벼랑코숭이며 그 절벽에 뿌리박은 참나무와 소나무아지마다에 눈길을 주면서 위태로운 비탈면을 한치한치 오르내렸다.

이틀째나 헛물만 컸다. 사흘째 되는 날도 허탕이었다. 숲구이군들이 손땀을 놓고 주저앉았다. 학준이와 봉기가 또다시 벼랑턱으로 내려서자 창성내기가 숲구이군들에게 하소연했다.

《여보게들, 이 일은 소홀히 대할 일이 아닐세. 김장군님의 명을 받고온 유격대원들이 목숨 위태로운걸 무릅쓰고 벼랑에 내려가는걸 보고 우리가 어찌 수수방관할수 있겠나. 가방이 나질 때까지 함께 찾아보세나.》

그러자 다시 일어나 묵묵히 따라나섰다.

학준은 날새도 오르기 저어할 벼랑턱에 올라 무성한 소나무아지사이를 찬찬히 누벼살피었다.

해저물녘에야 그는 드디어 까마득한 소나무우듬지에 연한 밤색의 물건이 걸려있는것을 보았다.

자폭용사가 위급한 순간에 무성한 소나무우에 올려던진게 분명하였다.

학준은 그 순간 흥분으로 높뛰는 가슴을 진정할길 없었다. 그는 다짜고짜 나무에 오르려 했다.

하나 위태로웠다. 돌벼랑짐에 박혀있는 소나무뿌리는 반쯤 걸음으로 드러나있고 밑에는 천야만 야한 허공인것이였다.

창성내기가 벼랑우에 있는 동료에게 바줄을 내려보내라고 했다. 학준은 바줄을 허리에 매고 나무우로 한치한치 올라갔다. 사람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무는 뿌리직하면서 뿌리 한갈래가 찢기여 벼랑아래로 기울어지며 건들거렸다.

일행은 악 소리를 질렀다.

한치만 더 오르면 그야말로 뿌리가 뽑히여 사람과 나무가 치싱하얼음판에 곤두박힐판이였다. 창성내기가 작은 톱을 올려보내주었다. 학준은 왼손으로 나무를 부여안고 조심조심 톱질을 했다. 바람에 불린 톱밥이 눈에 들어가 못 견디게 깔끈거렸으나 그는 톱질을 계속했다. 중등이 잘리운 우듬지는 가방을 매단채로 절벽아래에 떨어졌다. 학준은 벼랑을 에돌아 강바닥에 내려섰다. 드디어 가방을 손에 든 그는 하늘을 날듯 기뻐다. 화염에

그을고 파편에 굽히기는 했으나 두터운 말가죽으로 정성껏 지은 가방은 반들반들 윤이 돌았다.

벼랑우로 올라온 학준은 가방을 살펴보았다. 가방에는 복잡한 번호자물쇠가 달려있었다.

학준은 유별난 표적이나 생산한 나라명이 찍혀있지 않나 해서 찬찬히 눈여겨보았다.

아무런 자호나 표식도 눈에 띄지 않았다. 가방 뒤면의 아래단을 눈주어 살피던 학준의 두눈이 번쩍 빛났다. 엇가로 놓인 마치고 낫의 모형이 자그마하게 도장찍혀있는것이였다.

학준은 활랑거리는 가슴에 가방을 꼭 그러안으며 잠시 무아경에 잠기였다. 열흘나마 갇은 신고를 겪어온 나날이 헛되지 않았음에 온몸이 그대로 등등 떠서 하늘을 날을듯싶었다.

봉기도 가방을 진귀한 보물인양 가슴에 안고 매만지며 그 신비로운 감각에 어리둥절해했다.

나이 많은 한 숲쟁이가 가방을 살펴보며 웅얼거렸다.

《이상하군그래. 우리가 모두 며칠을 눈부릅뜨고 찾을 땐 안 나지더니 유격대동무들한테는 선듯 자태를 드러내지 않았는가 말이요.》

창성내기가 그의 말을 의미심장하게 받았다.

《유격대동무들이야 김일성장군님의 명을 받고오지 않았소. 그러니 목숨을 내걸고 기어코 찾아낸게 아니겠소.》

학준은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자신은 무엇보다 사령관동지의 믿음과 기대를 직접 안고온 그의 전사가 아닌가.

5

돌아선 길은 홍겹고 걸음도 빨랐다.

장군님의 명령을 기어이 수행했다는 기쁨이 등을 떠밀고 손을 잡아 당겨주었다.

봉기도 사기가 난김에 가슴속 생각을 터놓았다.

《학준동지, 이제는 집자리에 들렀다 가자요.》

불쑥 꺼낸 봉기의 말이 뜨거운 물건으로 학준의 가슴을 훑어내리는듯 저릿하게 했다. 그랬으면 오죽이나 마음이 가벼워지랴. 하지만 학준은 도리를 저울수밖에 없었다.

《봉기, 나라고 왜 재무지에 묻힌 혈육의 유해를 안장해주고싶지 않겠나? 하지만 아직은 안돼. 임무수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네.》

학준은 봉기에게보다 자신에게 뇌이듯 조용히 말했다. 봉기도 더 조르지 못했다.

지름길을 따라 나흘을 내쳐 걸었다.

하루길을 남겨놓고 날이 저물었다.

슬릿슬릿 어둠이 내려퍼는 밀림속 어텐가에서

갑자기 고막을 때리는 총소리가 들렸다.

《손들고 투항하라!》

애놈들이었다.

학준이와 봉기는 반대편으로 갈라지면서 수림속으로 내뿔렸다. 그들은 권총으로 따라오는 적들을 쏘아제끼었다. 학준이의 조준사격에 서너놈이 즉사하거나 나가너부러져 죽는다고 피성을 질렀다.

놈들은 더 따라올념을 못했다.

적들을 따돌리고 깊은 수림속에 들어왔을 때에야 학준은 옆구리에 심한 아픔을 느끼며 쓰러졌다.

반대방향으로 내뿔었던 봉기가 나타난것은 한시간 싹히 지난 뒤였다. 봉기는 다급한 손더듬으로 학준의 상처를 찾아보았다. 속옷이 피에 질박했다. 봉기는 배낭끈을 풀어들어 학준이가 하라는대로 대충 지혈을 시키었다.

학준은 일어나서 걸어보려고 모지를 써보았으나 온몸의 기력이 죄다 빠진듯 걸음을 옮길수 없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적들의 악청이 이따금 들려왔다.

봉기가 학준을 업으려고 잔등을 돌려대었다. 학준이는 두손을 내들며 밀막았다.

《봉기, 명령이요. 이 가방을 가지고 어서 먼저 가요.》

《학준동지! 중상당한 동지를 버리고 어떻게 나 혼자 가랍니까?》

《봉기, 지금은 무엇보다 이 가방이 사령부에 가당도록 해야 해.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면 우린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던것만 못해. 어서!》

학준은 가방을 내들고 가쁜숨을 몰아쉬었다.

《안돼요. 학준동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요 같이 살자고 하지 않았나요. 어서 업히라요. 예!》

봉기는 울었다. 그의 후더운 눈물이 학준의 얼굴에 떨어졌다. 봉기는 학준을 업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학준은 두팔로 밀막으며 버티었다.

학준은 이처럼 각박한 정황속에서 천만마디 말로도 봉기를 설복해낼것 같지 못했다. 어떤 방법으로도 봉기에게 가방을 안겨주어 무사히 떠나보내기만 하면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을것 같았다.

그 순간 학준은 자기에게 믿음을 주어 보내신 아버지장군님의 품이 한없이 그리워졌다. 신입대원시절 그이를 몸가까이 모시고 싸우던 나날의 일들이 가슴에 사무치게 삼삼히 떠올랐다.

...적들의 사면포위속에서 대오는 지칠대로 지쳤다. 신념이 약한 일부 대원들속에서 동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둘러선 대원들앞에서 결연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우리를 따라 혁명을 계속할 자신이 없는 사람은 집으로 가도 좋다. 러비도 주고 길량식도 주겠다. 힘이 약하고 신념이 모자라서 대오를 떠나는 거야 어찌겠는가. 투쟁을 중도반단한데 대해서는 문제시하지 않겠다. 갈 사람은 가라. 그러되 인사는 하고 가라. ...

학준이를 비롯한 대원들은 와— 하고 울음을 터치며 그이의 팔에 매달렸다. 학준은 눈물범벅이된 얼굴로 장군님을 우러르며 아뢰었다.

《우린 장군님품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혁명이 승리하는 날을 못 보고 죽어도 좋으니 장군님곁에서 함께 싸우게 해주십시오.》

장군님께서서는 후더운 품에 학준이와 대원들을 뜨겁게 안아주시였다. ...

한없이 열렬하고도 정차던 장군님의 포옹, 그 시각은 학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였다.

강학준은 가물가물 흐려지는 정신을 가다듬으며 생각했다.

사령관동지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이 학준이를 믿어주셨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혁명을 위해 목숨을 내걸 인간이라고 그이께서 믿어주셨다. 내지금껏 사령부를 멀리 떠나있었어도 그이의 믿음을 받고있었음은 얼마나 큰 행운이였는가.

어서 봉기를 떠나보내야 한다. 하나 그는 나에게 숨이 붙어있는 한 혼자서는 떠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멀지 않은 곳에서 《토벌》대놈들이 불방망이를 들고 학준이네가 싱갱이질하고있는 수림주변을 참빗질하듯 맴돌고있었다. 추위에 몸서리치는 말투레질소리가 가까이서 들려왔다.

학준은 깜박깜박 의식이 희미해지는것을 느꼈다.

눈은 연추를 매단듯 내려감기고 머리속엔 짙은 안개가 들어찬듯 혼몽상태가 지속되였다.

그러나 봉기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하나의 생각만은 명백했다.

그는 가방을 천근무게로 받들어 봉기에게 안겨주면서 정신을 가다듬어 또박또박 뇌이였다.

《봉기, 봉기는 이 가방과 함께 무사히 가당아야 해. 돌아가면 이 학준이가 운명의 순간 사령관동지를 그리며 눈감았다고 전해주요.

아, 장군님이 뵈고싶구만.》

기력이 진할대로 진한 학준은 말끝을 흐리며 흐르시 눈을 감았다.

《학준동지!—》 봉기는 비통함에 젖어 학준의 몸에 더운 눈물을 휘뿌렸다.

놈들의 악청이 어두운 대기를 흔들며 들려왔다.

봉기는 그제서야 더는 지체할수 없다는것을 깨달았는지 흐르는 눈물을 두주먹으로 닦고 일어섰다. 그리고는 깊숙이 눈에 묻히여 옷초리만 드러난 덤불밑 눈을 두손으로 다급히 파헤쳤다. 그리고 파낸 자리의 눈을 뽕뽕 다진 후 거기에 학준을 조심히 들여놓히었다.

주변의 나무가지들을 꺾어 학준을 덮고 그우에 다시 눈을 펴서 흔적을 없앴 뒤 봉기는 울먹이며 뇌이였다.

《학준동지, 내 기어이 임무를 수행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견디여내야 합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럼...》

채 말을 끝맺지 못한 봉기는 이깁나무숲속으로 얼마쯤 들어가 결연히 권총을 뽑아들었다. 놈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쪽을 향해 총을 쏜 봉기는 숲속으로 내달렸다.

《저쪽이다!》

《생포하라!》

놈들이 고아대며 봉기쪽을 향해 우— 밀려갔다. 총소리가 자지러지게 울렸다.

끝없이 펼쳐진 밀림은 그 총소리에 놀란듯 또다시 설레이기 시작하였다.

×

봉기는 밀영의 반대쪽으로 얼마쯤 가서 총소리를 내고는 적들의 주의를 그쪽으로 쏠리자 돌파서서 뱀다 달렸다. 그러다가 또다시 적들에게 꼬리를 물리였다. 사면팔방에서 때없이 나타나군 하는 놈들을 피하느라고 한나절이면 가닿을 길이 몇갑절 늘어났다. 하루밤, 하루낮을 적들의 추격에서 벗어나느라고 허비했다. 적들을 꼬리에 달고서는 절대로 밀영에 들어설수 없다는 원칙을 어기지 않자고 또다시 하루길을 애돌았다. 봉기는 의식을 잃고 눈에 묻혀있는 학준이 생각에 눈물을 삼키며 달리고 또 달렸다.

봉기는 밀영에 이르러 기운을 잃고 쓰러졌다.

그는 최일벽에게 가방을 바치고 명령수행정형을 보고한 뒤 눈물범벅이 된채 절망적으로 뇌이였다.

《정신잃은 학준동지를 눈에 묻고 왔습니다.

이젠... 아마... 으흠, 내가 정말 모진 놈이었습시다.》

최일벽은 명령수행을 위하여 한몫 내댈 학준의 고결한 마음에 가슴뜨거워 귀틀벽을 주먹으로 치며 바닥에 풀썩 물러앉았다.

그러나 잠시후 일벽은 두눈에 눈물을 번뜩이며 벌떡 일어나 대원들에게 말했다.

《그래, 동무들은 학준동무가 희생됐다고 민소?

아니요. 나는 지금껏 강동무의 모든것을 믿어왔지만 죽음만은 못 믿겠소. 갑시다. 가서 그의 희생도 확인하고 희생되었다면 잘 안장해주시요. 이견사령관동지의 뜻이기도 하오.》

어슬어슬 땅거미가 내리고있었다.

최일벽의 소부대성원들은 학준이가 눈에 묻혀있는 곳으로 가고있었다. 봉기는 헉헉 울음 섞인 단숨을 뿔아올렸다. 동지의 운명을 때이르게 단정한것만 같은 자신의 우직스러움이 환멸스러웠다. ...

혜불을 밝혀 학준이 묻혔던 곳을 분명 찾아냈으나 그는 보이지 않았다. 그가 묻혀있던 눈의 봉분은 가뭇없이 사라졌다. 모두 흩어져서 주변을 살살이 누벼살피였다. 봉기가 한 곳에서 피에 물든 붉은 눈자취를 발견하였다. 눈뿌리 아릿하게 자극하는 붉은 피자국은 희미해지면서 밀영쪽으로 멀어져갔다. 일행이 방금 지나온 길에서 초간히 사이를 둔 곳에 학준이가 쓰러져있었다.

아니, 쓰러진것이 아니라 필사의 모지름을 다해 한치한치 밀영 반대쪽으로 기여가고있는것이였다.

그러니 혹시 적들이 발견해도 밀영의 위치를 탄로시키지 않기 위해...

《학준이!》

최일벽이 어푸러지듯 전우의 몸을 덮으며 울먹거렸다. 봉기와 다른 대원들도 부르르 몸을 떨며 다리를 꺾고 앉아 분명 살아움직이는 전우의 몸을 어루다듬었다. 찢찢이 얼어버린 피젖은 솜옷이며 싸늘하게 식어버린 두손, 피기가 가셔진 하얀 얼굴에서마저도 전혀 온기를 느낄수 없었다.

하나 그는 분명 필생의 목표로 삼았던듯 자기 삶의 지향점이 뿌리내려있는 밀영으로 한치한치 움직여가고있었다.

최일벽이 학준을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뿌리며 사나이울음을 터뜨렸다.

《학준이!... 흐흠...》

일벽은 학준을 담가에 눕히고 앞채를 메었다.

뒤채를 멘 봉기도 흐느끼며 걸었다.

얼마후에 정신이 든 학준이가 봉기의 어깨를 다독다독 두드렸다. 임무를 수행했는가고 묻는 뜻이였다.

《학준동지! 걱정마십시오.

우리가 임무를 수행했다는 보고와 함께 가방은 사령관동지께 보내드렸습니다.》

학준은 안도감으로 다시 스르르 눈을 감았다.

×

며칠후 밀영은 류다른 흥분으로 설레이었다.

오 산 덕 의 진 달 래

로 옥 선

5호물동 진달래 붉은 진달래
고이 안고 이 언덕에 오셨습니까
삼지연못가에 불붙던 진달래
아름아름 오늘도 안고계시옵니까

소복소복
오산덕에 흰눈이 쌓이는데
군복입으신 어머니님 우리르니
뜨거이 젖어드는 진달래생각

찬바람 눈서리속에서도
붉은 망울 터뜨리고
그윽한 향기로 맞아준 꽃이어서
어머니 그리도 사랑하시었던가요

조국진군의 봄날 **김일성**장군님
조선의 진달래는 볼수록 아름답다 하실 때

어머니마음속에 조국의 모습으로
소중히 간직된것 아니신가요

밀림을 헤쳐넘어
압록강을 넘고넘어
혈전길 수만리 함께 헤친 진달래
내 나라 해방의 봄빛안고 피였으니

아, 태양의 해발이 되시어
위대한 한생을 불길처럼 살아오신
빨찌산녀장군 어머니의 애국충정
송이송이 어려있는 꽃 진달래

강산은 하얀 눈속에 덮이였어도
어머니 안고계신 붉은 진달래
세월의 언덕을 붉게붉게 물들이는
오산덕은 진달래 웃는 봄언덕입니다

사령부에서 장군님께서 보내신 통신원이 도착한
것이였다.

누워있는 학준에게 다가온 통신원은 뜨겁게 그
의 손을 잡았다.

《학준동무!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는 대원들을 둘러보며 걱정예 찬 어조로
이렇게 덧붙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이번에 이곳 동무들이 큰일
을 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습니다.

가방에는 동방반파쑈련합전선형성과 관련한 중
요문건이 들어있었다고 하시면서 이번에 동무
들이 사령관의 임무를 묵숨 내걸고 수행한데 대
하여 자신의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저에게 위
임하셨습니다.》

《만세!—》

봉기며 대원들이 서로 부둥켜안았다.

학준이도 상반신을 일으켜앉은채 아직 부석부석
한 얼굴에 사나이의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사령부통신원은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학준을
바라보며 다시 말했다.

《그리고 학준동무! 기뻐하시오.

동무의 가족들이 살아있소.

사령관동지께서 왜놈들의 발악적인 〈토벌〉 기
도를 미리 알고 보내신 공작원동무에 의해 동
무네 가족들이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했다고 합

니다.》

《예?!—》

학준은 놀라움에 부르르 옷몸을 떨었다.

《학준동지!》

봉기가 와락 학준의 팔을 부여잡았다. 모두가
뜻하지 않았던 기쁨으로 술렁대였다.

《학준동무! 갑시다.》

장내에 울리는 통신원의 말이였다.

《예?》

《사령관동지께서 부르십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학준동무가 자신의 곁에 와서 치료를 받게 하도록
동무를 데려오라고 이르시였습니다.》

호흡— 종내 학준은 두손에 얼굴을 묻고 울음소
리를 내고야말았다.

최일벽도 그를 바라보며 뜨거움에 두눈을 습벽
이였다.

(아!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의 세계!

우리는 백날, 천날을 살아도 그 깊이를 다 깨치
지 못하겠구나. 장군님!...)

다음날 일행은 사령부를 향해 떠났다.

밀림은 고요하였다.

태양이 떠오르고있었다.

흰눈의 세계가 태양빛에, 붉고붉은 태양빛에 불
그스레 물들기 시작하였다.

태양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있었다.

희곡

인물을 추억하리



김일성상계판인 김홍기
김일성상계판인 서남준

(전호에서 계속)

제 4 장 발전소건설장 입구

1 경

무대: 한쪽에 둔덕길이 나있고 다른 한쪽엔 큰 바위에 반쯤 가리운 소나무가 서있다. 가운데 자그마한 바위가 놓여있고 멀리로는 발전소연제건설장이 보인다.

△무대 밝아지면 청년들이 노래를 부르며 지나간다.

...

노을이 불타는 강반에서 총각은 기타를 타네
길 가던 처녀들 군가를 요청했다네

...

△이윽고 세멘트배낭을 진 산옥 힘겹게 나온다.

△산옥 배낭을 내려놓더니 다 해진 장갑을 배낭 위에 벗어놓고 자그마한 바위에 몸을 맡긴다.

△품속에서 총탄깍지를 꺼내보며 고뇌에 잠기는 산옥.

산옥: 강진이!...

△산옥 총탄깍지를 품속에 넣더니 하늘을 멍하니 바라본다.

△바구니를 든 송희가 나오다가 산옥을 발견하고 살금살금 다가가 눈을 가리운다.

산옥: (송희의 손을 가늠해보더니) 우리 송희구나.

송희: (산옥 품에 안기며)엄마, 내가 보고싶었지? 나도 엄마가 막 보고싶었다- (세멘트배낭을 발견하고) 엉? 이게 뭐야?! 야! 밀가루! (배낭

아구리를 열어보더니) 세멘트로구나.

산옥: (미소짓는다.)

송희: 엄마가 지구 왔다? 엄만 차가 있는데 왜 이런걸 힘들게 지고다니나?

산옥: 저 인덕역에서 하루에 한사람이 얼마큼씩 지나를수 있겠는가 가늠해봐야지?(송희의 얼굴을 보며) 너 식은땀이 난다? 어디 아프니?

송희: 일없어.

산옥: 정말?

송희: 응, 엄마 힘들지?

산옥: 아니. (고개를 젓는다.)

송희: 거짓말... (산옥 무릎에 누우며) 엄마는 힘들어해! 이런 때 아버지가 있으면 엄마일 많이 도와주는건데... 엄마가 가족소대장 할 때 아버지가 밤마다 돼지풀 뜯어주곤 했지.

산옥: (일순 회억에 잠기며) 그래, 그땐 정말 힘든줄 몰랐다. ...

송희: 엄마, 외삼촌 언제 만나나? 나 보고싶네.

산옥: 그래, 빨리 만나자. ... 일어서라.

송희: 엄마무릎 배구있고싶어.

산옥: (엄하게) 어서 일어나서 엄마앞에 서!

송희: (의아하여)엄마?

산옥: (엄하게) 어서!

△송희 주눅이 들어 일어선다.

산옥: 너 행정위원회 량정과장한테 말해서 강냉이를 꺼냈다는게 사실이나?

송희: (시치미를 따고) 아-니.

산옥: 솔직히 대답 못해?

송희: (머리를 끄덕인다.)

산옥: (놀라며) 얼마나 꺼냈니, 얼마나 꺼냈어?

송희: 스무키로...

산옥: (아연해서) 뭐?! 야, 너 지금 건설장에서는 모두들 칠팔리를 씹으며 언제를 쌓고있는데 쪼

꼬만게 비상미에 손을 대? 너 어찌자구 그랬어.
(회초리를 들어 송희의 종아리를 치며) 어찌자구
엄마이름 팔아 그런짓을 했어?

송희: 엄마...

산옥: 말해봐. 그 많은걸 어쨌니? 응? 어쨌어!

송희: 저... 학급동무들한테...

산옥: 거짓말 말아! (송희를 콧 밀쳐버린다.)

△송희 한쪽에 쓰러진다.

송희: (두팔로 벌벌 기며) 정말이야. 경옥이
랑 훑어서 학교에 못 나오는 아이들한테 조금씩...

산옥: 그래 넌?

송희: 난 한알두 안 가졌어. (애절하게) 정말
이야, 엄마...

산옥: (안타까이) 송희야!... 넌 이 엄마가 군의
모든 집들을 돌봐야 할 행정위원장이라는걸 절대
로 잊어서는 안된다. 알겠지? 그래, 요샌 아이들
이 학교에 나오니?

송희: (고개를 끄덕이며) 응... 엄마, 나 정말 배
고파.

산옥: 엄마가 닳새전에 강냉일 보내주지 않았
니. 한끼에 50그램씩으로 계산해두 아직 좀 있겠
는데...

송희: 닳새가 뭐야, 열흘두 지났는데...

산옥: 뭐?! (생각을 더듬다가) 내 정신 봐라. 정
말 그렇구나.

송희: (빠죽거린다.)

산옥: (걱정어린 어조로) 너 그새 뭘 먹구 지
냈니? 응? 송희야.

송희: 엄마, 배고플 때마다 산에 올라갔지 뭐.
엄마, 이것봐. 나 이젠 먹는 나물 다 알아. 산에
가면 (손가락을 꼽으며) 고사리, 고비, 곰취, 등
굴레, 참나물, 벌에 가면 길장구, 미나리, 사라
구, 메썩, 능쟁이...

△산옥 가슴이 저려나는듯 고개를 돌린다.

송희: 엄마, 왜 그래?

산옥: 송희야, (끓어앉으며) 엄마한테 한번 업
혀봐.

송희: 정말? 야—(산옥의 잔등에 업히려다 말고)
됐어. 엄마두 힘든데...

산옥: (일어나 송희를 품에 안으며) 송희야! 우
리 조금만 더 참자! 이제 네가 좋아하는 송편이랑
배불리 먹는 날이 꼭 온다.

송희: 응... (바구니에서 뭔가 꺼내어 산옥에
게 주며) 엄마, 이것 봐.

산옥: 응? 인형이구나.

송희: 엄마야.

산옥: 이게 나야? 비슷해? 호... 우리 송희 손재
간이 많이 늘었는걸, 옷두 곱게 입히구. ...

송희: (인형을 받아 바라보며)엄만 건설장에

서 안 내려오지, 그래서 난 이 엄마하구 밤새껏
말하다 자곤 해.

산옥: (촉한 눈길로 바라보며) 송희야, 오
늘은 엄마가 집에 꼭 내려갈게.

송희: 정말?

산옥: 응.

송희: (손가락을 내밀며) 약속하자.

산옥: 그래, 약속한다. (손가락을 건다.)

송희: (노래조로) 약속 약속 무슨 약속 거짓말
하면 나쁜 사람.

△송희 갑자기 《흑》 하며 돌아선다.

산옥: 왜 그러니? 응?

송희: 거짓말. ... 엄만 오늘두 집에 못 내려와!
하지만 난 엄마가 밋지 않아.

산옥: 송희야.

송희: 엄마.

산옥: 오늘은 꼭 내려갈게.

송희: 정말?

산옥: 응.

송희: 엄마, 그럼 나 먼저 갈래. (나가려다.)

산옥: 송기를 벗길 때 소나무가 죽지 않게 해야 돼.

송희: 다 알아.

산옥: 바지를 좀 올려입으렴.

송희: 바지가 자꾸 내려와. (나간다.)

△산옥 끝없는 모성애에 잠겨 송희 나간쪽을 오
래도록 바라본다.

산옥: (배낭 있는쪽으로 울며 걸어가다가 배
낭뒤주머니에서 흰쌀주머니를 발견하고) 참! (밖
에 대고) 송희야! 송희야!

△송희 다시 나온다.

산옥: (송희에게 주며)송희야, 흰쌀이다.

송희: 야, 쌀!

산옥: 인덕역 역장아바이가 조금 주더구나. 실
은 석태아저씨 주자던건데 네가 먼저 먹어.

송희: 그럼 석태아저씨?

산옥: 엄마가 또 얻어볼게.

송희: 엄마, 엄마가 꼭 내려와야지 밥을 해.

산옥: 그래.

송희: 꼭!

△송희 나간다.

△산옥 눈굽을 찍으며 돌아서는데 박철 급히 나
온다.

박철: 위원장동지, 광천부위원장동지가 어찌
면 이럴수 있습니까.

산옥: 그가 전력공업부에서 돌아왔어요?

박철: 거기엔 가지두 앓구 명산군의 풀판을 돌
아보구 왔답니다.

산옥: 명산군에요?

박철: 그리고도 오히려 전력공업부에다 대구 언

제는 장마철전으로 안되니까 철탑은 가을에 가서 옮겨두 된다고 했었는데 도대체 이럴수 있습니까?

산옥: 뭐예요?

박철: (종이뭉음을 내대며) 이걸 좀 보십시오. 현 상황에선 공사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실태보고입니다.

산옥: (번쩍 고개를 들며) 누가 이런걸 만들었어요? 누가?!

박철: 조갑부위원장이지요. 광천부위원장이 작성하라고 했답니다.

산옥: (혼자소리로) 우리 강진이가요?... 그가 지금 어디 있어요. 내 좀 만나야겠어요. (나가려다.)

박철: 그만두십시오. 우리 라디오온천을 판광지로 꾸린다면 도행정위원회 무역국장을 만나겠다고 떠날 준비 합디다. 도대체! 그럼 전...

△산옥 정신없이 둔덕길로 오르는데 광천 나온다.

△마주서는 산옥과 광천.

광천: (마침이라는듯) 여보 위원장동무, 아래사람들 교양을 잘해야겠소.

박철: 부위원장동지, 내가 못할 말을 했습니까?

광천: 동문 여기까지 또 왔소? (산옥에게) 저 동무한테 들어서 다 알겠구만.

박철: 우린 어떻게 하나 장마철전으로 언제공사를 끝내자는겁니다.

광천: 뭘로 한다는거요, 질통으루? 여보 박부위원장동무, 우리 행정경제일군들은 현실을 랭정하게 볼줄 알아야 돼.

박철: 그래서 실태보고서를 만들라고 했습니까?

광천: 뭘요?

산옥: (바재이다가)박부위원장동무!

박철: 에익!(나간다.)

광천: 저 사람이?! (총탄깅지를 꺼내들고 다 가서는 산옥에게 신경질적으로) 여보 위원장동무, 동무네 아래사람들은 왜 다 저렇소? 저 신통히도 위원장동무를 닮아가는 모양이구만.

산옥: 네?!

광천: 이것 보오. 내 도에 올라가기 전에 한마디만 하기로. 동문 고집이 너무 세! 광차레루문제만 해두 그렇지. 참나무레루가 도대체 몇날이나 견디겠소.

산옥: 끊어지면 다시 만들고 또 끊어지면 열백번을 다시 만들어서라도 해야지요.

광천: 음? 글썄 내가 뭐 큰 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마디 하면 곰상스러운데가 있어야지. 솔직히 동무에 대해 뒤에서 말들이 많아. 왜 부득부득이 어려운 때 큰 공사를 벌려놓고 못살게 구는지 모르겠다고 말ियो.

산옥: 저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행군이요. 설사 우리가 가는 길에 지뢰밭이 놓인

다 해두 곧바로만 가야 하는 신념과 의지의 행군이란 말입니다. 우린 기를 쓰고 언제를 쌓을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발전소언제우에 올라 반드시 승리의 기발을 꽂고야말겁니다!

△이때 두명의 청년들과 함께 나오던 익준 청년들을 내보내고 산옥과 광천의 말을 듣는다.

광천: 뭘루 꽃아? 참나무레루에 광차를 태워서? 이것 보오. 그래서 내 여길 판광지로 꾸리자는거요.

산옥: 또 그 소리입니까? 그럼 쓸어드는 쉬파리와 모기떼는 어떻게 하구요?

광천: 음?

산옥: (엄엄하면서도 단호하게) 우리가 사는 집은 남들처럼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 문만 열면 순간에 그 더러운것들이 덮쳐들텐데 집안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글썄 우리 힘으로 잘살게 되는 그때에 가서야 구데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지금 적들과 단독으로 맞서 치열한 대결전을 벌리고있어요. 령토도 크지 않고 중심도 깊지 못한 우리 나라가 혁명의 원칙을 꺾어버린다면 적들이 바라는대로 된다는걸 모른단 말입니까? 위험합니다!

광천: (큰소리로) 여보! 허... 하하... 이거야 동무하구 겁이 나서 같이 일해내겠소? 좋소. 어서 언젠 썩소. 장마철전까지 고압선이 물에 잠길 정도루 언젠 썩으란 말ियो. 철탑문제는 내가 해결해줘. 어디서...(홀 나간다.)

산옥: 강진아, 네가?!...

△산옥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더니 쓰러지듯 엎어져 오열을 터뜨린다.

△익이 막혀 지켜보는 익준.

익준: (절통한 어조로)참, 기가 막힌 일ियो. 40여년간 애타게 찾던 동생에게 자기 소개조차 못하고있으니... 허지만 내가 누이라구 말이야 왜 한마디 못하오.

산옥: (흐느끼며) 책임비서동지! 저도 인간입니다. 인간이기에 동생을 애타게 찾았어요. 잔등에서 내려놓아 잃어버렸던 그것이 오늘까지두 가슴에 걸려... 그래서 찾기만 하면 40여년세월 용이처럼 맺혀있는 용서를 빌고 또 빌고싶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익준: (익이 막힌듯)광천부위원장!...(동안을 두었다가)

△생각깊이 뒤집을 지고있던 익준 큰숨을 몰아쉬더니 천천히 산옥앞으로 다가간다.

익준: 됐소. 그만하오. ... (산옥의 한쪽어깨에 손을 가져가며) 그만하라니까.

산옥: (익준의 팔을 뿌리친다.)

익준: 아니? 이거 사람들이 보겠소.

산옥: 전 이젠 지쳤어요. 더는 못 견디겠어요. (주머니에서 종이뭉음을 내대며) 자, 이걸 좀 보십시오.

익준: (받아 펼쳐보며) 실태보고서라?... 허참... (종이뭉음을 접어서 주머니에 넣으며) 나두 같애... (담배와 라이타를 꺼내들며) 여보 위원장, 우리 이젠 년로보장받을 나이도 다 돼가는데 차라리 사직서를 내고 어느 자그마한 기업소의 지배인, 당비서나 하는게 어때?

산옥: (그제야 얼굴을 들며)예?

△익준 담배를 붙여문다.

산옥: 아니, 산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합니까.

익준: 그렇지. (바위우에 담배를 비벼끄고는 생각깊이) 역시, 하하... 위원장동무, 난 가끔 이런 생각을 하오. 한가정의 일도 바로잡지 못해 모지름을 쓸 때가 많은데 나라의 가정을 다 돌보시는 우리 장군님께서는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시랴 하고 말이요. 불꺼진 거리와 숨죽은 공장, 허기져 쓰러지는 인민들을 보시며 철령을 넘으시는 우리 장군님의 심정이야 오죽하시겠소. 장군님께서 초도를 찾으셨을 때 있던 일ियो. 그날따라 파도가 어찌나 사나운지 군함도 삼켜버릴 정도였다누만. 그런데 장군님께서서는 자그마한 패속정에 오르시여 단 5분이면 가닿을 길을 50분이나 파도를 헤쳐야 했으니... 수행원들은 허리를 상하고 촬영가들은 촬영기렌즈마저 깨먹어 장군님의 사생결단의 그 모습을 단 한장의 사진으로도 남기지 못했다지 않소. 현지에서 영접보고를 올리려던 섬초소의 지휘관은 바다물에 찢찢하게 언 장군님의 야전복자락을 보고 너무나도 억이 막혀 말문이 막혀버리고 병사들은 《장군님, 다시는 이런 배길에 오르지 말아주십시오. 우린 장군님만 계시면 이깁니다!》하고 장군님품에 와락 안겨 영영 울었다지 않소.

산옥: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사회주의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험한 길만을 걸으시는 우리 장군님 고생에야 비기겠습니까. 장군님은 정말...

익준: 옳소. 하기에 우리 인민들은 장군님만 끝까지 따라가면 반드시 희한한 래일이 온다는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산악같이 일떠선게 아니겠소. 위원장동무, 우린 그저 장군님만 굳게 믿고 오늘을 이겨냅시다.

산옥: 알겠습니다. ... 책임비서동지, 제 아무래두 저 송전선사업소에 좀 가봐야겠습니다.

익준: 철탐문제때문에?

산옥: 전기를 끄지 않고 철탐을 옮기는게 과학적으로 타산이 서는 일인지 제 경험있는 기술자들과 토론을 좀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익준: 그런데 왕복 200리길을 어떻게 가겠소. 위원장동무 차야 기름때문에 세워놓은지 오랜데...

산옥: 그쪽으로 가는 벌이차가 있습니다.

익준: 차비는 있나?

산옥: 예, 있습니다.

익준: 늘 현장에만 붙어있는 사람이 무슨 차비가 다 있겠소.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들며) 나한테두 200원밖에 없구만. 이거라도 보태 쓰라구.

산옥: 됐습니다.

익준: 받으라는데. (일어서며) 참 위원장동무, 아들이 복무하는 부대에서 우리 군당에 편지가 왔소.

산옥: 우리 송남이부대에서요?

익준: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고 군사복무를 아주 잘하고있대.

△산옥 편지를 받아드는데 익준 세멘트배낭을 본다.

익준: 아— 이 배낭이 인덕역에서부터 날라오는 세멘트배낭이요? 내 한마디 했더니 위원장동무가 힘들게 갔다왔구만.

산옥: 제 오면서 생각해보니까 스무키로 저나르다면 3 000명이면 하루에 저 인덕역에서 발전소 건설장까지 세멘트를 다 운반할수 있습니다.

익준: 바로 그거요. 없는 휘발유를 찾을게 있소? 위원장동무, 우리 래일 적위대비상소집을 합시다. 요새 미국놈들의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압력이 최절정에 달했소. 그러니 동원준비상태도 검열해볼겸 총동원돼서 세멘트를 날라오도록 합시다.

산옥: 그게 좋겠습니다. 풍랑을 각오하고 떠난 길인데 노는 제가 힘껏 젓겠습니다.

익준: 그러니 날더러 키잡이를 잘해달라는 그거지. 그건 걱정마오. (배낭우에 놓인 장갑을 들며) 장갑이 다 해졌구만. (자기의 새 장갑을 산옥에게 주며) 자, 이걸 끼오. (세멘트배낭을 멘다.)

산옥: 아니, 그건 제가...

익준: 내가 메겠다는데... 어서 가보오.

△산옥과 익준 헤어지는데 무대가 흐른다.

2 경

△바구니를 든 송희가 맥없는 걸음으로 나오다 비틀거린다.

△뒤따라 나오던 경옥 제껴 부축해준다.

경옥: 송희야, 더 아프니?

송희: 일없어. ...

경옥: 이젠 내려가자.

송희: 난 바구니에 절반두 못 채웠어.

경옥: 나두 같애. 그럼 좀 쉬었다 하자.

△송희는 자그마한 바위에 기대어앉고 경옥은

바닥에 앉는다.

경옥: 송희야, 너 그저께 엄마한테 육 먹었지?
우리한테 강냉이 나누어준것때문에.

송희: 일없어.

경옥: 참 송희야, 너 이답에 어른되면 뭐 될래?

송희: 나? 선생님. 그래서 송기랑 산나물이랑
먹던 오늘을 아이들에게 얘기해줄래. 넌?

경옥: 나?... (잠시 생각을 굴리다가) 료리사. 그
래서 지금 먹고싶었던거 그때 가서 실컷 다 먹을래.

송희: 참 경옥아, 평양에서 쌀을 내주기 시
작했대.

경옥: 평양에서?

송희: 우리 엄만 그 애길 하면서 너무 기뻐 울
었어. ... 경옥아, 넌 어떤 때가 제일 좋니?

경옥: 나? 맛있는거 한배낭지구 등산갈 때. ... 넌?

송희: 난 텔레비를 볼 때.

경옥: 텔레비?

송희: 응. 우리 엄만 텔레비존에서
아버지장군님의 모습을 뵈올 때가 제일 좋다고 했
어. 그래서 우리 엄만 하루빨리 발전소가 돼야 한
다구 했어. 전기불이 와야 텔레비로 매일
아버지장군님을 뵈올수 있다구. ...

경옥: 맞아. 아버지장군님만 뵈오면 배 안 고파.
△송희 기침을 연방 한다.

경옥: 송희야, 계속 아프니?

송희: 나두 모르겠어. 맥은 점점 더 없어지구. ...

경옥: 병원에 한번 가봐.

송희: 일없어. 어서 산나물이나 캐자. (일어
서기 힘겨워하며)나 줌.

△경옥 송희를 일으켜세워주고 나간다.

△언덕으로 오르던 송희 갑자기 강한 현훈증을
느끼며 쓰러지더니 굴러내린다.

송희: (안간힘을 쓰며) 엄... 마...

경옥: (다시 나오며)송희야, 여기에 등굴레랑
많아. (쓰러진 송희를 보고) 엉?! 송희야, 송
희야!

송희: 왜 이렇게 빙빙 돌가?

경옥: 내 너의 엄마 찾아올게. 송희 어머니!

△경옥 달려나간다.

송희: 경옥아, 석태아저씨 빨리 찾아줘. ... 석태
아저씨...

△이윽고 위생가방을 멘 윤희, 석태 나온다.

윤희: (석태를 막으며) 어딜 간다고 그래요?

석태: 비켜!

윤희: 석태동무.

석태: 이걸 놓으라는데.

윤희: 못 가요!

석태: 윤희, 그래 내가 눈이 머는걸 정말 보고
싶어 그래?

윤희: 요새 송희 몸상태가 점점 나빠져서 속이
상해 죽겠다는데 동무까지 속태우겠어요?

석태: 그러게 내 걱정말구 송희를 데리구 빨리
병원으로 가라는데...

윤희: 안돼요.

석태: 비켜, 비키라는데. (확 밀치자 윤희 쓰
러진다.) 아니? 어디 상하지 않았어?

윤희: 마음대로 하라요.

석태: (속상해 우는 윤희에게) 윤희, 윤희도 알
지 않아. 지금 위원장동진 발전소건설문제때문에
안타깝게 뛰어다니고있는데 그래 시공을 책임
진 내가 방안에 멍청히 앉아있다는게 말이 돼?

윤희: 야, 정말.

석태: 차, 이게 무슨 꼴이야. 한쪽에선 웃고 한
쪽에선 잔뜩 찌프리고있으니.

윤희: 뭐예요? 이 동무가 정말. (주먹을 든다.)

△이때 《엄마-》하는 송희의 소리 들린다.

윤희: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석태: 무슨 소리?... (송희를 발견하고)아니?
윤희!

윤희: 송희야!

석태: 췌! 자.

윤희: (미소 지으며 다가가) 오늘은 같이 병
원에 가자구 집에서 기다리라구 했는데... (송희의
바지를 털어주며) 이 옷주제 봐, 송희야.

석태: 송희야.

송희: (대답없다.)

윤희: 송희야, 송희야!

석태: 애가 혹시 허탈이 온게 아니야?

윤희: (맥을 짚어보며) 애의 맥박이 왜 이러
게 약하니? 송희야.

석태: 송희야.

△송희 눈을 뜬다.

윤희: 나 언니야.

석태: 난 석태아저씨구.

송희: ...

석태: (무작정 송희를 들쳐업으며)빨리 병원으로!
△석태의 등에 업혀가던 송희가 한쪽팔을 축 늘
어뜨린다.

석태, 윤희:엉?!

△석태 송희를 내려놓는다.

석태: 송희야, 송희야!

윤희: 송희야, 너 왜 그래?

△송희 간신히 눈을 뜬다.

송희: (자기의 바구니를 바라보며) 저기... 쌀...

윤희: 쌀?... (바구니에서 쌀주머니를 꺼내들며)
정말 쌀이네.

송희: (윤희한테서 받아온 쌀주머니를 석태에게
주며)아저씨... 이 쌀루 밥 해잡쉬요. ...

석래: 뭐?!

송희: (가쁜숨을 몰아쉬며) 우리 엄마 아저씨 눈이 잘 보여야 발전소두 빨리 되구... 전기볼도 보고 텔레비랑 볼수 있대요. ...

석래: (목이 메어) 누가 널더러 내 걱정을 하라던?

송희: (마지막힘을 모아) 엄... 마... (운명한다.)

윤희: 송희야, (송희를 흔들며) 너 언니 말을 왜 못 듣니? 정신차려, 정신차리라는데!(땀박을 짖어보고) 이게 뭐야?!

석래: ?!...

윤희: (가슴에 귀를 댄다.) 멧었어, 심장이 멧었어!—

석래: 뭐라구, 뭐?! 송희야, 송희야! 너 왜 그러니? 눈 좀 뜨라. 눈을 뜨라는데!

윤희: (오열을 터치며) 송희야, 송희야!

엄마두 없는데서 네가 잘못되면 우린 어쩌라는거야.

석래: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엄마가 오겠는데...

윤희: 삼촌엄마, 송희가 죽었어!—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석래: 송희야, 이 쌀을 나한테 주고 네가 이렇게 가면 난 어떻게 하라는거야!

석래, 윤희: 송희야!—

△이 비통한 목소리가 골안을 울릴 때

—암 전—

제 5 장 3일후 현장지휘부

무대: 한쪽에 현장지휘부천막이 있고 그옆에 세워진 기발대우에서는 붉은기가 휘날린다.

다른 한쪽에 산으로 오르는 길이 나있으며 뒤로는 높이 쌓인 언제가 보인다.

△국부조명속에 비통한 마음을 안은 산옥 통나무를 끌고나온다.

△여기에 산옥의 심중이 설화로 울린다.

설화: 송희야

산을 봐도 네 모습이 눈에 어리고

들을 봐도 네 웃음이 발에 밝히누나

날아 키운 정이 모자라고

산에 들에 풀뿌리가 없어서

이 예미 품을 떠나갔느냐

아! 무정하구나

남달리 꿈이 많던 너에게

새별같은 너의 눈동자에

어찌 한줌 흙을 덮을수 있단 말이나

송희야 제발 이 어미품으로

다시 돌아와주렴

△쓰러져 오열을 터뜨리던 산옥 다시금 통나무를 끌고나간다.

△사이

△《어머니!—》하는 무대박소리와 함께 재봉기를 안은 봄순 할머니 나오고 뒤따라 그의 며느리가 달려나온다.

며느리: 어머니!(봄순 할머니에게서 재봉기를 뺏으며) 이 재봉기만은 안돼요.

봄순 할머니: 아에미야!

며느리: (울먹이며) 애아버진 늘 발전소건설장에서 살지, 그래두 내가 이걸 밤낮없이 돌려서 집안살림을 근근히 유지하는데 재봉기마저 없으면 우린 어떻게 살아가요?

봄순 할머니: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쓸겠니? 사람이 밥 한술엔 십리를 간다지만 마음만 먹으면 천리를 간다고 했다.

며느리: 어머니, 이 비둘기표재봉기야 어머님이 5개년계획을 넘쳐수행하고 상으로 받은 우리 집의 가보가 아니냐요.

봄순 할머니: 그랬지. 그걸 생각하면 내 마음도 알찌근하다만... 이걸 팔아서 발전소건설장에 통강냉이래두 지원하자꾸나.

며느리: (안타까이) 어머니.

봄순 할머니: 마침 요 고개너머에 재봉기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셨다.

△이미전에 나와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고있던 산옥 나선다.

산옥: 어머니...

봄순 할머니: (그제야 산옥을 발견하고 울컥하며) 위원장!... 예로부터 자식을 앞세우면 앞산이 안 보인다고 했네. 지금 위원장마음이 오죽하겠나. 다문 며칠이래두 내려가 좀 쉬라구.

산옥: 저도 그러구싶지만 저 발전소건설을 생각하면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요.

봄순 할머니: (뜨거움에 젖어)그럴테지, 그럴테지. 위원장이 아닌가...(산옥의 등을 쓰다듬으며) 온 건설장이 위원장얼굴만 쳐다본다는걸 잊지 말구 강심을 먹으라구.

산옥: 네, 알겠어요. 어머니, 이 재봉기만은 며느리 말대로 내가지 마세요.

봄순 할머니: 위원장, 난 46년도 당원일세. 내 나이 일흔이 넘도록 살아오면서 무슨 일인들 겪어보지 못했겠나. 해방이 돼서 잘살아본다 했더니 전쟁뎔 알몸뚱이만 남았겠지. 허지만 전쟁의 재를 털고 일어나 고마운 우리 당의 품속에서 아들 딸 여덟남매를 키우면서 페니실린값이 얼마지, 애들의 교과서 하나값이 얼마지 전혀 모르고 세상에 부럼없이 살았네. 지금은 좀 어려워두 우리

장군님께서 계시지 않나. 또 잘살게 되다니까!

산옥: (뜨겁게)그럼요!

봄순 할머니: (미소를 보이며) 아에미야, 우린 가자. (산옥에게)어서 일 보라구.

△봄순 할머니와 며느리 나간다.

산옥: (나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어머니, 고마워요. ...

△산옥 로당원에게서 힘을 얻은듯 허리끈을 바싹 조여매며 산관쪽으로 나간다.

△이윽고 웅성대는 소리와 함께 일군들이 나온다.

경순: 위원장동지의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일군들: 그러게 말이요.

조갑: 어제 저녁에두 집에 가보니 안계시더군. ...

창진: 그런데 책임비서동지가 왜 잡자기 모이라고 했을까요?

일군들: 글썄?...

일군1: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구만.

△이때 풀대를 손에 든 익준 나온다.

일군들: 책임비서동지!

익준: 아, 모두들 왔구만요. 내 오늘 수고하는 동무들에게 얼벌벌한 잉어탕을 한턱 내자구 불렀소.

일군들: 잉어탕이요?!

경순: 아니, 잉어가 어디 있습니까?

익준: (풀대를 내들며)여기 있지 않소.

일군들: 예?!

창진: 거야 줄풀이 아닙니까?

익준: (억지를 부리며) 잉어요, 잉어라니까.

△아연해하던 일군들 폭소를 터친다.

익준: 자— 적당히 자리들을 잡으시오. 종이 공장 지배인동무, 양어를 많이 할데 대한 당정책이 언제 나왔더까?

일군1: 예, 60년대에 나왔습니다. 정말 굉장했습니다. 바다 먼 우리 선양군에서도 펄펄 뛰는 생선국을 먹자!— 하고 말입니다.

△모두 긍정한다.

익준: 그런데 지금 양어장실태는 어떻습니까? 뚝들은 다 터져나가구 이 줄풀만 무성해서 개구리 합창소리만 요란하더란 말이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우리 일군들의 일본새에 달려있소. 당정책판철에서 5분열도, 중도반단! 장공장 지배인동무.

경순: 예.

익준: 중소형발전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할데 대한 당정책이 언제 나왔소?

경순: 예, 해방직후부터 우리 수령님께서...

익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건설하고있는 발전소를 두고 뒤에서 말들이 많다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군내 지배인동무들이 다 모인 김에 솔직한 의견들을 들어보기로 합시다.

△일군들이 서로 마주보며 웅성대는데 조갑이가 일어선다.

조갑: 책임비서동지! 솔직히 지금 형편에서 발전소건설은 가늠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 제 실태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했습니다만...

익준: (종이장을 들며)이것 말이요?

조갑: 예.

익준: 내 몇대목 읽겠습니다. 《현 상태에서 인제를 인력으로 쌀자면 5년 8개월이 걸린다. 철탑은 장마철이 지난 다음에 가서 옮겨주겠다고 하는바 3개월간은 공사를 중지해야 하므로 6년후에야 발전소건설이 끝난다.》

창진: (입을 썩 벌리더니) 조부위원장동지, 그럼 우리들 환갑전에는 끝장을 보지 못한단 말입니까.

조갑: 그야 물론이지.

일군1: 그럼 다음대에 넘겨주어야 한다는겁니까?

조갑: 차, 답답할 하구만. 그래서 체육에서두 이어달리기라는게 있지 않소.

△키득거리는 일군들과 어이없어하는 일군들.

창진: 책임비서동지, 결정적대책이 있어야겠습니다.

계획과장: 예, 광천부위원장동지 말대로 다른 방도를 모색합시다.

조갑: 웁습니다. ... 제 생각에두 여기다 관광지를 꾸려놓으면 우리 군이...

△일군들 술렁댄다.

익준: 가만, 조부위원장동무, 여기다 관광지를 꾸리면 정말 살길이 열리요?

조갑: 예, 이것만 하면 정말 우리 군이 잘살수 있습니다.

익준: 좋소. 그럼 아예 여기서 가결합시다.

△익준 무거운 발걸음으로 휘날리는 붉은기밀으로 간다.

익준: 부위원장동무, 이리 나오시오.

조갑: (흡족해서 나온다.)예.

익준: 이 기발을 내리우시오.

조갑: 예?(주춤 놀란다.)

익준: 올해 정초 군당집행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지금 우리가 건설하고있는 발전소를 장마철 전으로 무조건 끝낼것을 결정하고 여기에 이 붉은기를 띄웠소. 그런데 반년도 못돼서 난관과 시련앞에 주저앉아 동요하다못해 패배주의에 빠져 이젠 다른 길로 가자는 그런 제의를 어떻게 이 성스러운 붉은기아래에서 결정하겠소.

△일동 놀란다.

익준: (엄하게)왜, 떨리요? 어서!

조갑: 책임비서동지...

익준: 좋소. (일군들을 향해) 누가 대신하겠소?

기와공장 지배인동무!

일군4: 예?

익준: 왜, 살길이 열린다고 하지 않았소. 학
학공장!

일군3: 예?!

익준: 동무도 지지하지 않았는가!

△당황해하더니 목들을 움츠리는 지배인들.

익준: 내릴 사람이 없다는거지? 들어가시오.

(밖에 대고) 세철동무, 이리 나오시오.

△세철 나온다.

조갑: (세철을 보며 놀라) 세철아!

세철: 아버지!

△일군들이 수군거린다.

익준: 동무들도 알겠지만 외국에 건설기술자로
나갔던 조부위원장동무의 아들인데 오늘 새벽에
도착했소. 세철동무, 나와 위원장동무한테 와서
한 말을 우리 일군들앞에 빠짐없이 그대로 하오.

세철: 알겠습니다. (일군들앞에 나서며) 정말
고생들이 많습니다. ... 제가 외국에 가서 겪은 한
가지 사실을 얘기하겠습니다. 어느날 제가 한 건
설기업체 사장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가 저에게 하
는 말이 당신의 두뇌가 정말 아깝다고 하면서 당
신만 결심하면 영주권은 물론 잘살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저
웃고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당신
네 나라에 무슨 미련이 있어서 그러는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대세를 보라. 사회주의의 종말은
조선에서 보게 될것이라고 서방이 떠들고있는데
그래두 가겠는가.》고 하는것이었습니다. 그래
서 전 《당신은 조선을 너무도 모른다. 아마 당신
네 나라 같으면 열백번도 더 쓰러졌을것이다. 유
일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도 벌벌 떠는
위대한 선군령장을 모시고있는 우리 인민이 어떻
게 오늘의 난관을 뚫고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켜내
는가를 당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일군들: 잘했소!

세철: 그날 밤 저는 잠들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침대우에서 편안히 잠을 자고 꾸집한 식탁
을 마주하고있을 때 우리 장군님께서는 달리는 야
전차에서 쪽잡으로 새날을 맞으시고 췌기밥으로
끼니를 에우신다고 생각하니 어제날 병사로서
최고사령관동지앞에 죄스러웠고 장군님과 점점 멀
어지는것만 같았습니다. 지배인동지들! 저는 돌아
오고싶었습니다. 하루빨리 돌아와 저를 품에 안아
키워준 우리 장군님과 고생을 같이하고싶었고 막
돌 한개라도 내 손으로 저 발전소언제우에 쌓고싶
었습니다.

△모두 열광적으로 박수를 보낸다.

익준: 조부위원장동무, 어쩡소. 동무 아들은
정말 큰 재부를 안고 돌아왔소. 역시 제대군인이
달라.

△조갑 고개를 떨군다.

익준: 문제는 우리 일군들부터가 오늘의 고난의
행군을 어떤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이겨내는가 하
는거요. 30년대 고난의 행군을 좀 생각해보오. 닷
새면 가닿을 길을 100여일간이나 가야 했으니 난
관인들 오죽 많았겠소. 모진 추위와 굶주림, 놈들
의 검질긴 추격과 집요한 회유, 그보다 더 어려운
투쟁은 자기자신을 이겨내기 위한 투쟁이었소. 오
늘도 사정은 마찬가지요. 그래서 고난의 행군이라
고 하오.

△이때 산판쪽에서 도끼질소리가 들려온다.

익준: 저 도끼질소리를 좀 들어보오. 동무들
이 이런 실태보고서나 들고다닐 때 위원장동무는
사랑하는 딸애를 잃은 모진 슬픔을 가슴속에 묻어
두고 철탑조동무들과 함께 밤을 새우고 지금은 또
부족되는 광차레루를 참나무로 대신해보려고 저렇
게 무진 애를 쓰고있소.

일군들: 예?!(그쪽으로 고개들을 돌린다.)

익준: 어제밤 위원장동무 우리 군당에 찾아왔습
니다. 제 자식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내가 무슨 군
의 호주인가고 가슴을 치면서 다시는, 다시는 송
희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맹세를 다지고 또 다졌소!...

△일군들이 커다란 가책속에 잠기는데 산옥 통
나무를 끌고 나온다.

경순: 아니, 위원장동지가?! 위원장동지!

일군들: 위원장동지!

산옥: (의아하여) 아니, 어떻게들...

경순: (갈린 목소리로) 위원장동지가 이러시
면 우린 어떻게 합니까?

일군들: 네, 위원장동지!

산옥: 왜 그래요, 왜들... (경순에게) 그래, 대
용식품은 어떻게 됐어요?

경순: 예, 이겁니다. (보자기에서 국수타래를
꺼내보이며) 칩뿌리로 만든...

산옥: (맛을 보며) 아니, 이거 메밀국수가 왔다
가 울구 가겠구만요.

일군들: 그래요?

산옥: 자, 맛들 보세요.

△일군들 국수를 받아 맛을 본다.

산옥: (조갑에게 다가가) 어때요? 아, 어때요?

조갑: 내 입이 생겨 처음 보는 맛이웨다.

△일군들이 와-하고 폭소를 터친다.

창진: 이거면 햇곡식이 나올 때까지 견딜만 합니다.

박철: 칩뿌리는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일군들모두가 긍정하는데 산옥 경순의 두손을

모아잡는다.

산옥: 지배인동무, 정말 수고했어요.

경순: 아니, 석태 누이인 순정기사의 노력이 정말 컸습니다.

산옥: 우리 순정이가요?

경순: 위원장동지한테 어찌나 혼쭐이 났는지 그 다음날로 공장에 나왔습니다.

산옥: (웃으며) 그래요?!

△이때 밖에서 승용차소리가 들리더니 인민군사단장(소장)이 앞서고 중북 몇개를 둘러멘 참모장이 나온다.

사단장: 안녕하십니까? 책임비서동지.

익준: 사단장동무가 어떻게?

사단장: 우리가 뭘 좀 도와줄게 없을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익준: 그렇소?

사단장: (산옥앞으로 다가가) 위원장동지,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

자, 이 북통부터 받으십시오. 우리 함께 북통을 두드려보자는겁니다, 하하…

일군들: (어안이 병병해진다.)

사단장: 얼마전 사생결단의 의지로 전선동부와 서부, 중부를 뚫어 시찰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대련합부대 지휘성원들과 그들의 부인들을 부르시어 가족오락회를 하셨습니다.

산옥: 가족오락회를요?

사단장: 정말 볼만 했다고 합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부인들도 있었지만 그속에는 음치들도 있었으니깐요.

△일군들이 웃는다.

사 단 장 : 한 참 웃 고 나 신 경 애 하 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지금은 정말 힘이 든다고, 노래는 배가 부르고 편안한 때가 아니라 바로 이런 때 불러야 한다고 하시면서 아버지수령님께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승리할 때일을 확신하시고 군무자예술축전을 조직하셨다면 자신께서는 이 어려운 고난의 행군시기 력사에 없는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을 조직하시겠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고 합니다.

일군들: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을요?!

△이때 세명의 초기북무군인들이 나온다.

군인들: (거수경례를 하며) 사단장동지!

사단장: 참, (산옥에게) 여기서 천탑문제가 걸렸는지요. 우리 함께 풀어봅시다. (초기북무군인들을 가리키며) 자, 오늘부터 이 동무들을 위원장동지한테 배속시킵니다.

산옥: 예?

사단장: 안변청년발전소건설에서 위훈을 펼친

공병들인데 우리 기계화사단의 보배들입니다.

군인들: (산옥에게 거수경례를 하며) 안녕하십니까?

산옥: (기쁨에 겨워) 그러니 혁명적군인정신의 창조자들이구만요. 우리 함께 일해보자요.

군인들: 알았습니다!

산옥: (격동에 젖어) 동무들, 우리 언제를 쌓지요. 승리의 북소리 높이 울리며 아버지수령님의 한생이 어려있는 저 붉은기를 완공된 언제우에 펼 펼 휘날리자요!

모두: 휘날립시다!—

△일군들과 군인들이 한데 어울려 나간다.

△고개를 꼭 뿔군채 서있는 조갑에게 세철 다가가

세철: 아버지, 성봉이가 왔습니다.

조갑: 뭐?! 며늘애가 손자녀석을 데리고왔단 말이나?

세철: 행정위원장동지가 많이 노력하셨더군요.

산옥: 아니예요, 저도 미처 몰랐었는데 책임비서동지가 일깨워주시더군요.

조갑: 책임비서동지가요?…

산옥: (낮으나 뜨겁게) 부위원장동무, 흘러간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인생 말년에 가서는 추억속에 그 세월이 다시 돌아온다 했어요. 땀땀하게 살았다면 즐겁게, 그렇지 못했다면 고통스럽게… 그래서 인간은 추억속에 두 인생을 산다지 않나요. 이제부터라도 손자의 그 맑은 눈동자에 할아버지의 참된 모습이 찍혀야 하지 않을까요? 세철이 아버지.

조갑: 위원장동무…

산옥: 그럼 전…

△산옥 세철과 같이 나간다.

△조갑 피로움속에 잠겨있는데 지휘부천막안의 전화기에서 전화종소리가 울린다.

△조갑 그쪽으로 천천히 다가가

조갑: (송수화기를 들고) 조갑이웨다. … 예? 도 행정위원회 광천부위원장이라구요. 수고합니다. … 예? 내 목소리가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구요? 방금 한방망이 얻어맞고 지나온 나날을 돌이켜보던 참이웨다. 예? 우리 천탑문제 해결방도가 나졌다고요! 예보시오, 예, 우리 위원장동무를 올려보내라고요? 예—예— 알겠습니다. (송수화기를 놓고) 우리 위원장동무가 이 소식을 알면 춤을 추겠지만, 춤을 추겠어.

△조갑 뛰어나갈 때 전환막이 내린다.

△전환막앞으로 산옥, 봄순 할머니, 순정 나온다.

봄순 할머니: 승용차로 가면 점심전엔 도에 들어서겠구만.

산옥: (고개를 저으며) 영덕군에 들렀다 가려면

좀 늦어질수 있어요.

봄순 할머니: 영덕군에?

산옥: 제 동생을 키워준 그 할머니부터 만나 인사해야겠어요.

봄순 할머니: (머리를 끄덕이며) 그래야지. ... (구력을 내밀며) 이건 책임비서어른이 보내는 술인데 동생을 만나면 한잔 부으라구 합데.

△산옥 구력을 뜨겁게 받아안는다.

순정: (보자기에 싸것을 주며) 위원장동지, 이젠 제가 뜯어말린 산나물인데 번번치 않지만 광천부위원장동지가 맛보게 해주세요.

산옥: 순정이, 고마워.

△산옥 봄순 할머니와 순정의 바래움속에 나간다.

제 6 장 광천부위원장 사무실

무대: 중심에 량수책상이 놓여있고 그우에 여러대의 전화기가 있다. 책장과 쏘파, 서류함이 적당히 배치되어있다. 한쪽에 원탁이 있고 옷걸이에는 제끼양복과 와이샤쯔, 넥타이가 걸려있다.

△전화환막이 오르면 전화종소리 울린다.

△앞상에 앉아 문건을 보고있던 국토과장 송수화기를 든다.

과장: 국토과장 황공덕이 전화받습니다. 선양군당 책임비서동지사라구요. 안녕하십니까. 예?—광천부위원장동지는 지금 방에 붙어있을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방을 지키고있습니다. 예, 뭐라구요? 선양군행정위원장동무가 우리 부위원장동지의 누이라구요?! 원, 세상에... 알았습니다. 우리 소박하게나마 상봉연을 차려주겠습니다. 예...예. (송수화기를 놓으며) 원, 세상에... △과장 안절부절 못하는데 문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과장: 예, 들어오시오.

△가방을 든 산옥 조심히 들어온다.

과장: 아니, 위원장동무가?

산옥: 안녕하십니까?

과장: (반색하며) 어서 오십시오, 어서.

△과장 산옥을 쏘파로 이끈다.

과장: 방금 책임비서동지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산옥: 우리 책임비서동지한테서요?

과장: 예.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 부위원장동지두 누이를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아십니까? 원, 세상에... (안경을 벗어 눈굽을 짙어내며) 허허...

산옥: (살며시 고개를 돌리고 눈굽을 훑친다.)

△따르릉 울리는 전화종소리.

과장: 미안합니다. (송수화기를 들며) 제 국토과장이외다. 뭐?... 차 이런... 알겠소. (송수화기를 놓고 산옥에게) 제 잠깐...

산옥: 어서 일보십시오.

과장: (급히 나가다가) 우리 부위원장동지가 인차 오실겁니다. 원, 세상에... (나간다.)

△산옥 천천히 일어나 동생의 숨결이 느껴지는 방안을 둘러보기 시작한다.

△끓어오르는 혈육의 정을 안고 광천의 책상이며 전화기를, 문서들을 펼리는 손으로 쓰다듬는 산옥.

△옷걸이로 다가간 산옥 광천의 옷을 벗겨들고 불을 비빈다.

△이때 과장이 다시 들어선다.

과장: (젖어드는 어조로) 끓을래야 끓을수 없는게 혈육이구 잊을래야 잊을수 없는게 그 정이라더니... (안경을 벗으며 눈굽을 짙는다.)

산옥: 저... 우리 동생은?

과장: 예, 당위원회에 잠깐 갔습니다. 첼랍 옮기는 문제때문에 제의서초안을 가지고 갔는데 인차 오실겁니다.

산옥: 제의서라니요?

과장: 말두 마십시오. 솔직히 부위원장동지가 그 첼랍문제때문에 얼마나 비판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글쎄 전력공업부에선 금년말까지는 전기를 끝수 없다지, 저와 부위원장동진 언제가 그렇게 빨리 올라갈줄은 정말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적인 대책을 강구하자는거지요. 경애하는 장군님께 보고를 드려 해결받자는겁니다.

산옥: 뭐라구요?!

△굳어졌던 산옥 비칠거리며 쏘파에 다가가 무너지듯 주저앉는다.

과장: 왜 그러십니까? 어디 편치 않습니까?

산옥: 아니... 아닙니다. ...

△과장 영문을 몰라하는데 광천 급히 들어온다.

광천: 과장동무, 이 문건을 빨리 무역국에 갖다주오. (산옥을 띄어보고) 아, 위원장동무가 올라왔구만. 앓소, 앓소.

과장: (기쁨에 겨워) 부위원장동지.

△전화종소리

광천: 알겠소, 알겠소. 빨리 가보오.

과장: 그렇습니까? 원, 세상에... (나간다.)

△광천 의자에 앉으며 송수화기를 든다.

광천: 아, 명산군 부위원장동무구만. 텔레비존촬영기자들이 왔다?... 종구만 뭐, 그런데 왜 우는소리요? 염소마리수가 모자란다?... 둔하기란, 여보, 개인집들의 염소는 염소가 아니요?... 그리구 풀판은 말이요, 시범적으로 꾸려놓은걸 뒤군데 찍으라구 하란 말이요, 예, 수팔 하오. (송수화기를 놓고 산옥에게) 안됐소, 손님을 앓혀놓고... 그

놈의 첩탐문제때문에 난 밤잠을 다 설치오.

산옥: 량심이 깨끗한 사람은 발편잠을 자는 법이지요.

광천: 만나자부터 공격이구만. 위원장동무! 우린 2년전에 위원장사업을 인계하고 인계받은 사이인데 첩탐문제때문에 불쾌했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터놓고 이야기해보자구 이렇게 불렀소.

산옥: 제의서문제때문이겠지요?

광천: (놀라며) 알고있었소? 그렇다면 빠개놓고 얘기하지요.

산옥: (말없이 지켜본다.)

광천: 솔직히... 내 첩탐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다시 비판무대에 오르게 되오. 그러면 이 최광천이는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당적책벌을 면치 못할거요. 동무도 역시 레외로 되지 않을거구. 그래 내 생각다못해 내린 결심이니 도당에서의 의견을 물으면 지지해주. 전력공업부에서 안된다는데 난들 어찌겠소.

산옥: 그랬됐군요. ...

광천: (한숨을 내쉬며) 내 말을 이해했다면 고맙소.

△광천 일어나 물을 따라마시는데 피로움에 모대기던 산옥 가방을 열고 술병을 꺼내든다.

광천: 음? 위원장동무, 그건 웬 술이요?

산옥: 우리 책임비서동지가 보내는 축하의 인사지요. 45년의 길고긴 역사를 담고있는...

광천: 야— 그렇게 오래 된 술이요?... 헌데 인사를 하겠으면 후날에 하지 뭐. 남들이 보겠소. 넣어두.

산옥: 아니요. (병아구리를 틀어 판다.)

광천: 하하... 위원장동무가 첩탐때문에 무던히도 고심을 했겠구만. 하지만 지금은 행정시간이야. 정 그렇다면 저녁에 하든가. ...

산옥: (단호하게) 아니, 결산이야 제때에 해야지요. 책임비서동지, 미안합니다.

광천: ?!

△긴장된 사이

△산옥 술병을 들고 바깥으로 다가간다.

△광천 영문을 몰라하는데 산옥 바깥으로 대고 술을 쏟아붓기 시작한다.

△거침없이 쏟아져내리는 술.

△그 소리가 공명되어 울린다.

광천: (아연해하며) 위원장동무, 이건 도대체 어찌자는거요?

△이윽고 산옥 빈병을 책상위에 딱 소리를 내며 올려놓는다.

산옥: (조용하나 엄엄한 어조로) 제의선 못 올린다.

광천: 영?

산옥: 못 올려!

광천: 뭐?!

산옥: 어쩌면 넌 그런 일군이 되었니? 장군님을 옹위하는 길에서 맹수가 되어야 할 부위원장이란 네가 어쩌면 자기자신을 위한 맹수가 되었어?

광천: 뭐, 뭐... 어따대구 너, 너 하면서 건방지게! 나가, 내 방에서 당장 나가!

산옥: 내 방?!... (찢어지는 마음을 안고) 너한테 내 방이라는게 있을번이나 했니? 아버지, 어머니를 미국놈들에게 무참히 잃고 고아였던 너한테, 집도 없어 역대합실구석에서 쪽잠으로 지내야 했던 너한테 내 방이라는게 있을번이나 했는가 말이야!

△산옥 품속에서 총탄깅지를 꺼내여 광천의 책상위에 놓는다.

△광천 영문을 몰라한다.

광천: (총탄깅지를 쥐어보더니) 영?!... 이게 어떻게?... 아니, 그럼?!...

산옥: 여기저기서 빌어먹어야 했던 우리가 뉘덕에 살아났구 오늘은 나라의 일군으로까지 자랐게... 그걸 값으로 치면 천냥, 만냥에도 비기지 못해. 그런데 넌 몇냥이나 갚구 이 방의 주인이 됐니? 대답해봐, 너를 낳은 어머니가, 너같은 놈한테 젖을 다 빨리운 어머니가 어째서 자기의 뜻을 거역하려 드는가고 묻고있다. 어서 대답해봐, 저한테 유리할 땐 자식이 되고 불리할 땐 남이 되고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땀땀을 꾸구. 그렇게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야겠니? 너같은 일군들때문에 우리 수령님께서는 한평생 험한 길을 더 많이 걸으셨다. 바로 너같은 일군들때문에 오늘은 우리 장군님께서 차디찬 눈비를 더 많이 맞으시는거야. 헌데 넌 편안한 뒤끝방에 앉아 무슨짓을 하고있는 거냐? 뭐, 제의서를 올린다구? 허리띠를 졸라매구 아글타글 일하는 우리 인민들을 바라. 성실한 노동자, 농민, 때가 묻지 않은 청년들... 문젠 너같은 일군들이야. 후날 딸똥이 생겨두 —난 당의 결론을 받고 했소. — 하면서 장군님의 부담은 생각지도 않고 일을 쉽게 하자는건데. 이놈아, 당에 올리는 제의서를 너의 공명심과 보신의 그 너절한 속심을 가리우기 위한 허울로 삼자는거지. 배은망덕한 놈!— 내 방? 이 방은 자기를 지키기 위한 엄폐호가 아니라 오늘의 고난의 행군을 맨 앞장에서 지휘해야 할 최전방지휘소야! 난 네가 이 방의 주인은 고사하구 인민들의 심판부터 받아야 한대구 생각한다, 심판을!

△산옥 터져나는 가슴을 부여잡고 힘겹게 나간다.

△광천 총탄깅지를 손에 든채 고뇌에 잠길 때 —압전—

제 7 장 언 제 건 설 장

무대: 한쪽에 첩탑이 서있는데 고압선이 언제안의 물면과 닿을듯말듯하게 늘어져있다.

△무대 밝아지면 금시 넘어날듯 넘실거리는 언제안의 물을 보며 사람들이 근심에 싸여있다.

△전력공업부 국장과 조갑을 비롯한 일군들 나온다.

국장: 부위원장동무, 이 선양군에선 금년중으로 이 언제가 안된다고 하지 않았소.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된겁니까. 우리 전력공업부에선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대혼란이!

조갑: 우린 그런 말을 한적이 없습니다.

△창진과 박부위원장 급히 들어온다.

△맞은편에서 산옥 들어온다.

창진: 위원장동지, 큰일났습니다. 기상수문국에 알아봤는데 지금 내리고있는 비는 3일간이나 계속 내린답니다.

산옥: 뭐예요?! 배수구는 모두 열었겠지요?

박철: 예. 하지만 워낙 흘러드는 물량이 많다나니 수위가 낮아지기는커녕 시간당 20으로 올라만 갑니다.

산옥: 뭐라구요?

△같이 놀라는 국장.

△이미 나와섰던 전력공업부 연구사가 국장에게 다가간다.

연구사: 국장동지, 사태는 엄중합니다. 저 고압선과 수면사이의 안전계선은 현재 1미터 20입니다. 이 상태로 여섯시간이면 고압선이 물에 잠길수 있습니다.

국장: (산옥에게) 위원장동무, 발전소의 운명은 이제 여섯시간에 달렸소.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때 석태와 명호를 비롯한 첩탑연구조원들과 인민군인들을 앞세운 익준 나온다.

익준: 위원장동무, 찾았소. 첩탑조동무들이 군인동무들의 도움을 받아 첩탑을 들어올릴 방도를 찾았단 말이요.

모두: 뭐라구요?!

세철: 위원장동지, 이 첩탑의 발통을 기초로부터 분리시켜가지구 자끼로 떠올리자는겁니다.

산옥: 자끼로?

세철: 예, 자끼로 자동차를 떠올리는것처럼(첩탑모형을 들고) 여기, 여기 네 귀에 자끼를 설치하고 동시에 들어올리면서 한메터, 한메터 산형강을 편결하는 식으로 첩탑을 높이단 말입니다.

초기복무군인: 그때 저 량쪽첩탑은 이 첩탑을 잡아주는 지지대로 될게구, 저 늘어진 고압선들은 첩탑의 중심을 잡아주는 벌줄로 될것입니다.

△홍분에 술렁대는 일군들과 군중들.

산옥: 국장동지, 어떻습니까?

국장: 예, 될것 같습니다. 아니, 되겠습니다!

△모두 환성을 올린다.

△조갑을 비롯한 일군들이 석태를 비롯한 청년들을 얼싸안는다.

산옥: 봄순이 할머니두 나오셨군요.

봄순 할머니: 우리 가두에서도 지원을 나왔네.

산옥: 그래, 이제 수도물이 잘 나오니까?

녀인1: 네, 조부위원장님이 살았습니다.

조갑: 뭐?!

녀인1: 아니, 아니, 수도가 살았습니다.

△모두 와— 웃는다.

△이때 《위원장동지!》하고 다급히 울리는 무대박소리.

△청년3이 달려나온다.

청년3: 위원장동지, 큰일났습니다.

산옥: ?!...

청년: 저수지수위가 80이나 더 높아졌습니다.

산옥: 뭐?!

청년3: 영천강여울목이 터졌는데 그 강물이 우리 언제안으로 막 쓸어들고있습니다.

모두: 뭐라구?

△섬팡이 번쩍한다.

△모두 당황하여 어쩔바를 몰라한다.

연구사: 국장동지, 저 영천강여울목이 터졌다면 이제 한시간을 넘기지 못합니다.

△천지를 진감하는 우뢰소리!

△사이

국장: 위원장동무, 가슴이 아프지만 언제를 폭파하는 수밖에 다른 길은 없을것 같소.

조갑: 언제를 폭파시키다니요?!

국장: 이것 보오. 이 상태에서 언제를 살린다면 거대한 화학공업기지의 숨결을 끊어놓게 된다는것 상상이나 해봤소? 그로 인한 경제적손실을 이런 발전소 몇개 버리는데 비하겠나 말입니다.

석태: 위원장동지, 첩탑을 올릴 방도를 찾아놓구두 언제를 폭파해야 한단 말입니까, 예?

모두: 예? 위원장동지!

△산옥 바위처럼 굳어져 생각에 잠긴다.

국장: (산옥에게) 위원장동무, 어서 결심하십시오. 언제폭파는 피할 길이 없을것 같습니다.

△까딱없는 산옥.

△안타까이 오가는 국장.

국장: 위원장동무, 국가적립장에 서야 할게 아닙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이제 한시간후엔 모든게 끝장이란 말입니다.

△순간 정적.

산옥: (익준에게 다가가며) 책임비서동지.

익준: 위원장동무, 우리야 풍랑을 각오하고 떠난 사람들이 아닙니까. 어서 결심을 내리십시오.

산옥: (단호하게) 언제는… 언제는 폭파하지 못합니다.

국장: 그럼 무슨 방도가 있어야 할게 아니요, 방도가?

산옥: 언제의 무덤이구간을 낮춥시다. 그럼 그 쪽으로 물을 뿜으면서 우리는 동시에 철탑을 안전하게 들어올릴수 있어요.

국장: 그건 안되오. 무덤이구간을 한시간내에 낮추지 못할뿐만아니라 위원장동무의 그 모험적인 결심이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수 있다는걸 생각해봤소? 사람들의 생명을 말ियो!

산옥: 오늘의 고난의 행군은 사느냐 죽느냐 목숨을 내걸고 단행하는 사생결단의 행군입니다!

익준: 옳소.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산옥: 석태, 철탑조는 자기 위치로!

석태: 알았습니다. (나간다.)

산옥: 자, 결사전을 벌립시다!

△모두 산옥을 따라 나간다.

△광천 나온다.

광천: 부위원장동무, 무덤이언제를 낮춘다는데 무슨 소리요?

조갑: 언제두 살리구 철탑두 살려야 할게 아닙니까. (쌩 나간다.)

△떡 굳어지는 광천의 머리위에 번쩍하는 섬광과 파르릉 하는 우뢰소리 울린다.

△고개를 푹 떨구며 무겁게 걸음 옮기려던 광천 문득 선다.

익준: 부위원장동무, 내 좀 만나고싶었습니다. (광천이가 낀 말쑥한 작업장갑을 보더니 뽕뽕에 찻던 낡은 장갑을 주며) 이 장갑을 꺼보십시오. 부위원장동무, 누이가 늘 끼고다니던 작업장갑입니다. 부위원장동무,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산 인간은 행복한 추억을 안게 되지만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산 인간은 쓰라린 과거밖에 남을게 없습니다. … (나간다.)

광천: (장갑을 보고 모대긴다.)

우린 한피줄을 타고났지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누님은 래일을 위해 자기를 바치고있지만 난 자기만을 위해 오늘에 살고있지 않는가?…

△이때 둔중한 불도젤동음소리.

△이윽고 불도젤이 나온다.

△광천이가 달려가 불도젤을 막아선다.

광천: 세우시오, 세우시오!

△불도젤이 멎어선다.

산옥: (불도젤에서 머리를 내밀며) 뭐야?

광천: 어찌자는겁니까?

산옥: 몰라서 그래? 비켜.

광천: 안됩니다. 불도젤로 무덤이구간을 밀다간

죽습니다.

산옥: 그럼 이 마지막제선에 와서 날더러 어찌라는거냐? (다시금 불도젤이 전진한다.)

광천: (그의 앞을 막으며) 안됩니다.

산옥: (내려와서) 비키지 못해!

광천: 누님.

산옥: (주춤하더니) 누님?… 내가 무슨 네 누이란 말이냐. 내겐 동생이 없어!

△산옥 다시금 불도젤에 오르려는 순간 광천이가 그를 밀어제끼고 자기가 오른다.

광천: 누님, 빨리 철탑을 올리십시오!

산옥: (쓰러진채) 야, 위험해!

△광천 세찬 동음을 울리며 불도젤을 물고나간다.

산옥: 강진아!—

△석태를 비롯한 청년들이 《부위원장동지!—》하며 불도젤을 따라 달려나간다.

△뒤따라 달려나오는 조갑, 순정, 봄순 할머니가 산옥을 붙든다.

순정: 위원장동지, 무덤이언제가 터지면 광천부위원장동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봄순 할머니: 제정신인가? 어떻게 찾은 동생인데 그 위험한델 보낸단 말인가! 응?

산옥: (항거하듯) 그럼 절더러 어떻게 하라는거예요, 어떻게! (주저앉는다.)

순정: 위원장동지.

봄순 할머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중단 말인가!… △이때 밖에서 《위원장동지!—》하며 나갔던 석태와 청년들이 달려들어온다.

석태: 위원장동지! 저기, 저기!

△육중한 동음소리와 함께 수륙량용전차가 미끄러지듯 들어온다.

△놀라는 산옥과 군중들.

사단장: (전차우에서) 위원장동지가 어디 있습니까?

산옥: 사단장동지!

사단장: (전차에서 내려) 위원장동지, 철탑조에 있는 우리 동무들한테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언제가 위험에 처했다지요?

산옥, 군중들: 예!

사단장: 우리 생각엔 저 언제의 무덤이구간을 낮추면서 동시에 철탑을 들어올리자는겁니다.

군중들: 예?

산옥: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까?

사단장: 그렇습니까? 그래서 군대와 인민은 한마음한뜻이라 하지 않습니까!

△참모장이 달려나온다.

참모장: 사단장동지!

사단장: 무슨 일ियो?

참모장: 누가 무덤이구간을 불도젤로 밀어내

고있습니다.

사단장: 뭐요?!

익준: (다가가며) 그가 바로 위원장동무의 동생입니다.

사단장: 그렇습니까? (지체없이 대공전화기를 들어올리며) 나 10번이다. 모두 내 명령을 들을것. 구분대는 수륙량용전차들로 방파제를 형성하고 수압을 막아 불도젤의 안전을 보장하며 동시에 무념이구간을 40분내로 낮출것!

군중들: (환성을 올리며) 야!—

산옥: 사단장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사단장: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 인민군대에 다 맡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군인들에게) 출발!

△사단장이 전차에 오르자 수륙량용전차가 육중한 동음을 울리며 나간다.

산옥: (돌아서며) 석대, 뭘해?

석대: 알았습니다! (신호기를 들고 철탑쪽 언덕으로 오른다.)

산옥: 준비!—

석대: (호각을 분다.)

산옥: 철탑 올렸!

△《영차!—》하며 청년들이 지레대를 돌리자 철탑이 오르기 시작한다.

산옥: 한메터만 더!

청년들: 영—차!

익준: (밖에 대고) 방송차, 방송차, 뭘하오?

△방송차에서 힘찬 노래가 울려온다.

…우리는 자기를 믿듯 승리를 굳게 믿고 산다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

△노래속에 철탑이 한치한치 오른다.

…수령님 따라서 시작한 이 혁명
기어이 장군님따라 승리 떨치리

청년들: 만세!

군중들: 만세!—

조갑: 책임비서동지! 내 눈이 생겨 처음 보는 장관입니다!

군중들: 와!—(환성을 올린다.)

△이윽고 윤희가 달려나와 익준에게 간다.

윤희: 책임비서동지, 저기 광천부위원장동지가 옵니다.

△모두 그쪽으로 바라보는데 광천 사단장과 함께 나온다.

익준: (광천의 두손을 모아잡으며) 부위원장동무, 수고했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광천: …

익준: 위원장동무가 어디 있소, 위원장동무가?

순정: 책임비서동지, 저기에!

△군중들이 짙 갈라서자 산옥 둔덕에 걸터앉아 멍하니 철탑을 올려다보고있다.

△광천 그쪽으로 향하려다가 주춤거리며 고개를 돌린다.

△익준이 슬며시 떠밀자 광천 한발자국 또 한발자국 다가간다.

광천: 누님!…

산옥: …

광천: 누님!…

산옥: (그체서야 돌아보며) 강…진아… 강진아!

△일군들이 뜨겁게 상봉하는 산옥과 광천에게 박수갈채를 보낸다.

△눈굽을 짊어내던 산옥 군중들을 향해 돌아서더니 고난의 길을 함께 헤쳐온 동지들을 미덥게 둘러본다.

산옥: 동지들, 우리는 오늘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발전소건설의 완공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힘겨운 나날들이었어요. 하지만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혁명적군인정신이 있어 흠집을 지면서도 래일을 생각하고 굶어 쓰러지면서도 래일을 그리고 모진 마음속 고통을 겪으면서도 래일의 승리만을 위해 불사신처럼 일떠서 싸웠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끝까지 따라가면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것을 뼈속깊이 새겨안게 되었으며 것처럼 간고했던 이 고난의 행군이 락원의 행군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날에는 우리 장군님을 따라 헤쳐온 오늘을, 오늘을 긍지높이 추억하게 될것입니다!

모두: 만세! 만세!…

△여기에 설화가 울린다.

설화: 그렇다, 래일!

이 나라 사람들의 단 하나 목숨이었고 삶이었고 투쟁이었던 래일, 그 래일을 우리 장군님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억척같이 세워주시었으니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

아, 잊지 못할 그 시련의 언덕에서 래일의 인생관으로 조국과 혁명을 구원하신 절세의 애국령장 **김정일**장군님의 만고의 업적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며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우리는 승리의 한길만을 가고가리라!…

△우리의 주인공들을 중심으로 일군들과 인민들, 인민군군인들이 장엄한 대오를 이루며 호탕하게 웃으며 나올 때

—서서히 막—

어머님 제자들이 떠나간다

김길성

백두런봉에 지봉을 잇대고
백두광야에 트랙을 잇대인듯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련봉산기슭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그 존함과 더불어 영원할 교정이 있어라

김정숙사범대학!
어머님의 자애로운 품이런가
어서 오라 반겨주는 대학교정으로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이 들어섰고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이 오늘처럼 교정을 나섰
던가

교정에서 보낸 나날들은 길지 않았어도
조국과 인민을 위한 어머님의 마음
수령님을 위해 바치신 결사옹위의 정신
글을 배워도 어머님처럼
노래를 불러도 어머님 부르시던 노래 부르며
어머님을 닮은 제자들로 준비해가던 나날은
인생에 가장 보람찬 나날

우등불 타오르던 숙영의 밤
항일의 녀대원들 어머님의 소원 물었을 때
어머님은 말씀하시였어라

해방된 조국에서 교육자가 되어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수령님께 충직한 아들딸로 키우시겠다고

아, 그밤에 하신 어머님의 말씀 못 잊어
어버이수령님 대학을 세워주시고
그날의 희망이 불타오르던 우등불빛
여기 대학창가의 탐구의 불빛으로 밝아
아름다운 미래에로 비껴가거니

학생들이 날마다 오르던 등교길은
어머님 헤쳐가신 항일의 천만리길
자욱자욱 따라배우는 길
학생들이 부르던 노래는
어머님 선창하신 혁명가요

어서 떠나거라
장군님축복받은 어머님의 제자들이
가슴에 품은 대학졸업증을
태양의 해발로 간직한 그네들
그네들이 설 교정과 초소들에서
어머님의 념원을 활짝 꽃피울
그네들을 기다린다

영원한 삶의 품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를 보고—

최향실

이제는 다 자라 교단에 선 나의 딸 송희
언제나 교단에 단정히 서리라
자기 모습 거울에 비춰보는 딸을 보니
어제 본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
나어린 주인공 송희의 모습 떠오른다

이름이 같아서만이라
나의 딸과 어린 송희가 함께 보이는것은
아마도 어린 송희가 살아있으면
그렇게 바라던 희망대로 교원이 되어
출근길도 함께 걸을수도 있으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된 오늘도

응석을 부리는 나의 딸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그를 나의 무릎에 베워본다
어머니무릎을 베고 실컷 자고싶다던
송희의 목소리 가슴에 젖어와

어머니가 준 쌀마저도
발전소건설자 석래아저씨에게 주고
자기는 허기져 끝내 눈을 감은 송희
그 순결한 마음앞에
나의 어제와 오늘을 비춰보는 마음

몸은 허기져도 희망은 나래치던 송희
선생이 되어 오늘을 추억하겠다면 송희

그는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 한생 배워야 할 참된 삶의 수업을
생활의 교단에서 하고있지 않는가

오직 어버이장군님만 굳게 믿고 살면
승리의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신념과
오직 어버이수령님만 계시면
강성부흥의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진리
그것으로 하여 어린 송희는
우리들의 딸로 아이들의 선생으로 삶을 누
리거니

아, 삶이란 애국이란 행복이란...
그 무한한 세계를 다 알기도 전에
우리곁을 떠났건만
그는 삶의 전부인 그것만은 알았다

영원한 삶
참된 애국
무한한 행복은
자나깨나 안기여 살고싶은
아버지장군님의 품이라는 불변의 진리를!

우리에겐 이런 법이 있다

리진협

우리 흔히
레사로이 생각하는 그런 일을 두고
세상사람들 얼마나 놀라와하던가
이런 법도 있는가
세상에 이런 법도 있단 말인가

저기 새로 일떠선 거리
저 살림집에서 누구들이 사는가는
놀라운 그 물음앞에서
로동자들이 사는 집이라고
별치 않게 생각하는 대답앞에서

저기 우리 공장을 가리키며
누구의 공장인가고 묻는 물음앞에서도
우리의것이라고 우리모두의것이라고
흔연히 하는 그 대답앞에서도

세상사람들이야
그저 놀랍기만 하여서
세상에 없는 희한한 법을
이 나라 사람들은
레상으로 여긴다고
별세상사람들 만난듯
다시금 우리를 쳐다보지 않던가

생각해보노라면
세상에 없는 그런 법이 옳다!
저 인민반들과 마을 거리들에서
련합기업소 책임일군과 용해공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도로관리원이

이웃되어 공민으로 살아가는 나라

학교길에 학비를 재촉하는 그런 일이
레상사인 그런 나라에선 알수 없으리
섬마을 몇몇 아이들 등교길 위해
배가 달리고 비행기가 날아오르는
이런 일들이 모두 범상한 생활이라는것을

휴양소 정양소들에 웃음소리가
로동자 농민의것으로 이 땅에서 울릴 때
관광지며 유흥지들의 즐거운 한때가
특권을 행사하는 몇몇 사람들의것이라는
자본주의세계와 마주설 때면
그래서 우리 또한 말하지 않던가
우리 제도가 제일ियो!

그렇게 이 땅에서는 자주 울리는 말이다
우리 누리는 모든것을 두고
세상에 이런 법도 있는가
세상사람들 놀라와하는 그 말이
평범한 말로 된 내 나라가 바로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우리에게만 있는 주권이다
세상에 둘도 없는 법으로
세상이 놀라와 쳐다보는 나라
인민이 법의 주인이 되어 법을 행사하는
오, 우리에게는 이런 법이 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사회주의헌법이 있다

우리 비서아바이



한 철 순

우리 리당비서아바이가 조선로동당대표자회 대표로 평양에 간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온 농장에 퍼져갔다. 농산5작업반 1분조논에서 벼를 베고있던 기와분조장 지동규는 소식을 날라온 옥경이에 게 물었다.

《애, 그게 정말이냐?》

《예, 방금전에 관리위원장동지가 말했어요. 오후 첫 시간에 리당비서아바이가 평양으로 떠난다구요.》

순간 지동규는 눈곱이 확 달아올랐다. 가슴속에서 심장이 쿵쿵 뛰면서 소용돌이치는 걱정을 온몸에 날라갔다. 아! 리당비서아바이가 조선로동당대표자회 대표로 선출되었구나!... 이번 대표자회가 우리 당력사에서 얼마나 큰 의의를 가지는 회의인가! 그런 중대한 회의에 리당비서아바이가 대표로 참가하다니...

지동규는 마치 자기가 대표로 선출된 것처럼 기쁘고 흥분되었다. 농장에서는 누구나 다 리당비서 심일섭을 《우리 리당비서아바이》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들은 리당비서라는 호칭이 없이 《우리 아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부름에는 친근하고 간격을 모르는 끝없는 존경과 믿음이 담겨져있었다.

《자, 이젠 오전작업도 끝났는데 우리모두 리당에 가서 비서아바이를 축하해주는것이 어떻소?》

기와분조의 나이많은 김병일의 말에 모두가 기뻐했다는듯 호응해나섰다.

《좋습니다, 어서 갑시다.》

《가만, 꽃다발이 있어야 되겠군요.》

《무슨 꽃다발을 준비할가? 장미? 함박꽃?》

《아니, 아니. 우리 비서아바이인 들판의 들국화를 좋아하셔.》

《그래 그래, 애들아! 어서 가자.》

분조의 웃음꽃인 처녀총각들이 들국화가 만발한

들판으로 달려가고 나이많은 사람들도 웃으며 뒤따라섰다. 큰 경사를 만난듯 서로 웃고 떠들며 달려가는 분조원들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지동규의 생각은 깊어졌다.

농장자체의 힘으로 저수지를 만들어놓고 20리구간에 제방을 쌓아 영원히 큰물피해를 모르게 한 천지개벽과 지난날 빼기밭에 강냉이와 감자만 심던 이곳에 토지를 정리하고 논을 풀던 이야기, 현대적인 살림집과 문화후생시설들이 일떠서고 해마다 알곡생산계획을 넘쳐수행한 소문난 모범농장... 이 모든것에는 리당비서 심일섭의 노력도 크게 깃들어있다.

걸음걸음 추억이 깊어지는 지동규의 생각은 저도 모르게 15년전의 그날에로 줄달음쳐갔다. ...

...리당비서 심일섭은 사무실에서 관리위원장과 마주앉았다. 어스름이 깃든 창력우에는 기름등잔이 가물거리며 방안을 희미하게 비치고있었다.

《비서동무! 경영위원회에 연유를 해결받으러 갔던 부위원장동무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참, 야단이군요. 연유때문에 트랙토르를 가동시킬것 같지 못합니다. ...》

리에서 제기되는 크고작은 일들에 대해서 언제나 실천적인 방도를 제기하고 완강히 떠밀어주는 리당비서이니 또 무슨 뽀족한 수가 없을가 하는 기대감이 그의 목소리에 질게 배여있었다.

《년로보장을 받고 집에 들어간 기와분조장의 후임으로 누굴 시켰으면 좋겠습니까?》

무슨 생각인가 깊이 하고있던 리당비서의 밀도끝도 없는 물음에 관리위원장은 두눈을 크게 떴다.

《예? 기와분조장을 말입니까?》

리당비서의 입가에 호방한 미소가 어렸다.

《왜 그리 놀랍니까?》

《예, 지금 언제 그런걸 생각할 겨를이 있습니까? 남은 속이 타 죽겠다는데...》

《하하하.》

심일섭은 관리위원장을 바라보며 큰소리로 웃었다.

《내 생각에는 지금 당장 중요한것은 연유보다도 농장원들의 살림집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름이 없으면 소로 밭을 갈수 있지만 기와가 없이는 살림집건설이든 보수든 아무것도 할수 없지 않습니까.》

리당비서의 말에 관리위원장은 서운해졌다. 농장의 사명은 알곡생산이다. 모든것이 어려운 이 고난의 시기에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짓겠는가를 생각하는것이 아니라 살림집문제에 더 신경을 쓰는 리당비서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다. 아직 살림집현황이 넉넉하진 못해도 한지에 나앉은 사람은 없지 않느냐!...

《관리위원장동무! 내가 관리위원장동무의 고충을 몰라서 그러는게 아닙니다. 지금형편에서 제일 부족되는것이 무엇인것 같습니까? 연유? 비료? 농기구?... 아닙니다. 지금 제일 부족되는것은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겠다는 신심이 없이 동요하고있는것입니다. 다시말해서 분발해 일어서겠다는 정신이 부족한것입니다. 올해부터 이삼년안에 리내 모든 살림집들을 다시 짓자고 구역농촌건설대외도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리당비서의 말에 관리위원장은 갑자기 가슴속이 넓어지면서 새로운 용기가 차오르는것을 느끼었다.

리당비서가 계속했다.

《옛날에 지지리도 못살던 우리 수동리가 이만큼 잘살게 된것만도 팬찮다는 만족감에서는 절대로 정신력이 나울수 없습니다. 우선 농장의 면모를 일신시켜야 합니다. 살림집들을 사회주의맛이 나게 현대적으로 짓고 작업반선전실들과 유치원, 탁아소, 상점도 개건합니다. 환경이 깨끗하고 농장원들의 사기가 올라가면 농사에서 제기되는 애로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동무?》

심일섭의 물음에 관리위원장은 큼직한 손으로 무릎을 쳤다.

《웁습니다. 역시 비서동무의 보는 눈이 다르군요. 농장원들이 떨쳐일어서면야 무서울게 없지요. 래일부터 당장 시작합니다.》

《하하하, 내 그럴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장 모내기전투가 박두한 농번기이니 한쪽으로 기와생산준비를 차곡차곡 해놓읍시다.》

《웁습니다. 그러자면 기와분조장감으로 책임적

인 사람을 골라야겠는데...》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관리위원장은 힘들게 입을 열었다.

《사실... 책임자가 한명 있긴 한데...》

《그게 누구니까?》

리당비서는 끄끙 갑자르는 관리위원장을 마주보며 재촉했다.

《예, 기와분조 지동규가 어떻습니까?》

리당비서는 약간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사람이 영민해서 기계속내도 잘 알지요. 그거 꼭 제 아버지를 닮은것 같습니다.》

리당비서 심일섭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농장에서 30여년간을 당일군으로 일해오면서 누구네 집에 닭이 몇마리이고 김치독이 몇개인것까지도 거의나 알고있는 그가 지동규를 모를리 없었다. 사람이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눈에 잘 띄우지 않지만 맡겨진 일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간진 일쫓씨로 하여 분조원들속에서 인망이 높았다.

그리고 남다른 가정적고충으로 항상 생각을 많이 한다는것도 잘 알고있었다. 가정적고충이란 그의 아버지 문제였다. 아버지 지희선은 대가 세고경우가 밝은 사람이었는데 농장에서 뒤떨어진 작업반을 맡아가지고는 한두해사이에 앞선 작업반으로 추켜세우곤 한 손탁이 센 초급일군이였다.

지난 시기에 그가 뒤떨어진 농산1작업반을 천리마작업반으로 만들어놓고 다른 작업반장으로 조동되었을 때 작업반원들이 관리위원회에 찾아와 들이댔다. 뒤떨어졌던 자기네들이 이젠 당당히 앞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떠나면 섭섭하지 않느냐. 손탁이 세고 인정많은 회선반장을 내놓을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제기하였다.

그런 그가 어느해인가 우에서 지정해준 새로운 강냉이종자를 심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늙은이들의 의견대로 재래종을 심었다가 농사를 잘 짓지 못한 파오를 범하였다. 그 일로 반장사업을 그만둔 뒤 급병에 걸려 손쓸새없이 세상을 떠났다.

아무리 지난 시기 일을 많이 했어도 파오를 벗지 못하고 갔으니 그의 가정에는 저도 모르게 그늘이 비끼게 되었다.

리당비서로 부임되여온 후 심일섭은 그것이 가슴에서 내려가지 않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의 집에 찾아가 힘이 되는 이야기도 해주고 걸린 문제들도 풀어주었다. 지금은 지동규의 딸 은경이가 때없이 집에 들리는 그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감겨돌아가지만 지동규의 얼굴에 비낀 그늘은 좀처럼 가셔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지동규가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생각하였지만 리당비서 심일섭의 눈은 속이지 못하였다. 사람의 죄의식이란 이렇게

도 집요한것인가... 아니다! 죄의식속에 산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깨끗한 양심을 고이 간직하고 산다는것을 반증해주고있다. 아버지의 잘못을 늘 가슴속에 새겨안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고 소중한가.

심일섭은 최근에 와서 지동규의 집에도 찾아가보지 못했고 그에 대해 관심을 돌리지 못한 자신을 돌이켜보며 웅대했다.

《관리위원장동무의 의견을 지지합니다. 난 찬성입니다.》

리당비서가 응해나서자 관리위원장의 너부죽한 얼굴에 순진한 미소가 허우룩이 피어났다.

《고맙습니다, 비서동무! 이제 그의 아버지에게 진 빚을 좀 갚는것 같습니다, 허허.》

리당비서는 관리위원장의 마음이 이해되었다. 지희선의 반장해임을 주장한것이 당시 기사장으로 일하던 관리위원장이었던것이다.

지희선이 너무 급작스레 사망하자 자기가 너무 과하게 처리하지 않았는가 하는 후회로 늘 마음이 무거웠다고 한다.

두사람은 후련한 마음으로 담배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며칠후 초급일군회의에서 관리위원장이 지동규를 기와분조장으로 임명한다고 말하였다. 순간 서로 마주보는 초급일군들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 믿음과 찬성의 표정들이 엇갈렸다. 뒤줄에 앉아있던 지동규는 관리위원장의 말에 깜짝 놀라며 귀를 의심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것이 아닌지... 그러나 자기에게 쏘리는 못눈길들에서 그것이 사실임을 느끼자 그는 그만 머리를 푹 떨구었다. 기쁨은 한순간!... 자기가 재목이 못된다는 생각이, 때없이 떠오르며 지긋게도 괴롭혀온 자신의 처지에 대한 생각이 달아오른 심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주눅이 든 목소리로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저... 전 아직 자격이...》

순간 지동규를 기대어린 눈길로 바라보던 심일섭의 얼굴에 실망이 어렸다. 당조직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한번 용기를 내서 본때있게 일해보겠다고 말할줄 알았던 그가 이렇게 나오리라고는 생각못한것이였다.

하지만 그는 얼굴에 너그러운 웃음을 띄우며 이렇게 고무했다.

《지동무, 괜찮소. 우린 동무가 당조직의 믿음을 그렇게 무겁게 받아안는걸 보니 마음이 놓이누만.

다른 생각말고 준비를 하오.》

회의를 끝낸 후 심일섭은 이미전에 그를 만나

마음속 준비를 시켰어야 했을걸 하는 생각을 하였다. 그것이 마음에 걸렸던 리당비서는 며칠후 농산5작업반의 포만상태를 돌아보고 몹시 지쳤지만 퇴근길을 돌려 기와분조로 향했다.

넓은 기와생산현장에 이르니 사위는 고요한 정적속에 묻혔는데 어디선가 풀벌레의 찌르륵거리는 울음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커다란 흙무지엿을 에돌아 기와찍는기계으로 다가가던 그는 우뚝 떴어섰다. 누군가 전동기를 그러안고 잠든것이 보였던것이다. 손전지를 꺼내 비쳐보니 그는 다름아닌 지동규였다.

전동기의 정비를 했는지 나사들개가 쥐여진 손에 기름이 묻어있었다. 거뭇거뭇한 기름자욱이 있는 얼굴을 전동기 몸체에 기대다보니 얼굴모양이 우습강스럽게 일그러졌다. 그를 내려다보는 심일섭의 가슴은 몽클해졌다.

자기의 일터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컸으면 저렇게 기계를 안고 밤을 새우랴!...

그는 후더운 마음을 진정시키며 자기의 덧옷을 벗어 그의 등에 씌워주었다. 그리고는 작업장 주위를 돌아보기 시작하였다. 무두룩한 흙무지, 차곡차곡 무쳐놓은 장작무지, 깨끗이 청소해놓은 기와로... 농번기만 지나면 일시에 생산을 시작할수 있게 준비가 다 갖추어져있었다.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뒤를 돌아보니 언제 깨여났는지 지동규가 덧옷을 받쳐들고 서있었다.

《어째 벌써 일어났소? 좀더 자지.》

《저, 비서동지가 이 밤중에 어떻게?...》

《흠, 기와분조에 주인이 없는것 같아서 대신 지킬가 했더니 그래도 사람이 있구만.》

심일섭의 비양기어린 목소리에 지동규의 머리가 푹 숙어졌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3작업반쪽에서 야간작업으로 거름을 실어내는지 트랙터의 통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동규가 머리를 번쩍 들더니 갈리는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비서동지! 절 때려주십시오. 제가 당조직의 믿음을... 저울질했습니다.》

심일섭은 지동규의 어깨에 두손을 다정히 올려놓았다. 그가 비로소 자기의 진심을 터놓은것이다.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진심뿐이라는것을 그는 다시한번 느끼었다.

《허허, 뭘 그리 심각해서 그러오? 자, 한대 주오.》

심일섭은 지동규가 내미는 담배쌈지에서 담배 한대를 두툼하게 말아 물면서 계속했다.

《지동무, 기쁘구만. 이렇게 집을 든든히 지키는 주인을 보니 마음이 놓이거던. 그래 어머니 건강하시오? 요즘 일이 바빠 자주 가지 못했는데 어머니가 육하실거요. ...》

심일섭의 눈앞에는 일흔을 가까이 하고있는 지동규의 어머니 모습이 떠올랐다. 남편의 떳떳치 못한 과거때문에 마음고생 많은 그가 네남매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심했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였다.

지동규의 자책어린 목소리가 울렸다.

《전번날 회의가 끝난 다음 집에 들어간 저는 어머니에게서 된육을 먹었습니다. 아마 제 일생에 그렇게도 준절하게 욕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처음 본것 같습니다. 〈덜돼먹었다. 당조직의 믿음을 두고 감히 저울질하다니? 네 아버지도 일 잘한다는 평가에 소총명을 부리다가 그런 파오를 범했는데 오늘은 네가 또? 당조직의 믿음을 떠난 인생이 무슨 값이 있겠느냐? 당을 어머니라 부르면서 그게 무슨 행동이냐... 이제 당장 리당비서 어른을 찾아가서 잘못을 빌어라.〉

전 한마디의 대꾸도 못했습니다. 그저 후회와 자책만이 가슴속에 아프게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기와적을 준비를 하나하나 하는것으로...》

심일섭리당비서는 지동규의 어깨를 다정히 잡아 주고나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자, 이제 퇴근하구요.》

어데선가 시간을 잊은 닭울음소리가 구성지게 울려온다. 최아바이네 집에서 무엇을 하는지 불 때는 연기가 굴뚝이 미여지도록 피어올라 마을에 퍼져간다. 소외양간 두엄냄새와 버짚연기냄새가 한데 어울려 농촌의 밤정서를 복돋구어준다. 밤하늘에서 은은히 내려비치는 달빛이 써레친 논판의 거울같은 물면에 부딪쳐 은빛으로 천갈래, 만갈래 부서진다.

《참, 좋은 밤이요. 지동무, 우리 이 아름다운 마을을 더 살기 좋은 선경으로 꾸려보자구. 농사도 잘 짓고 살림집도 번듯하게 새로 짓고...》

《비서동지!...》

지동규는 뜨거워오르는 가슴을 안고 리당비서의 얼굴을 존경어린 눈길로 바라보았다. ...

그때부터 지동규는 그야말로 자기의 뜨거운 정열을 다바쳐 기와생산을 올려세웠고 새로운 살림집들이 건설되는족족 땀시있는 조선기와의가 없혀지게 되었다. ...

관리위원회로 가는 큰길에 나서니 농장마을 풍경이 한눈에 안겨온다. 그리 높지 않은 야산들이 병풍처럼 둘러막혔고 잣나무, 밤나무들이 짝우거졌다.

가슴이 탁 트이는 넓은 도로가 쪽 뻗어있었고 산기슭에는 새 세기의 미감에 맞는 무척 아담해보이는 살림집들이 줄지어 서있었다.

마을을요로는 맑은 수동천이 흐르는데 강기슭에

높이 쌓은 제방에는 갖가지 나무들이 푸르싱싱하게 운치를 돋군다. 한생토록 뼉심을 들여 더 좋게, 더 훌륭하게 꾸려갈 욕망이 생기게 하는 마을풍경이었다.

지동규가 관리위원회에 거의 이르렀을 때 마침 오전공부가 끝났는지 아이들이 웃고 떠들며 교문밖으로 나왔다. 《아버지!》 하는 웨침소리가 울리더니 중학교 5학년에 다니는 딸 은경이가 달음질쳐왔다. 무척 귀해하는 외동딸인지라 지동규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저도 모르게 피어났다.

《그래, 공분 끝났니?》

《예, 오늘 리당비서할아버지앞에서 당창건기념일에 진행할 예술공연연습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날보고 손공금을 잘 탄다고 칭찬하셔요. 난 막 부끄러워서...》

《허허, 그래? 할아버지의 기대가 크신데 공부도 더 잘하고 손공금도 잘 타야 한다.》

《예, 참 아버지 집안 안 가세요?》

지동규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대꾸했다.

《오참, 너도 함께 가자. 오늘 할아버지가 조선로동당대표자회 대표로 평양에 가신단다. 보렴, 농장원들이 비서아바이를 축하해주러 가고있지 않니?》

《그래요? 야- 좋다.》

은경은 두손으로 박수를 치며 기뻐서 어쩔줄 몰라한다.

《아버지! 빨리 가시자요.》하며 짱총짱총 달려가는 딸애를 사랑어린 눈길로 바라보는 지동규의 눈앞에는 잊을수 없는 추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농장의 모든 력량이 총동원되는 모내기전투때에서 기와분조도 모내기전투에 동원되었다. 기계속에 밝은 그가 고장난 모내기기계를 수리하고있는데 안해가 급히 달려와 소리쳤다.

《어보! 은경이가... 은경이가...》

얼마나 숨가쁘게 달려왔는지 안해는 말을 잊지 못하고 두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은경이가 어떻게 되었다는거요?》

《글쎄... 당장 죽을것만 같아요. 배를 그러안고 돌아가는데...》

《뭐?》

지동규는 어떻게 집에까지 달려왔는지 모른다.

문을 벌컥 열어제끼고 들어서니 어머니가 손녀를 품에 안고 사색이 되어 어쩔바를 몰라하고 있었다.

《어이구! 아애비야, 이걸 어쩌면 좋니? 급성충수염이라는구나. 구역인민병원에 가야했는데 농장차가 고장나 수리한대. 인차 손을 쓰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데…》

어머니는 손녀의 생명이 당장 꺼지는줄 알고 겁이 나서 부르짖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손녀였다. 그런 손녀가 의식을 잃고 빈사지경에 이르렀으니 할머니의 심정이 오죽하랴!…

《어머니! 시간없어요. 자, 등에 업혀주세요.》

《아니? 애야, 50리길을 업고가느라면… 아이구, 우리 손녀는 다 죽은 애다. 어이구…》

할머니의 절망적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문 밖에서 뽕뽕 하는 경적소리가 울리더니 리당비서와 리인민병원원장이 뛰어들었다.

《은경이가 어떻게?》

심일섭의 얼굴에 깨알같은 땀방울들이 보송보송 돋았다.

《아니? 비서동지가 어떻게…》

《뭘 멍청하니 서있소? 빨리 애를 차에 태우지 않고?》

심일섭은 다짜고짜로 지동규의 등에서 아이를 받아안더니 대문밖으로 뛰쳐나갔다. 그의 뒤를 따라 나가는 지동규의 가슴속에는 안도감이 저절로 차올랐다.

창황중에서도 뒤따르던 원장이 지동규에게 리당비서가 차를 구해가지고 왔다고 귀뜸해주었다.

자동차는 쏜살같이 달렸다. 심일섭은 운전사에게 속도를 더 높이라고 연신 재촉하였다. 조바심에 잠긴 그의 얼굴에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마음속의 긴장을 말해주듯 어금이를 짓씹은 판자노리가 불끈거렸다.

구역인민병원에 도착한 즉시 은경이는 수술실에 들어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수술은 급성충수염이 복막염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되긴 했지만 성과적으로 끝났다.

지동규는 수술이 끝나자 긴장이 풀려 허청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고개를 들던 그는 문앞에서 오락가락하는 심일섭을 발견하고 우뚝 굳어졌다.

이미 돌아갔을줄로만 알았던 리당비서였다.

《아니? 비서동지…》

《어떻게 됐소? 수술이…》

지동규는 웬일인지 코마루가 찡해올라 고개를 외로 틀었다. 아직도 봄바람이 쌀쌀한 밤을 한지에서 새우다니… 지동규의 눈가에 맑은것이 찰랑찰랑 고이더니 아래로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념도 하지 않고 목멘 소리로 부르짖었다.

《성과적으로… 끝났…》

《그래? 됐소. 이젠 우리 은경이가 살았소, 살았단 말이요, 하하하.》

심일섭의 웅글은 웃음소리가 동이 터오기 시

작하는 병원구내 하늘가에 청청하게 울려퍼졌다.

부리부리한 눈에는 피곤이 실렸으나 관골이 두드러진 얼굴에는 사랑과 애정, 열정과 신심이 넘쳐나보였다. 지동규는 은경이를 보러 가자면서 앞장서가는 심일섭의 팔을 잡았다.

《비서동지, 이젠 마음놓고 돌아가십시다. 피곤하시겠는데 조금이라도 휴식해야…》

《아니, 난 그 애가 눈을 뜬걸 봐야 마음놓겠소. 어서 가지요.》

입원실안은 고요한데 몹시 아늑해보였다. 흰눈같이 정갈한 백포를 씌운 침대가 두개 놓여있었고 원탁우에는 파일과 물병, 고뿌 등이 놓여있었다.

창가에는 새벽빛이 밝게 흘러들었다. 심일섭은 잠든 은경이의 자그마한 두손을 꼭 모두어잡고 하얀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비서동지… 저희들때문에 밤을 새우시고… 정말 뭐라고 인사드려야 할지…》

지동규의 안해가 울음섞인 목소리로 떠듬거렸다.

《은경이 어머니! 몹시 놀랐지요? 허허, 원래 급성충수염이라는게 그렇게 사람을 볶습니다. 수술이 성과적으로 됐으니 이젠 마음놓으십시오. …가만, 내가 빨리 가긴 가야 하겠구만. 집에서 할머니가 속이 까매서 기다리겠는데…》

심일섭이 일어서려는데 은경이가 눈을 뜨고 나직이 찾았다.

《할아버지!…》

심일섭은 너무 기뻐 그 애의 두손을 꼭 잡았다.

《오, 우리 은경이가 눈을 떴구나. 몹시 아팠지? 그래도 수술을 견뎌낸걸 보니 참 용타. 장하다.》

가만, 죽음을 이겨낸 우리 은경이에게 뭘 줄까? 아! 그렇지, 손퐁금… 은경아! 우리 집에 놓고있는 손퐁금이 있다. 이제 병이 나으면 가져다 타거라.》

심일섭의 말을 듣고있던 은경의 볼에 홍조가 어리고 보조개가 곱게 피어났다. 머루알같이 까만 눈동자가 별처럼 초롱초롱 빛난다. 그 눈빛만 보아도 그 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수 있었다. 심일섭은 은경의 두볼에 자기의 입을 꼭 갖다대고나서 돌아섰다.

《비서동지! 후!…》

지동규의 안해가 그만에야 오열을 터뜨렸다. 지동규의 눈가에도 맑은것이 고였다. …

지동규는 회상에서 깨어났다. 생명의 은인!… 사람들은 생명의 은인에 대해서는 한생토록 잊지 않으며 대를 두고 갚으려 한다. 인간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육체적생명까지도 지켜주는 우리 당 일꾼이니 누구인들 진정으로 따르지 않으랴!… 친혈육의 정! 바로 그것이 농장의 어른이나 아이나 할것없이 《우리 리당비서아바이》라고 친근하게 부르게 하는 비결이었고 남다른 견인력이였다.

관리위원회옆에 농산3작업반의 누렇게 익은 논이 눈앞에 펼쳐졌다. 벼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고개를 숙이고 가을바람에 설레이는 논판에서 네모난 평뜨기한 자리가 유난히 눈길을 끌었다. 며칠전에 농장에서 수확고판정을 하었는데 3작업반 1분조 벼의 천알당무게가 제일 높았다. 분토와 풀거름, 12바닥파기, 생물활성비료, 흙구이 등 부식토생산을 많이 한 덕이였다. 벌을 바라보는 지동규의 눈앞에는 처벌받고 한달동안 3반 1분조에서 김매기를 할 때의 일이 떠올랐다.

…저녁무렵에 열린 초급일꾼들의 총화모임은 매우 심각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자리에서 일어난 지동규는 머리를 깃수그리고 방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리당비서 심일섭은 여전히 엄한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날카롭게 추궁했다.

《그것이 평농장원들사이라면 좋은 품성으로 장려할만 한것이지만 초급일꾼과 농장원사이이기 때문에 더 엄중한거요. 자기 아래 사람들을 부려먹는 나쁜 버릇이 자라면 뭐가 되는지 아오? 관료주의자가 되구 권세를 쓰려 하고 인민들의 머리우에서 호통질하게 된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규률을 세운거요. … 동문 초급일꾼의 자격이 없소.》

지동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으나 가슴속에서는 억울한 감정이 부글부글 끓었다. 리당에서는 농장원세대당 20톤씩 생산하게 된 풀거름과제를 반드시 본인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규률을 세웠다.

물론 이것은 분조장으로부터 시작하여 관리위원장, 리당비서에게까지 일꾼들에게만 국한된것이였다. 만약 이것을 어기고 일부 일꾼들이 손이 팔리고 시간이 없다고 농장원들을 동원시켜 제집의 풀을 베었을 때는 그가 누구이든지 용서가 없었다.

어제 지동규가 휴식날을 리용하여 풀베기하려고 낫을 차고 나섰는데 분조의 막내인 영훈이가 전날 자기네 집 풀베기를 도와준 분조장에게 신세값음을 한다면서 따라나섰다. 아무리 사양하고 되돌려세웠지만 막무가내였다.

서로 도와주는것이 무엇이 나쁜가고 하며 너무 떼를 쓰는 바람에 그를 데리고 가서 함께 풀을 베었다. 그것이 사달을 일으킨것이다.

총화모임에서는 지동규에게 농산3작업반 1분조

에서 일하도록 책벌을 주었다.

무거운 마음 안고 집으로 터벌터벌 돌아오는 지동규의 가슴속에서는 리당비서에 대한 섭섭한 생각이 웅어리처럼 굳어져있었다.

며칠후 점심시간이였다. 함께 일하던 농장원들이 점심먹으러 집에 들어갔으나 지동규는 하던 포전을 마저 끝내려고 혼자서 제초기를 밀고있었다. 스르륵 스르륵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제초기살에 잡풀과 함께 착잡한 그의 생각도 엉켜돌아갔다. 비서동진 너무하다. 내가 관료주의자라구?...

시간이 퍼그나 지나서야 집으로 향한 그는 청송풀어귀에서 풀더미를 등에 진 사람과 마주쳤다. 풀더미가 얼마나 큰지 사람은 잘 보이지 않고 커다란 풀무지가 움직이는것 같았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는 뜻밖에도 리당비서였다. 리당비서가 자기 손으로 직접 풀을 베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렇게 점심시간에 풀지계를 지고 오는것을 보니 놀라왔다.

심일섭은 지동규를 알아보자 지계를 내려놓고 작시미를 뻗쳤다. 목덜미와 얼굴로 비오듯 흘러내리는 땀을 문대며 그는 물었다.

《왜 이리 늦었소? 식사시간이 지났는데...》

《저... 하던 일을 마저 하느라고...》

지동규는 머뭇거리며 얼버무렸다. 재무지속의 불씨가 바람을 맞으면 다시 빨갱게 살아나는것처럼 리당비서를 보자 웬일인지 고까운 감정이 울컥했다.

그의 마음을 들여다본듯 심일섭이 자기의 어깨박죽을 두드리며 시뭇이 웃었다.

《어- 빠근하구만. 이젠 나이가 있어 그런지 풀 한단도 무겁거든. 그래도 젊었을 땐 버가마니 뒤개는 뻐다뻐았는데, 허허...》

그 말에 지동규는 고까운 생각은 슬며시 사라지고 걱정과 동정이 앞섰다. 위수술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리당비서라는것을 알고있었던것이다.

《저... 소달구지라도 쓰실것이지... 그러다...》

《달구지가 할일이 얼마나 많소? 농장원들이 다 자기의 풀을 등짐으로 나르거든. ... 실은 점심참에 한집 베오자고 나섰는데 정작 풀을 보니... 허허, 사람의 욕심이란...》

심일섭은 길가의 잔디우에 털썩 앉으며 지동규에게 자리를 권하였다.

《지동무! 이왕 늦은김에 한대 태우자구.》

지동규가 머뭇거리며 자리에 앉자 심일섭은 자기의 담배를 내밀었다.

《지동무! 처벌이 아프지?》

다정히 울리는 심일섭의 물음에 지동규는 불시에 가슴이 찌르르해졌다.

《지동무! 지금 일부 사람들은 초급일군이 되면서부터 차리려 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생활을 더 좋게 하겠는가 하는데 신경을 쓰고있소. 난 그런 사람들을 볼 때면 안타깝구만. 군중속에 신망이 있으면 (물론 이건 자기한테 달려있지만) 모든 게 해결되오. 군중은 소박하고 마음이 무척 곱지. 초급일군들이 일만 잘하면 무엇이든 더 주고 먼저 쓰라고 양보하고 내세워주는 게 바로 군중이요. 그러나 군중의 지지와 사랑을 받자면 자기를 희생시킬 줄 알아야 해. 그래서 초급일군이 힘든 거지. ...

그 자린 호령하고 받아내는 자리가 아니라 심부름하고 아글타글 애쓰는 자리란 말이요. 이걸 리해 못하는 사람은 초급일군의 자격이 없소. 어떻게 소? 내 말이 리해되오?》

지동규의 머리는 점점 더 아래로 수그러졌다.

예로부터 매를 맞은 사람은 발편잡을 자도 매를 든 사람은 마음편히 못 잔다고 했다. 책벌받은 자기가 위축될까봐 걱정하여 마음쓰는 리당비서를 보느라니 어릴 때 어머니가 매를 들고는 밤새껏 머리맡에 지켜앉아 얼굴을 쓰다듬어주던 모습이 떠올랐다.

《비서동지! 제가 뭐라고 그리도 마음쓰십니까. 철없이 원망만 앞세운 제가 나쁜 놈입니다. ...》

지동규의 목소리는 걱정에서 떨었다.

《허허, 난 지동무가 리해하리라고 믿었소. 이런 한결 마음이 놓이는구만. 자, 그럼 어서 가서 식사를 하라구.》

자리에서 일어나 지계를 지려던 심일섭은 문득 생각난듯 돌아섰다.

《참, 은경이가 왜 요즘 집에 오지 않소?》

《저... 비서동지의 바쁜 사업에 지장된다고 어머니가 단속하는 모양입니다.》

《그래? 음... 그러지 마오. 나도 이젠 나이가 있어 그런지 아이들이 곱거던. 래년엔 그 애를 대학에 보내야지? 사범대학을 졸업시켜 우리 농장 학교에 데려오자구.》

심일섭은 이렇게 말하고나서 지계를 지고 씨엥씨엥 걸어갔다. 지동규는 멀어져가는 리당비서의 모습을 바라보며 뜨거운것을 삼키었다. ...

생각에서 깨어난 지동규가 관리위원회가 가까이 보이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였다. 어느 집에서 대사를 치르는지 웃음소리와 함께 흥겨운 음악소리가 울려왔다. 새로 지은 살림집들이 한곳에 몰려있어 《새마을》이라고 부르는 마을은 보기에 도기분이 상쾌해졌다.

하늘을 향해 쳐들린 네귀가 날아갈것 같은 조선기와집들, 농촌집의 특성에 맞게 한쪽에 번듯하게

지은 창고와 위생실들... 오지물을 올린듯 번들거리는 탐탁한 조선기와를 바라보는 지동규의 눈앞에는 작년가을걷이가 끝난 뒤 있었던 일이 생각났다. 그게 아마 10월 중순이었지...

...가을걷이의 마감뒤처리를 어떻게 하였는가를 알아보려고 1작업반에 나갔던 심일섭은 마을늙은이들이 기와가 맥이 없이 잘 부서진다고 하는 말을 듣고 곧장 기와분조로 향하였다.

심일섭은 반갑게 인사하는 지동규에게 물었다.

《올해 기와생산계획을 다 했는지?》

《예, 어제까지 마무리지었습니다.》

《수고했소. 그래 이제부터 뭘 할 계획이요?》

《예, 기와기계도 정비하고 분조원들을 좀 쉬울게 합니다. 전투를 하느라 모두 지쳤습니다.》

심일섭은 고개를 끄덕이였다. 농번기에는 모내기, 김매기, 가을걷이에 동원되고 농한기와 짝시간을 내서 기와를 찍느라 남모르는 수고를 많이 한 기와분조였다. 심일섭은 마당을 천천히 거닐다가 지동규에게 방금 로에서 꺼낸 기와 한장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그가 가져온 기와장을 받아든 심일섭은 잠시 눈여겨보다가 땅바닥에 얹어놓고 두발로 힘주어밟았다. 기와는 두쪽으로 갈라졌다.

《이래도 만족하겠소? 자만이 얼마나 유해로운지 그래 모른단 말이요?》

심일섭의 엄한 지적에 지동규는 두눈을 크게 떴다. 아무려면 흙으로 빚은 기와가 어떻게 세멘트 기와만큼 든든할수 있는가?...

심일섭은 지동규의 속생각을 알아차린듯 면바로 찍어 말하였다.

《혹시 동문 농장살림집에는 이런 기와도 펜찰다고 생각하는게 아니요? 아니! 농장원들의 주택이기때문에 시내살림집보다 기와가 더 든든해야 하오. 생각 좀 해보오. 농장원들은 지붕우에 가을에는 무우시래기도 널고 고추도 말리우느라고 자주 올라가 밟는단 말이요. 그런데 이렇게 깨지면 보수하고 또 보수하고... 밀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니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10만장이 아니라 백만장이라도 모자랄거요.》

지동규는 아무런 대꾸도 할수 없었다. 당면한 계획수자에만 신경쓰면서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자기가 몹시 부끄러웠다. 잠시 후 지동규를 리당사무실로 데리고간 심일섭은 서류함을 열더니 흰 종이로 두툼하게 싼 책을 내밀었다.

《자, 반소. 기와생산기술을 서술한 참고도서들이요.》

《예? 정말입니까?》

지동규는 너무 기뻐 책을 받아들고 어쩔바를 몰

라했다. 그러는 지동규를 정어린 눈길로 바라보며 리당비서는 입을 열었다.

《내 기와를 구워본적 있는 늙은이들에게 물어 보니 기와로의 온도가 일정하게 올라가면 청솔을 댄다는거요. 그러면 청솔연기가 수백도의 온도와 압력에 의해 기와를 푸른색으로 물들인다고요. 우리 조상들이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옛날에 벌써 화학적방법이 아니라 이런 천연적인 방법으로 색조화를 한건 참 경탄할만 한것이거던. ...

그러니 이 책들을 보면서 기와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라구.》

《알았습니다.》

심일섭은 신심에 넘쳐 대답하는 지동규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그의 어깨를 짊 잡았다.

《지동무! 언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느 한 도에서 자체로 생산하여 씌운 기와를 보시고 잘 만들었다고 치하해주시면서 농촌집에 멋있는 기와를 씌우니 참 보기 좋다고 기뻐하시었소.

우리도 좋은 기와를 집집마다 씌우고 장군님을 농장에 모셔야지?...》

《비서동지!...》

지동규는 간절한 그리움에 젖은 심일섭의 부리 부리한 두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었다. 리당비서의 가슴속에 무엇이 끓고있는가를 후덥게 느끼는 지동규의 눈앞에는 며칠전에 목격한 일이 떠올랐다.

...3작업반 1분조논에서 가을한 벼단을 묶고 있던 지동규는 심일섭이 다가와 묻는 바람에 허리를 폈다.

《지동무! 기와기계정비는 다 됐겠지?》

《예, 만단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음, 이제 하루이틀이면 가을걷이도 끝나겠는데 겨울전에 빨리 기와를 마저 찍어야겠소.》

그때 리직판원이 도면말이를 들고 찾아왔다.

《농촌건설대에 부탁해서 그린겁니다.》

도면을 들여다보던 심일섭의 시꺼먼 눈섭이 꿈틀거렸다.

《틀렸소. 리당비서나 관리위원장의 집은 평방수도 남보다 크고 울타리를 높게 쳐야 한다는것을 누가 시켰소?》

심일섭의 입에서 노성이 터져나왔다. 손에 든 설계도면이 후들후들 떨었다. 지동규는 지금까지 리당비서가 이처럼 격노한것을 본적이 없었다.

이윽고 심일섭은 애써 자신을 다잡은듯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난 말이요, 북적대는 마을 한복판에서 집집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누구네 집에서는 무엇을 먹으며 누구네 딸은 어데로 시집가는지, 누구네 아

들은 언제 제대되고 어느 총각하고 처녀가 좋아하는 사이고 유치원에서는 어느 집 귀염둥이가 노래를 잘 부르는지 하는것들을 죄다 알고 애로되는것은 풀어주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사는것이 제일 좋더구만.》

심일섭의 말이 끝났으나 직판원의 수그린 머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지동규의 가슴도 그들먹해졌다. 아! 우리 리당비서아바이!... 바로 이래서 온 농장이 허물없이 부르며 믿고 따르는것이 아닌가!...

갑자기 술렁대는 소리에 회상에서 깨어난 지동규는 리당사무실 마당에 가득 모여선 농장원들을 바라보았다. 누가 조직한 사람도 없는데 온 마을이 떨쳐나섰다. 잠시후 승용차가 도착하자 리당비서 심일섭이 밖에 나왔다. 늘 입고다니던 작업복이 아니라 까만 양복에 넥타이까지 받쳐매고 나온 그를 보자 사람들이 환성을 올리며 다가섰다.

《비서동지! 축하합니다.》

그때 손에 탐스러운 꽃뭉음을 받쳐든 지동규의 늙은 어머니가 사람들을 헤치며 앞으로 나왔다.

《이보게! 리당비서, 혹시 어버이장군님을 만나 뵈옵거들랑 꼭 우리 농장에 모시고싶은 농장원들의 심정을 말씀드려주게. 이렇게 살기 좋게 잘 꾸러진 마을을 보시면 그이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응?》

그러자 농장원들이 한결음 다가서며 이구동성으로 웨쳤다.

《어버이장군님을 우리 농장에 모시고싶습니다.》

심일섭리당비서의 얼굴에는 무엇이라고 형언키 어려운 감동이 어렸다. 그가 20여년간을 리당비서로 일하면서 온넛과 몸을 바쳐 쌓아온 소원을 지금 농장원들이 웨치고있는것이였다.

《여러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농장이 살기 좋은 사회주의선경으로 잘 꾸러졌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꼭 찾아주십시오. 그러니 우리모두 그날을 위해 더 힘껏 일해갑시다!》

농장원들은 열렬한 박수로 호응하였다. 잠시후 승용차는 심일섭리당비서를 태우고 쏜살같이 달려갔다. 지동규는 손을 흔들며 따라서는 농장원들을 바라보며 뜨거운 생각에 잠겼다.

우리 리당비서아바이!

네모난 얼굴, 넓은 이마, 약간 두드러진 광대뼈, 절절한 목소리... 어디서나 흔히 보게 되는 수수하고 평범한 모습이다.

그러나 특이한 인간미로 하여 한생토록 존경하고 따르고싶은 일군이였다. ...

황홀한 래일이 바라보이는 곳에서

공 광 철

나날이 흥해가는 우리 생활.

가는 곳마다 희열에 넘친 얼굴들과 활기찬 발걸음들. 새라새로운 기적과 혁신으로 날이 밝고 해가 지는 내 조국에서 가슴벅찬 충동을 받아안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지만 얼마전 평양제1백화점에서 받은 충격은 좀처럼 사라질 줄 모른다.

아름다운 수도의 중심에 현대적인 건축미를 한껏 뽐내며 자리잡은 평양제1백화점.

사실 백화점으로 가는 나의 마음은 좀 번거로웠다.

원래 상점출입을 잘하지 않는 성미이고 꼭 필요한 물건을 살 때만 가끔 찾아가는 나였다. 게다가 백화점이라면 녀성들이나 즐겨찾는 곳이라는 일종의 편견도 갖고있었던것이다.

《그러지 말고 한번 가보세요. 좋은 글감이 상품보다 가득 쌓였다는데두요.》

안해의 말이라고 귀등으로 들어넘기려던 나는 좋은 글감이 가득 쌓였다는 말에 부쩍 마음이 동해났다. 그래서 다음날 백화점을 찾아가게 되었다.

마가울의 찬바람이 부는 추운 날씨건만 백화점의 대형유리문으로 들어서니 훈훈한 온기와 함께 갖가지 화려한 빛갈의 상품들이 순간에 눈앞에 안겨들어왔다. 저도 모르게 《히야-》하는 감탄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알른거리는 대리석바닥과 산뜻한 벽체, 현란한 거울기둥들... 매대들마다에 이채롭고 문양고운 상품들을 땀시있게 가득히 쌓아놓았는데 얼마나 정갈하고 빛갈 고운지 상점이 아니라 천연보석들이 산지사방에서 빛뿌리는 옛말의 수정궁에라도 들어선것만 같았다. 물건 살 생각은 잊고 백화점의 전경에 연해연방 넋을 잃고 혀를 차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승강기로 다가가던 나는 그옆의 당과류매대에서 금방 상품들을 사들고 돌아서며 나누는 녀성들의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야, 정말 희한하지?》

《이게 모두 우리가 만든 상품들이라지.》

《난 벌써 강성국가의 래일이 눈앞에 바라보이는걸 뵈.》

《나두 같애. 호호호.》

그 어떤 가식이나 꾸밈도 없는 소박하고 진정에 넘친 목소리에 내 마음은 대번에 흥그러워졌다. 나는 마침 그 매대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알아보려 나온 백화점일군을 만났다. 알고보니 그는 지난 여

름 백화점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몸가싸이에서 안내해드렸던 일군이었는데 아직도 그날의 걱정을 못 잊는듯 두눈을 습벅이며 말해주었다.

《그날 장군님께서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백화점의 여러 매대들을 돌아보시면서 상품들을 보고 인민들이 좋아하는가고, 우리 인민들이 소리치며 잘살 날이 멀지 않았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쿵 울리고 코마루가 찡해움을 금할수가 없었다.

인민들이 좋아해야 한다. 보란듯이 잘살 날이 멀지 않았다. ...

그토록 인민을 위하시는 아버지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의 말씀이 나의 가슴에 되성처럼 울리는 속에 불현듯 얼마전 보통문거리고기상점에 갔을 때 일이 떠올랐다. 황홀하다는 말도 모자랄듯싶은 멋쟁이고기상점이 일떠서게 된 사연을 묻는 나에게 상점의 한 일군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두해전 보통강상점을 세워주신 장군님께서서는 또다시 우리 인민들을 이 세상 가장 행복하고 문명한 인민으로 내세우려면 1류급의 고기상점도 건설해야 한다시며 몸소 터전도 잡아주시고 여러차례 귀중한 가르치심까지 주시었습니다.》

현대적인 팽장설비마다에 그득히 쌓여진 각종 신선한 고기가공제품들, 어항에서 펄펄 뛰는 산고급어족들...

정말 볼수록 모든것이 흥하고 행복이 넘쳐나는 강성국가의 황홀한 래일이 눈에 보이는것만 같다.

이 꿈같은 현실이 어떻게 마련된것인가... 이 순간 내 눈앞에는 우리 장군님께서 헤쳐가시는 현지도강행군길이 우뚝이 떠올랐다.

희천과 홍남, 김철과 룡성, 원홍과 고산...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선군령도의 그 자욱이 드디여 행복의 열매로 익어 백화점매대마다에서 인민들이 황홀한 래일을 바라보며 저렇듯 기뻐하는것이 아닌가. 어찌 그 황홀한 래일이 여기 1백화점에서만 보인다 하랴.

주체철의 장엄한 노을을 펼쳐가는 김철, 주체비료가 쏟아지는 남홍, 주체섬유 비날론이 줄줄이 흘러나오는 2.8, 갖가지 과일들이 무르익어 향기 풍기는 원홍과 룡전, 날마다 키를 솟구며 일떠서는 만수대지구살림집건설장...

이 땅 그 어디서나 강성국가의 황홀한 래일을 바라보며 들끓는 조국의 현실.

나는 걱정과 흥분을 진정하며 백화점을 다시 돌

러보았다. 물건을 사들고 기쁜 맘으로 끊임없이 드나드는 사람들...

아마 안고가는것이 비단 상품 하나만이 아닐것이다. 강성국가건설대전의 새로운 위훈의 불씨도 함께 안고갈것이다.

수 필

아름다운 곳 에 서

기 경 호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되어 왔다.

하지만 나는 오늘 강렬한 충동에 이끌려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아름다움에 대해 다시한번 말하고싶다.

...

《선생님 보기에두 내가 밋게 생겼지요?》

뜻밖의 질문에 나는 어리둥절해졌다.

처녀의 이름은 한은별, 나이는 스물아홉살.

희천발전소 물길굴건설 자강도려단의 소문난 혁신자이며 바로 현실체험중인 나의 운광작업조 짝패였다.

머칠동안 함께 땀도 흘리고 식사도 함께 하며 가까와진 덕에 이처럼 스스럼없이 말을 나눌 정도로 우리는 아주 친숙해졌다.

개천-태성호물길건설때부터 지금까지 물길과 함께 걸어왔다는 당당한 로병이다. 다들 그를 《물길처녀》라는 궁지로운 별칭으로 부른다.

《은별이가 엉큼한데... 처녀들이 내가 밋지요 하고 물어볼 땐 애인이 생겼다면지...》

《예? 호호... 선생님두 똥을 곧잘 하시네. 저야 이미 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하며 처녀는 손가락 뱃을 펴보인다.

나도 안다. 처녀가 자신이 건설에 참가한 물길들을 다 애인이라고 부른다는것을. 개천-태성호 물길, 백마-철산물길, 미루벌물길 그리고 희천발전소 물길굴...

《확실히 동무 팬찮아.》

감동에 겨운 눈길로 은별을 바라보는데 그는 제 팔에 얼굴을 뽐히며 말했다.

《너무 그렇게 감동적인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여기 그런 사람이 어디 저뿐입니까?》

물론 옳다. 여기 건설장에는 사랑하는 자식을 부모들에게 맡기고 떠나는 부부돌격대원을 비롯하여 부자간, 부녀간에 형제, 삼형제, 지어 쌍둥이 돌격대원들도 있다.

허나 어디까지나 일은 일이고 생활은 생활인것이다. 처녀들이야 혼기를 놓치면...

나는 한시바삐 나날이 궁지롭고 환희에 넘친 우리 생활의 황홀한 태일에 대한 글을 쓰고싶은 충동을 안고 백화점을 나섰다. 우리의 투쟁과 창조로 밝아올 부강번영의 태일을 약속하며 저녁노을은 더더욱 붉게 타고있었다.

나의 은근한 걱정은 그날 저녁 려단정치부장을 만났을 때 풀렸다. 알고보니 그는 처녀가 아니었다. 미루벌물길공사가 끝난 다음 그는 같이 돌격대 생활을 하던 청년과 결혼식을 하였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로 신혼여행이 아니라 청춘들을 부르는 희천발전소건설장으로 가는 차표를 끊었다는것이다.

물길굴건설의 나날에 처녀는 **김일성** 청년영예 상수상자로 되고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도 지녔으니 결국 그가 지금껏 건설에 참가해온 물길은 곧 그 자신의 성장의 길이기도 한셈이다.

그러니 이 처녀야말로 시대의 본보기로 내세울 만 한 나무랄데 없는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라고 말할수 있는것이다.

나는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조국의 부름과 자기 삶의 목적을 하나로 결합시킬줄 아는 이들의 정신세계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인가.

오직 하나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이고 우리 장군님의 리상인 강성국가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품고있는 지향이 아름답고 꿈꾸는 리상이 아름답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결사의 투쟁과 순결한 희생정신이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인간들이 애국의 주소를 같이한 오늘의 최전선 희천!

바로 여기서 세상을 드놀래운 희천속도와 함께 세상이 다 알지 못하는 아름다움이 끊임없이 탄생하고있거니.

나는 말하고싶다. 진정 여기야말로 우리 시대 참된 아름다움이 꽃피어 만발하는 아름다운 세계,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다면 우리 시대 인간들이 지닌 마를줄 모르는 아름다움의 샘줄기, 꺼질줄 모르는 아름다움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것인가.

인민은 그를 키운 령도자를 닮는다.

그러다, 우리 인민의 아름다움은 인간이 지닐수 있는 아름다움을 최상최고의 경지에서 완벽하게 체현하고계시는 희세의 천출위인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신것이다.

수령에 대한 충정과 의리의 세계가 한없이 아름답고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시는 그 숭고한 리념이 그지없이 아름다우신분.

내 나라, 내 조국을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제일 강국으로 높이 떨치시려는 순결한 애국의 정신이 더없이 아름답고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존엄 높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시려 자신의 온 생애를 깡그리 기울이시는 결사의 정신이 그토록 고결하신분.

우리 장군님만을 닮고 우리 장군님만을 따르자.

바로 여기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답게 창조하고 건설하고 투쟁해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인민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가 있다.

아버지장군님을 따르고 그이를 닮는것이 생의 목적으로, 삶의 방식으로, 견인불발의 정신력으로 된 우리 인민. 거기서 참다운 보람과 행복을 찾을 줄 아는 인민이거니 어찌 그 삶이 그토록 아름답

지 않으랴.

이 땅 그 어디나 아름다운 인간들이 있다. 아름다운 노래가 세월과 더불어 울리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에 따라 일떠서고 있는 만수대지구건설장이며 소문없이 지상락원으로 변모된 통림군이며 아름다운 사람들이 창조하는 아름다운 생활은 내 조국땅 그 어디에나 있거니.

우리 인민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받들어 창조하는 아름다운 노래가 조국강산 그 어디서나 높이 울리고있다.

나는 가슴빠근하도록 긍지감과 자부심을 느낀다.

아, 아름다운 인간들이 사는 아름다움이 넘치는 내 나라.

이런 사람들이 가꿔가는 강성번영의 미래는 또 얼마나 아름답고 휘황찬란한것이라!

소 개

우리 식 탐정소설의 특징 몇가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서한체로 된 소설이나 일기체로 된 소설도 쓰고 추리소설과 탐정소설 같은것도 많이 써야 한다.》

흔히 탐정소설이라고 할 때에는 비밀로 되어 있는 사실을 몰래 찾아서 알아내는 사건을 주체로 하여 인물의 형상을 창조하는 소설문학의 한 형태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탐정문학은 우리 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발생발전하여왔다.

이미 우리 나라에서는 고구려시기에 《병불염사》의 전법을 적용하여 외래침략자들을 단호히 물리치고 민족의 슬기와 용맹을 세상에 크게 떨쳤다.

《병불염사》란 군사에서는 적을 속여넘기는 기만도 꺼릴것이 없다는 말이다.

반침략조국방위를 위한 투쟁과 령도완정을 위한 투쟁을 반영한 고구려시기 문학에는 적들의 비밀을 알아내고 적을 속여넘기기 위한 탐정활동이 일정하게 반영되어있다.

한편 세계적으로 농고불 때 일련의 책들에서는 탐정문학의 발생이 미국작가 포우(1809~1849)가 쓴 단편소설 《모르그저리의 살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있다.

그후 프랑스작가 에밀 가리보오가 쓴 《루쵸 탐정》을 비롯한 일련의 소설들에 의하여 탐정소설의 한 분야라고 말할수 있는 추리소설분야에서

발전이 이룩되었다.

또한 영국작가 코난 도일(1859~1930)에 의하여 탐정인 샬로크 홈즈를 주인공으로 내세움으로써 추리소설이 보다 뚜렷한 문학형식을 갖추게 되었으며 프랑스작가 모리스 르블랑(1864~1941)이 괴상한 도적 아르세느 루팡을 중심으로 하는 추리소설을 편이어 내놓음으로써 추리소설은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흔히 자본주의나라들의 탐정소설들에서는 모험적이며 령기적인 사건을 흥미본위적으로 아슬아슬하게 엮어가면서 탐정들의 모험과 《위험》을 찬양하고있다.

이와 반면에 우리 나라 탐정소설에서는 사건을 전개해나가면서 문학의 인간학적본성에 맞게 산 인간의 성격을 깊이 파고들며 이야기를 생활과 성격의 론리에 맞게 깊이있게 추구해들어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탐정소설은 일련의 특징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우선 우리 탐정소설이 혁명적수령관을 핵으로 한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 원수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 등을 체현하고있으면서도 탐정일군으로서의 기질을 보여주는 주인공의 형상을 창조하고있는것이다.

장편소설 《특수전선》에서 형상된 주인공은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위대한 수령님과 연고관계를 맺고있는 인물이며 그이의 품속에서 혁명하는

법을 배운 혁명가이다. 이런 참다운 주인공이기에 그는 언제나 아버지수령님을 우러러 흠모하면서 그이의 전사된 영에 안고 탐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간다.

주인공은 적후의 어려운 정황속에서 스스로 자기에게 적의 세균전연구기지를 파괴할데 대한 임무를 제기하고 높은 정신력으로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한다.

소설에서 형상된 주인공의 영웅적성격의 근저에는 수령의 전사로서 조국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까울것이 없으며 오직 그 길에 자기의 참된 영예가 있다는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자리잡고있다. 이러한 례는 우리의 모든 탐정소설들에서 다 찾아볼수 있다.

우리 식 탐정소설의 특징은 또한 극구성에서 사건위주의 극구성이 아니라 사건과 감정을 옹계 배합하여 이야기를 보다 흥미진진하게, 여운이 있게 펴나간다는데 있다.

우리 탐정소설의 주인공들은 적후에서 적들과 함께 생활하며 외형적으로 그들에게 복무해야 하는것만큼 그들이 지니고있는 성격의 2중성으로부터 작품의 극성이 흘러나온다.

하지만 자본주의나라 탐정소설에서는 흔히 불안과 공포, 음산한 분위기 등을 설정하고 령기적인 사건의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극성을 조성하고있다. 이렇게 하여 사람들의 인기를 끌려하고있다.

우리의 탐정소설은 주체의 인간학의 요구에 맞게 사건조직에 인간의 뜨거운 감정을 적극 배합해나가고있다. 결국 인간의 감정세계를 타고 사건의 흥미도 보장하면서 소설의 특징을 옹계 살려나가고있다.

이는 장편소설 《포성없는 전구》에서 맥아더와 요시다, 채병덕과의 3자회담을 통하여 조국앞에 닥쳐온 위험을 포착한 주인공 남희의 감정세계를 형상한 부분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소설은 여기서 주인공의 내면심리세계를 보다 인상깊게 형상해냄으로써 독자들에게 탐정일군의 모습을 더 인상깊고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우리 식 탐정소설의 특징은 또한 소설의 형태적

특성에 맞게 묘사를 잘하면서도 탐정적특성에 따라 암호와 대호를 리용한 간단명료한 언어표현들을 잘 살려쓰고있는것이다.

탐정소설도 어디까지나 소설문학의 한 형태이다. 따라서 탐정소설에서도 우리 인민의 감정정서에 맞는 좁이 있고 읽을 맛이 있는 생동한 묘사를 해야 한다.

장편소설 《폭풍의 산아》, 《장검》, 《낮선 대위》 등만 놓고보아도 소설에서는 묘사를 생동하게 해나감으로써 소설의 감화력을 높이고있다.

탐정활동이란 한순간을 위하여 일생을 바쳐야 하기도 하고 또 대를 이어가면서 하기도 하는, 지어 순간에 생명을 내대야 하는 어렵고 책임적인 사업이다. 그러기에 탐정일군에게 있어서 그 어떤 난관이나 능숙하게 대처할수 있는 림기응변의 기질은 필수적인것이라고도 할수 있다.

이로부터 탐정일군들이 자기 활동에서 간단명료한 언어표현들을 리용하는것은 필연적이다. 간단명료한 언어표현들을 리용하면서 정황을 옹계 설정할 때 탐정소설의 특징에 맞게 속도감과 긴장감을 충분히 살릴수 있다.

장편소설 《장검》에서 자주 리용되는 암호는 점선암호인데 《부사산에 가면 부석을 얻을수 있습니다까?》, 《아니, 부석이야 백두산에 가야 얻지요.》를 자주 리용하고있다. 여기서 표현은 비록 간단하지만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늘 가슴에 안고 살려는 적후주인공들의 뜨거운 심리세계가 맥맥히 흐르고있다. 소설에서는 공작조의 대호는 《장검》, 본부의 대호는 《삼천리》 등과 같이 대호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있다.

바로 이와 같은 탐정소설의 몇가지 특징들로 하여 우리 식 탐정소설은 사상예술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올라서고있다.

오늘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악랄한 정탐행위와 심리모략전을 짓부셔나가기 위해서도 우리 작가들은 탐정소설창작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이를 보다 우수하게 창작하기 위해 힘써야 할것이다.

허영아

세계유모아

기 상 예 보

기상관측소 소장이 창밖에서 비방울이 떨어지는것을 내다보면서 연구사들에게 말하였다.

《참, 좋은 비로군! 우리가 이 비를 얼마나 고대하였소?》

《하긴 그렇지요. 비가 오겠다고 예보한지 벌써 한주일이 지났으니까...》

주체100년, 장군님을 따라 걸어온 우리의 자욱

송년의 밤이 깊어갑니다.

이 나라 천만군민을 이끄시고 진두에서 헤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의 자욱으로 해가 뜨고 달이 솟는 력사의 나날들이 해를 이룬 위대한 한해가 또 저물어갑니다.

장군님의 그 령도의 자욱따라 걸으며 부르고 부른 우리 작가들의 심장의 노래가 주체100(2011)년의 《조선문학》 잡지의 폐지들을 빛나게 장식하였습니다.

자자구구, 구절구절마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아버지 **김정일** 장군님에 대한 흠모와 그리움이 차 넘치고 그이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위대한 당, 위대한 인민에 대한 격찬의 송가가 수많은 태어난 2011년은 정말로 문학작품들과 더불어 추억도 산 같고 바다같은 해였다고 말할수 있을것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작가는 오직 당을 위한 몸이 되여야 하며 무엇을 하나 창작하여도 당의 뜻을 끝까지 받들고 꽃피우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여야 한다.》

우리의 주체문학은 명실공히 수령의 문학이며 수령형상작품창작은 우리 작가들의 생명입니다.

그렇게 놓고볼 때 올해에도 우리 《조선문학》 잡지의 소설문단에는 우리 인민의 영원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하신 품모를 형상한 작품들이 훌륭하게 창작되어 많이 편집되었습니다.

단편소설 《축복의 밤》(안홍윤), 《눈보라 사나운 날에》(안명국), 《맑게 개인 하늘》(석남진), 《사과꽃》(최성진), 《흰눈세계》(김혜영), 《신해만의 풍경》(리명) 등 수령형상주제작품들은 영원히 잊을수 없는 아버지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 언제나 천만군민과 함께 강성국가 건설의 진두에 서계시는 아버지 장군님의 거룩하신 품모를 진실하고 사상예술적감흥이 크게 잘 형상하여 독자대중의 심장속에 지워지지 않을 여운을 남겨주었습니다.

1년 12개호 잡지의 거의 매호에 실리다싶이한 수령형상주제소설들은 우리 작가들이 이 주제창작을 창작활동의 근본으로 삼고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올해에도 소설가들속에서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

이 많이 창작되었습니다.

편집부는 올해에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 작가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아래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는 이 나라 방방곡곡, 살아숨쉬는 현실의 곳곳에 다 자신의 창작활동의 자욱을 찍은 사실들을 놀랍게 확인하였으며 또 경탄하였습니다.

현실체험의 배낭을 지고 인민들속에 들어가 깊이있고 내용있는 창작활동을 벌린 결과 단편소설들인 《우리 노래의 가락》(김홍균), 《천리마를 탄 처녀》(림봉철), 《갈대숲서정》(곽성호), 《눈덮인 산정》(최경훈), 《책임》(라광철), 《한마음한뜻으로》(리명현) 등 각이한 생활무대의 각이한 인물들이 선군시대의 약동하는 숨결을 체현하고 생동하고 진실하게 독자대중앞에 자기의 모습을 내보였습니다.

더불어 부연하고싶은것은 우리 소설가들이 혁명전통주제와 사회주의농촌물주제작품창작에 더 큰 힘을 넣어야 할것이라는것입니다.

다음 올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조선문학》 잡지에 시인들이 가꾼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들이 가득 피어 문단을 이채롭게 장식하였습니다.

정말 우리 시인들은 온 한해 아버지 장군님 가시는 곳 그 어디나 있었습니다.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의 추억을 남기려는 시인들의 불같은 지향은 훌륭한 시들을 낳았습니다.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 계시는 아버지 장군님을 우리르며 《조국은 아득히 멀어도》(리연희), 《장군님 따라서는 마음》(변홍영), 《별처럼 새기신 자욱》(리명근), 《고향의 파원은 기다립니다》(리진목) 등 그리움의 노래들을 터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선군혁명총진군의 전투장마다에서 격정의 노래, 환희의 노래로 천만군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서사시 《비날론》(주명옥), 장시 《장군님과 김철녀인들》(전승일), 편시 《창성의 봄》(한원희, 김명철, 김성철, 유련희), 서정시 《수령님과 공민중》(조영일), 《어머님의 맑은 샘》(정동찬), 《이 땅엔 개선문이 있다》(주경), 《은하수 흐르는 땅》(박정애), 《우리의 추억은 아름답다》(리영철), 《나는 고난의 나날에 아버지로 되

였다》(윤정길), 《석철이 되어 금단이 되어》(우광복), 《밤없는 하루》(박정철), 《신고가다오 신고와다오》(위명철), 《봄문을 열고》(심복실) 등 많은 시작품들을 편집하면서 우리 편집부는 살아도 죽어도 오직 장군님의 작가로 살려는 우리 시인들의 숨결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조선문학》잡지의 시문단에는 시대성과 정론성이 강하고 풍자성이 예리한 벽시, 가사, 풍자시 등 다양한 종류의 시들도 많이 실렸다는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싶습니다.

겸하여 시인들에게 부언하고싶은것은 올해와 다름없이 새해에도 수령형상주제의 시작품창작에 배가의 정열을 쏟아부어달라는것, 혁명전통주제와 계급교양주제의 시작품창작에 낮을 더 많이 돌려달라는것입니다.

사변도 많고 기적도 거창한 올해여서인지 우리 편집부의 이야기도 길어져야 할가롭니다.

올해에 우리 《조선문학》잡지에는 류다르게 희곡작품들이 많이 실렸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시대의 교본으로 높이 평가해주신 **김일성**상계관작품들인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와 경희극 《산울림》 창작가들의 창작기풍과 태도를 본받아 희곡들인 《생의 뿌리》(리명선), 《수정천》(리기창), 《두봉화》(김진경), 《첫봄날에》(조인선)가 자기의 독특한 얼굴들을 지면에 보인것은 평가할만 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정신을 민감하게 반영하고 참신한 생활감정을 담은 실화문학, 수필, 단상들은 또 얼마나 많이 쏟아져나왔습니까.

실화문학 《심장은 사랑으로 뜨겁다》(김정일), 수필 《추억에 대한 생각》(리명현), 《푸르른 나무들의 설레임속에》(리정옥), 《청산별의 서정》(엄성영), 《선군경과 강성대국》(한철순), 《인연이 깊어가는 계절에》(변영옥), 《하늘아래 첫 동네》(리성식), 《아름다운 곳에서》(기경호)... 정말 미처 꼽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우리 작가들의 시대정신과 창작적열정이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빨찌산식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발자취따라 나래친것이라고 편집부는 높이 자랑합니다.

올해에도 우리 평론가들은 우리 문단의 관문을 지키며 평론의 예리한 필봉을 작가들의 창작걸음새에 뒤지지 않고 따라세웠습니다.

평론이 없이는 문학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수 없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자신들의 사명감으로 간직한 평론가들은 올해에도 선

도적역할을 당당히 수행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평론 《수령형상소설문학과 심오한 철학세계》(김학), 《천지개벽의 새 역사를 창조하신 위대한 선군령장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감동깊은 형상》(박춘택), 《수령형상의 격과 단편소설의 묘기》(최언경), 《위대한 어머니의 밝은 미소에 대한 철학적인 형상》(김순림), 《시인의 심장이 불타면 시대의 서정은 뜨겁다》(김봉민)를 비롯하여 많은 평론들과 단평들이 뚜렷한 사상주제와 자기의 얼굴을 가지고 평론문단계를 장식하였습니다.

정말 돌켜볼수록 올해는 사변도 많고 성과도 커서 추억도 깊습니다.

이 추억속에 래일을 바라보니 휘황한 빛발에 싸여 새해 주체101(2012)년이 크나큰것을, 많은것을 약속하며 다가오고있습니다.

주체101(2012)년!

우리 사회주의조선의 시조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이 되는 새해.

얼마나 기다려온 뜻깊은 해입니까!

마음속으로 새해의 이름만 불러보아도 뭐라고 이름할수 없는 크나큰 걱정으로 가슴 빼근해오는 이 시각.

바로 이 숭엄한 력사앞에, 시대앞에 우리 작가들이 지닌 사명감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작가들은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지니고 모든 종류의 문학작품창작에서 우리 수령이 제일이고 우리 당이 제일이라는 수령송가창작에 첫째가는 모를 박고 자신의 모든 정열과 지혜를 다 바쳐야 할것입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널리 파시한 우리 수령, 우리 당,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대한 생활력을 작품들에 반영하는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수령형상주제작품창작과 함께 혁명전통주제, 계급교양주제의 작품창작에 힘을 넣어야 할것입니다.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 발자취따라 세기를 놀래우는 변혁과 기적을 창조하는 사회주의건설장들마다에서 자기의 현실체험배낭을 그득 채우고 시대정신이 맥박치고 산인간천행들의 모습이 비껴있는 훌륭한 명작들로 새해를 의의있게 장식하여야 할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창작기풍, 창작태도, 창작능력을 따라배울데 대하여 평가해주신 작가들처럼

살며 투쟁하고 창작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고 믿어주시고 내세워주시는 우리 작가들은 마땅히 투철한 각오와 신념, 배짱을 지니고 영원히 장군님따라가는 길에 새해의 노래도 시대성있게, 전투성있게, 특색있게, 이채롭게 새겨야 할것입니다.

새해 주체101(2012)년!

부흥과 영광, 비약과 기적, 기쁨과 희망... 많은 것을 품어안고 다가오는 새해!

새날의 종소리와 함께 조국강산에 은은히 울려 퍼지는 《**김 일 성** 장 군 의 노 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의 선율을 들으며, 영원

히 드림없을 결의,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김정일**장군님을 따라, 당을 따라 숨이 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고갈 맹세를 또다시 굳히며 우리 작가들은 신들메를 든든히 조입니다.

그리고 장군님 가리키시는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전투장, 새로운 전구들마다로 떠나갑니다.

우리 《조선문학》편집부도 힘껏 작가들의 걸음에 발걸음을 맞추며 불타는 정열과 사심없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것입니다.

그럼 뜻깊고 의의있는 명작들로 새해의 우리 《조선문학》잡지를 장식하고 주체101(2012)년을 바래우는 령마루에서 다시 만납시다.

조선속담

조 급 성

- | | |
|------------------------|-----------------------|
| ◦ 걸가마도 안 끓는데 속가마부터 끓는다 | 다린다) |
| ◦ 급히 먹는 밥이 목이 멘다 | ◦ 죽쭈어 식힐 동안이 급하다 |
| ◦ 물보기 전에 바지부터 벗는다 | ◦ 참외밭에 든 녀석 |
| ◦ 성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 | ◦ 콩밭에 가서 두부 찾는다 |
| ◦ 술에 넣은 팔이라도 익어야 먹는다 | ◦ 열흘 나그네 하루길 바빠한다 |
| ◦ 새벽달 보려고 초저녁부터 나앉는다(기 | ◦ 털도 안 난것이 날기부터 하려 한다 |

조선문학 주체100(2011)년 제12호 (루계 제770호)

편 집 위 원 회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	쇄	소	평	양	종	합	인	쇄
인	쇄		주	체	100(2011)년	12월	1일	
발	행		주	체	100(2011)년	12월	5일	

7-16573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1

D P R Korea

ISSN 1727-9437